

2016 사업년도 경영평가보고서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차 례

제1장 경영평가 개요

1. 경영평가 근거 및 목적	11
2.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11
3.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12
4. 평가방법 및 평가과정	15

제2장 경영개황

1. 2016년도 경영목표	19
2. 매체 운영 현황	20
3. 2016년 편성 방향	22
4. 조직 및 인력 현황	23
5. 시설 현황	24
6. 예산 현황	25
7. 재무 현황	26

제3장 경영평가 결과

1. 총평	31
2. 부문별 총평	37
가. 방송부문	37
나. 교육부문	39
다. 기술부문	42
라. 경영부문	44

제4장 부문별 평가

1. 방송부문	49
가. 방송목표	51
평가내용	51
1) 방송편성목표의 적정성	51
평가결과 및 제언	53
나. 방송편성과 운영	56
평가내용	56
1)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	56
2)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기준	61
3) 방송운영의 정시성 정도	64
평가결과 및 제언	65
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69
평가내용	69
1)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69
2) 외주제작 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70
3) 프로그램의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73
평가결과 및 제언	75
라. 시청자 서비스	78
평가내용	78
1)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78
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적정성	79
평가결과 및 제언	81
마. 방송성과	82
평가내용	82
1)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82
2)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89

3)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90
평가결과 및 제언	94
바.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96
평가내용	96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96
평가결과 및 제언	98
2. 교육부문	101
가. 방송교육목표	102
평가내용	102
1) 방송교육목표의 적정성	102
평가결과 및 제언	105
나. 교육방송 시스템	106
평가내용	106
1)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조직 활용 및 대외협력의 정도	106
2)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시 방송교육목표의 반영 정도	109
3)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113
4) 제작 직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115
5) 참여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119
6)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123
7)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126
평가결과 및 제언	130
다. 방송교육 과정	135
평가내용	135
1)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135
평가결과 및 제언	139
라. 방송교육 성과	140
평가내용	1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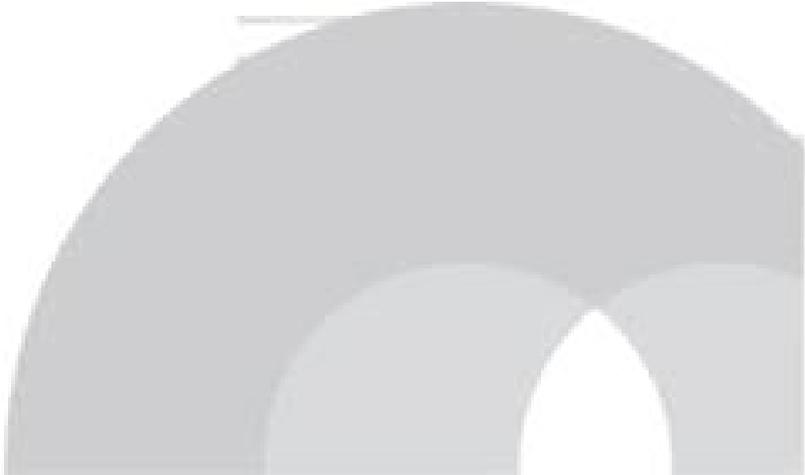
1) 타깃 시청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정도	140
2)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141
3)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 정도	143
평가결과 및 제언	145
마.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147
평가내용	147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147
평가결과 및 제언	149
3. 기술부문	150
가. 기술 정책	152
평가내용	152
1)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	152
2) 미디어 환경 대응의 적정성	154
평가결과 및 제언	157
나. IT 환경 대응	159
평가 내용	159
1) I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159
2) IT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성과	161
3) IT 인프라 운용의 효율성	162
4)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165
평가결과 및 제언	167
다. 방송 시스템 개선	170
평가내용	170
1)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170
2) 방송망 관리의 효율성	174
3) 방송기술 개발 노력의 적정성	175
4) 디지털 방송 제작 및 송출 시스템 투자의 효율성	176

5)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정도	177
6) 인력 역량 강화 노력의 정도	179
7) 제작시설 활용의 효율성	181
8) 프로그램 품질 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	182
평가결과 및 제언	185
라.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188
평가내용	188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188
평가결과 및 제언	190
4. 경영부문	191
가. 경영목표 및 전략	192
평가내용	192
1) 경영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192
2)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의 정도	194
평가결과 및 제언	199
나. 조직 및 인사관리	201
평가내용	201
1) 조직운영의 효율성	201
2) 인사관리의 적정성	203
3)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206
평가결과 및 제언	208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209
평가내용	209
1)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209
2)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210
3)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215
평가결과 및 제언	217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219
평가내용	219
1)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219
2)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222
평가결과 및 제언	229
마.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230
평가내용	230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230
평가결과 및 제언	231



제1장 경영평가 개요



1. 경영평가 근거 및 목적

본 경영평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의 규정에 의거해 실시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설립목적인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공적책임을 다하고, 경영 개선을 통해 EBS 설립목적 구현에 충실한 경영 관리를 도모하는 데에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다.

2.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영

가. 경영평가단 구성

경영평가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2항 규정에 따라 방송, 교육, 기술, 경영 관련 전문가 각 1명, 비상임 이사 2명 및 EBS 상임감사 1명 등 총 7인을 이사회가 위촉해 구성했다. 단장은 경영평가단에서 호선했으며, 평가위원은 다음과 같다.

단장 : 이재환 (EBS 이사)

방송부문 : 김평호 (단국대학교 교수)

교육부문 : 박경제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총장)

기술부문 : 이상운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경영부문 : 이상근 (서강대학교 교수)

위원 : 박강호 (EBS 이사)

위원 : 배인준 (EBS 상임감사)

나. 운영기간 : 2017년 1월 ~ 2017년 5월

3.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평가부문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제1항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정관 제13조(기능) 제3항에 명기된 6개항 ①경영목표 설정의 타당성, ②예산 집행의 효율성, ③인사·조직 등 경영관리 제도, ④재무상태 등 경영 실적, ⑤시설투자, ⑥기타 EBS 발전과 경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EBS 업무와 연관시켜 방송, 교육, 기술, 경영 4개 부문으로 설정했다.

2016사업연도 경영평가기준은 제249회 이사회(2016. 12. 29)에서 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평가편람 개정(안)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해 방송부문 13항목, 교육부문 13항목, 기술부문 15항목, 경영부문 11항목 총 52항목에 대해 경영평가를 실시했다.

가. 평가 대상 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나. 부문별 평가항목

1) 방송부문

가) 방송목표

- ① 방송편성목표 적정성

나) 방송편성과 운영

- ①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
- ②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기준
- ③ 방송운행의 정시성 정도

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 ① 제작 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 ② 외주제작 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 ③ 프로그램의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라) 시청자 서비스

- ①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 ②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적정성

마) 방송성과

- ①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 ② 프로그램의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 ③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바)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 ①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2) 교육부문

가) 방송교육목표

- ① 방송교육목표 적정성

나) 교육방송 시스템

- ①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조직 활용 및 대외협력의 정도
- 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시 방송교육목표의 반영 정도
- ③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 ④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 ⑤ 참여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 ⑥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 ⑦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다) 방송교육 과정

- ①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라) 방송교육 성과

- ① 타깃 시청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정도
- ②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 ③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 정도

라)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 ①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3) 기술부문

가) 기술정책

- ①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
- ② 미디어 환경 대응의 적정성

나) IT 환경 대응

- ① I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 ② IT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성과
- ③ IT 인프라 운용의 효율성
- ④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다) 방송 시스템 개선

- ①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 ② 방송망 관리의 효율성
- ③ 방송기술 개발 노력의 적정성
- ④ 디지털 방송 제작 및 송출 시스템 투자의 효율성
- ⑤ 방송 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정도
- ⑥ 인력 역량 강화 노력의 정도
- ⑦ 제작시설 활용의 효율성
- ⑧ 프로그램 품질 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

라)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 ①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4) 경영부문

가) 경영목표 및 전략

- ① 경영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 ②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의 정도

나) 조직 및 인사 관리

- ① 조직운영의 효율성
- ② 인사관리의 적정성
- ③ 노사 관리의 안정화 정도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 ①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 ②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 ③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 ①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 ②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마)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 ①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4. 평가방법 및 평가과정

2016사업연도 경영평가는 2016년 12월 29일 개최된 제249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2016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실시 계획에 따라 경영실적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위해 방송, 교육, 기술, 경영 등 각 부문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했다. 2016사업연도 경영평가 자체 평가 자료는 EBS 경영평가편람을 바탕으로 부문별 책임자와 실무지원 담당을 두고 업무를 정리, 분석해 제출했다. 경영평가단은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걸쳐 부문별 책임자 및 실무자 면담을 실시했으며, 평가에 부족한 항

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여기에 제작현장 실사 등을 거쳐 종합적인 경영평가결과를 도출했다.

2016사업연도 경영평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 2016. 12. 29 : 2016사업연도 경영평가 실시 계획(안) 이사회 의결
- 2017. 1. 19 : 경영평가 위원 위촉 및 상건례
- 2017. 1. 19 : 1차 경영평가단 회의
 - 경영평가 실시 계획 및 일정 협의
- 2017. 2. 15 : 제2차 경영평가단 회의
 - EBS 일반 현황 브리핑
 - EBS 우면동 방송센터 및 본사 제작시설 현장 실사
- 2017. 3. 17 : 제3차 경영평가단 회의
 - 부문별 자체 평가서 검토 및 서면평가 실시
- 2017. 3. 20~3. 30 : 부문별 부서장 면담을 통한 현장평가 실시
- 2017. 3. 31 : 제4차 경영평가단 회의
 - 현장평가 결과 논의 및 경영평가보고서(안) 작성 협의
- 2017. 4. 14 : 제5차 경영평가단 회의
 - 경영평가보고서(안) 1차 검토 및 보완 사항 협의
- 2017. 4. 28 : 제6차 경영평가단 회의
 - 경영평가보고서(안) 2차 검토 및 편람 개선 사항 등 협의
- 2017. 5. 16 : 제7차 경영평가단 회의
 - 경영평가보고서(안) 확정
- 2017. 5. 25 : 2016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이사회 보고 및 의결
- 2017. 5. 31 : 2016사업연도 경영평가 결과 공표(방송 및 인터넷)
- 2017. 5. 31 : 2016사업연도 경영평가보고서 타 언론사 및 방송사 배포



제2장 경영개황



1. 2016년도 경영목표

1) 경영목표

인성·창의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 대

스마트 서비스
구 현

2) 6대 추진과제

- ① 미래 인재 교육 선도
- ②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 구현
- ③ 고품격 콘텐츠 제작
- ④ 글로벌 교육한류 선도
- ⑤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 ⑥ 시청자 서비스 내실화

2. 매체 운영 현황

1) 방송 채널

구분	주 간 방송시간	1일 방송시간 (2016년 기본편성)			
		월~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지상파 방송사업	디지털 TV EBS1	8,825분	6,305분	1,260분	1,260분
	디지털 TV EBS2	8,025분	5,725분	1,150분	1,150분
	라디오 FM	8,820분	1,260분	1,260분	1,260분
방송채널 사용사업	EBS 플러스1	10,080분	7,200분	1,440분	1,440분
	EBS 플러스2	7,560분	5,400분	1,080분	1,080분
	EBS English	7,560분	5,400분	1,080분	1,080분
	EBS U	8,400분	1,200분	1,200분	1,200분

※ EBS 지상파 TV는 방송법 제78조에 의거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및 IPTV에 동시 재전송

2)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주소	주요 서비스	유·무료	회원수(만명)
www.ebs.co.kr	TV, 플러스2, FM VOD·AOD 서비스	유·무료	202
primary.ebs.co.kr	초등 학습 콘텐츠 서비스	무료	185
mid.ebs.co.kr	중학 학습 콘텐츠 서비스	유·무료	221
clipbank.ebs.co.kr	클립 서비스	무료	24
free.ebs.co.kr	시각, 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무료	무회원제서비스
durian.ebs.co.kr	한글교육 프로그램 서비스	무료	무회원제서비스
www.ebsi.co.kr	플러스1 및 수능 인터넷 강좌 서비스	무료	132
www.ebse.co.kr	영어방송 다시보기 서비스	무료	109
www.ebsmath.co.kr	수학교육 전문 사이트	무료	22
www.ebslang.co.kr	종합 외국어 인터넷 강의 서비스	유료	10
총 회원 수 (2016년 12월 31일 기준)			458

※ 총 회원 수는 중복이 제거된 회원 수

3) 채널별 편성 비율 (2016년 봄 편성 기준)

○ EBS 1TV

유아	어린이	청소년	가족	성인/일반
18.7%	14.7%	12.3%	15.1%	39.2%

○ EBS 2TV

초등	중등	영어	일반(통일, 다문화, 특강)
33.5%	10.0%	30.7%	25.8%

○ 지상파 FM

학교교육		평생교육		
중학	고교	영어	제2외국어	평생교육
2.0%	2.0%	23.8%	7.5%	64.7%

○ EBS 플러스1(수능 전문)

학교교육	평생교육
97.6%	2.4%

○ EBS 플러스2(초등·중학·직업)

초등교육	중학교육	평생교육
21.2%	52.6%	15.3%

○ EBS English(중학·직업)

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21.7%	11.9%	34.9%	31.5%

○ EBS u(유아·어린이)

유아	어린이	부모교육
70.5%	25.9%	3.6%

3. 2016년 편성 방향



1 콘텐츠 경쟁력 제고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 대기획 시리즈 편성
- EBS 위상 제고를 위한 혁신적 대표 콘텐츠 개발
- 생애주기별 수요자 니즈(Needs) 기반 콘텐츠 편성을 통한 공익성 강화
- N스크린, UHD 등 방송환경 변화 대비 콘텐츠 개발

2 미래 인재 교육 강화

-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한 교육 의제 프로그램 편성
- 유아·어린이, 인성·창의 교육 콘텐츠 개발
-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진로 선택을 돕는 콘텐츠 개발
- 세계 강대국과 한국의 미래 인재 육성 전략을 다룬 프로그램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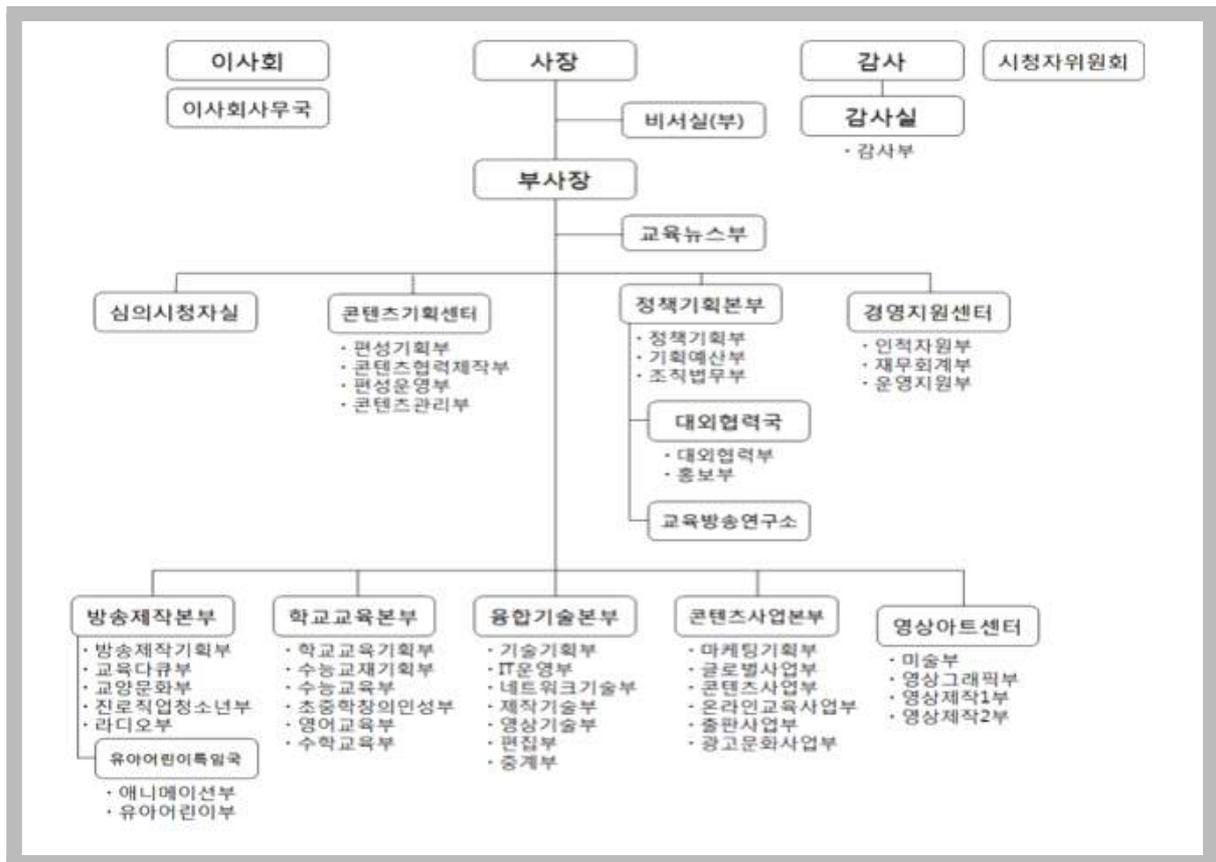
3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응

- 크로스 플랫폼 콘텐츠 강화
- UHD, VR, 소셜미디어 연계 콘텐츠 개발
- 시청자 중심 큐레이션 강화

4. 조직 및 인력 현황

1) 조직 현황

2016. 12. 31 현재



※ 한시조직 2단(디지털통합사옥건설단, 다채널 방송추진단), 1팀(미래전략팀) 제외

2) 인원 현황

○ 현재원 : 594명(정원 : 629명)

구분	임원	일반직(별정직포함)	계(명)
정원	3	626	629
현원	3	591	594
과부족	0	35	35

※ 개방형 계약직 포함 (2016.12.31. 현재)

5. 시설 현황

1) 업무 시설

○ 본사

위치	면적	용도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	18,492m ²	주 사무실 및 방송 제작

○ 임차 시설 : 방송센터 외(본사 외에 5개 건물 임차해 분산 근무)

위치	면적	용도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1길(방송센터, 한국교육개발원)	4,804m ²	제작 및 송출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다명빌딩)	835m ²	업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한방빌딩)	1,338m ²	업무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우박빌딩)	324m ²	업무
경기도 용인시(세트 창고)	462m ²	세트 창고
계	7,763m ²	

2) 방송 시설

송출시설(주조)	스튜디오	편집시설	중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주조 1실 ○ 위성멀티주조 1실 (3개 PP동시송출) ○ 라디오주조 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스튜디오 6실 ○ 라디오 스튜디오 5실 ○ e-러닝 스튜디오 11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종편 4실 ○ DAW 2실 ○ 특수편집 2실 ○ 1:1 편집 34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16톤)1대 ○ HD(5톤)1대 ○ 스마트밴(4톤) 1대

6. 예산 현황

1) 2016년 예산 현황

총 예산	공적 자원	자체 수입
2,817억 원(100.0%)	693억 원(24.1%)	2,178억 원(75.9%)

○ 공적 자원

TV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특별교부금	소계
177억 원(6.2%)	274억 원(9.5%)	241억 원(8.4%)	693억 원(24.1%)

① TV수신료 배분			② 방통발전기금(방통위, 미래부)		③ 특별교부금(교육부)	
KBS	90.4%	5,178억 원	프로그램 제작	252억 원	수능사업	170억 원
EBS	2.8%	177억 원	글로벌 교육 콘텐츠	18억 원	영어채널	43억 원
한국전력	6.8%	430억 원	장애인 방송	3억 원	수학 교육	28억 원
계	100.0%	6,325억 원	장애인인터넷 서비스	2억 원	계	241억 원
월 TV수신료 2,500원 중 EBS 몫은 70원			계	274억 원		

○ 자체 수입

수능교재	기타출판	방송광고	콘텐츠사업	온라인사업	기타사업	소계
460억 원 (16.0%)	436억 원 (15.2%)	400억 원 (13.9%)	121억 원 (4.2%)	355억 원 (12.4%)	406억 원 (14.1%)	2,178억 원 (75.9%)

2) 자본금 납입현황

법정 자본금	납입 자본금	미납입 자본금
1,000억 원(100.0%)	809억 원(80.9%)	191억 원(19.1%)

7. 재무 현황

1) 재무제표

○ 제17기 : 2016년 12월 31일 현재

○ 제16기 : 2015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단위 : 억 원)

계정 과목	제17(당)기	제16(전기)	증감액	증감률
I .유동자산	644	1,194	-550	-46.0%
(1) 당좌자산	633	1,181	-548	-46.4%
1. 현금및현금성자산	109	311	-202	-65.0%
2. 단기투자자산	105	481	-376	-78.2%
3. 매출채권	294	282	12	4.2%
4. 미수금	15	16	-1	-5.1%
5. 미수수익		3	-3	-84.8%
6. 선급법인세	3	-	-	-
7. 선급비용	69	80	-11	-14.1%
8. 부가세선급금	37	8	29	366.8%
(2) 재고자산	12	13	-1	-11.2%
II .비유동자산	1,822	960	862	89.8%
(1) 투자자산	19	16	3	16.0%
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9	16	3	16.0%
(2) 유형자산	1,787	928	859	92.6%
1.토지	334	334	-	-
2.건물	72	77	-5	-6.2%
3.구축물		1	-1	-63.8%
4.방송장비	33	38	-5	-12.3%
5.기계장치	7	13	-6	-48.0%
6.차량운반구		-	-	-
7.공기구비품	13	9	4	45.7%
8.건설중인자산	1,327	456	871	191.1%
(3) 무형자산	1	1	-	-
(4) 기타비유동자산	15	15	-	-
[자산 총계]	2,466	2,154	312	14.5%

[부채와 자본]

(단위 : 억 원)

계정 과목	제17(당기)	제16(전기)	증감액	증감률
I. 유동부채	551	399	152	38.0%
1.매입채무	40	45	-5	-11.9%
2.미지급금	237	128	109	84.9%
3.예수제세금	13	20	-7	-33.8%
4.예수보관금	1	1	-	13.4%
5.예수보증금	2	3	-1	-19.8%
6.부가세예수금	-	-	-	-
7.미지급비용	7	7	-	-2.9%
8.미지급법인세	-	2	-2	-100.0%
9.유동성금융리스부채	-	-	-	-
10.환급추정부채	8	11	-3	-24.9%
11.반품추정부채	84	88	-4	-4.8%
12.선수금	158	94	64	68.4%
13.기타의 유동부채	-	-	-	-
II. 비유동부채	310	272	38	14.1%
1.퇴직급여충당부채	310	272	38	14.1%
[부채 총계]	861	671	190	28.3%
I. 자본금	809	687	122	17.7%
1.자본금	809	687	122	17.7%
II. 이익잉여금	797	796	1	0.1%
1.이익준비금	171	162	9	5.8%
2.임의적립금	617	588	29	4.9%
3.미처분이익잉여금	9	46	-37	-80.9%
(당기 9억 원, 전기46억 원)				
[자본 총계]	1,605	1,483	122	8.2%
[부채와 자본총계]	2,466	2,154	312	14.5%

2) 요약 손익계산서

(단위 : 억 원)

계정 과목	제17(당)기	제16(전)기	증감액	증감률
I. 매출액	2,613	2,700	-87	-3.22%
(1) 방송사업수입	1,153	1,177	-24	-2.04%
1. 수신료수입	177	175	2	1.14%
2. 방송발전기금수입	273	255	18	7.06%
3. 국고보조금수입	229	236	-7	-2.97%
4. 방송광고수입	370	409	-39	-9.54%
5. 방송사업 기타수입	103	102	1	0.98%
(2) 부대사업수입	1,461	1,523	-62	-4.07%
1. 출판사업수입	882	936	-54	-5.77%
2. 문화콘텐츠부대사업수입	89	83	6	7.23%
3. 콘텐츠사업수입	350	385	-35	-9.09%
4. 부대사업 기타수입	140	119	21	17.65%
II. 매출원가	2,331	2,370	-39	-1.65%
(1) 방송사업비	1,500	1,453	47	3.23%
1. 방송제작비	1,163	1,112	51	4.59%
2. 기술제작비	236	234	2	0.85%
3. 방통융합제작비	101	107	-6	-5.61%
(2) 부대사업비	831	917	-86	-9.38%
1. 출판사업비	459	488	-29	-5.94%
2. 문화콘텐츠부대사업비	8	4	4	100.00%
3. 콘텐츠사업비	269	335	-66	-19.70%
4. 기타부대사업비	96	90	6	6.67%
III. 매출총이익	282	330	-48	-14.55%
IV. 판매비와일반관리비	302	307	-5	-1.63%
1. 판매비	82	87	-5	-5.75%
2. 일반관리비	220	220	0	0.00%
V. 사업이익(손실)	-19	23	-42	-182.61%
VI. 사업외수입	30	39	-9	-23.08%
VII. 사업외비용	1	6	-5	-83.33%
VIII. 경상이익	9	56	-47	-83.93%
I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9	56	-47	-83.93%
X. 법인세비용	2	10	-8	-80.00%
XI. 당기순이익(손실)	7	46	-39	-84.78%



제3장 경영평가 결과



1. 총평

EBS는 교육방송을 목적으로 설립된 독립된 공영방송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EBS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로 하여금 EBS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경영평가를 위해 방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4인을 포함해 7인의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2016사업연도 EBS의 사업 전반에 관해 방송, 교육, 기술, 경영의 분야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했다.

경영평가는 과거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EBS의 발전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이고 유용한 평가를 하려는 생각에서, 먼저 평가를 받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을 일부 정비하고, 정량적인 평가방법도 일부 도입하는 내용으로 경영평가편람을 소폭 개정했다. 2016년도 사업연도의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평가의 전제로 삼은 현실적인 여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이다.

첫 번째는 E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방송통신발전기금, 특별교부금 등의 공적 재원의 비중은 전체 운영재원의 1/4 정도에 불과해 나머지 3/4 정도의 사업 수익이 없이는 독립된 기관으로 생존할 수도 없으므로 공공성뿐 아니라 수익성도 중시해야 하는 점이다.

두 번째는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안팎의 방송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이용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함에 따라 지상파 방송이라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약화되었으므로, EBS가 새로운 플랫폼들에서도 성공적으로 정착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었다. 또한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오히려 콘텐츠가 매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므로, EBS가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해 EBS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나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내용도 급변하는 과도기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EBS 학교방송의 주 시청자인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수능방송의 시청자나 수능교재의 수요도 급감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그에 따라 수능을 포함한 입시제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네 번째는 EBS로서는 외부의 방송환경이나 교육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2015년에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본방송을 준비 중인 EBS 2TV를 정착시키고, 2017년에 예정된 통합사옥 이전과 UHD 방송의 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했으므로, 새로운 채널과 방송기술이 도입되고 방송의 물적 환경도 크게 달라지는 변화의 시기라는 점이다.

위와 같은 현실 여건을 전제로 EBS의 2016년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면 어려운 여건 중에서도 한정된 인원과 재원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계 최고의 교육미디어그룹'이라는 현재의 비전에 걸맞게 세계 최고 수준인지라는 절대적인 가치로 평가한다면 아쉬운 점도 적지 않고, 특히 현재의 상황에는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으나, 과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불가결한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비상 상황에 처했을 때의 대책이 충분히 마련돼 있는지에 대해 일말의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EBS는 2016년부터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한시조직인 미래전략팀도 구성해 운영 중이므로 앞으로 나올 성과를 기대한다.

이하 구체적으로 각 부문별로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방송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EBS 2TV의 본방송을 대비하면서 EBS의 채널별 특성화가 중요한 쟁점으로 검토되었다. EBS 1TV는 '유아·어린이, 창의·인성 교육 채널 및 평생교육 채널', EBS2 TV는 '지역별·소득별 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 채널'로 정체성을 설정했으나, 채널 정체성을 나타내는 용어가 너무 많고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다. EBS 1TV는 전 국민을 위한 교양 및 평생교육 채널로, EBS 2TV는 학생을 위해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창의 및 학습채널로 간명하게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나, 이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려면 먼저 시청자가 EBS 2TV를 지상파로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할 것이다.

방송편성비율을 살펴보면, 법정편성비율을 모두 준수했을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나 노년세대,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의 소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송도 2015년의 7.5%(방송시간기준, 이하 같음)에서 2016년에는 8.2%로 증가했고, 장애인을 위한 자막, 수화, 화면해설 방송도 정부 목표인 10%를 넘어서서 12.2%에 이를 정도로 편성비율은 적정했다.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도 사전에 정해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방송의 정시 운행률도 100%에 이르렀다. EBS의 방송 관련 전체 수입액 918억 원 중 55%에 해당하는 502억 원이 제작비로 사용되었는데, 실제로 집행된 제작비가 사전에 장르별로 설정해둔 표준제작비의 99%에 달해 제작비의 집행도 적절했다. 외주제작비율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비율(20% 이상)보다 많은 29%(봄편성) 또는 28%(가을편성)였고, 2016년에는 외주제작사 프로그램 제작 매뉴얼을 새로 작성해 외주제작 관리시스템을 사전-중간-사후의 3단계로 나누어 정비해 시행했다.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해 방송에 반영하고, 나아가 시청자를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은 일방향이 방송시대보다 양방향의 방송시대에 더욱 기술적으로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요해졌다. EBS는 법적 설치의무가 없는 시청자위원회뿐만 아니라, 8명의 중고교 교사로 구성된 교사시청자위원회와 100명의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시청자위원회까지 구성해 시청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비율도 적정했다.

방송부문의 주요 성과로는 사전기획·제작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려는 노력을 한 결과, EBS 시청자의 프로그램 만족도 지수인 EPEI가 7.83으로 전년 대비 0.03 상승했고, EBS 시청자층과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별개의 평가지수인 CI도 7.18로 전년 대비 0.03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의 각종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46개의 상을 수상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액이 13억여 원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년대비 46%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베트남이 개국한 교육채널 VTV7¹⁾에 애니메이션 브랜드 블록인 플랫폼을 확보해 프로그

1) VTV7(Vietnam Television) : 베트남 국영방송이 운영하는 교육 채널

램을 안정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도 이루었다.

EBS 시청률을 살펴보면 성인 프로그램의 경우 0.85%로 전년 대비 0.02% 하락했으나, 시청률 3% 이상을 돌파한 횟수는 164회로서 오히려 전년의 148회보다 10.8% 증가했다. 또한 주 타깃 시청자인 어린이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시청률(1.78%)과 점유율(20.01%)이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이와 같이 방송부문은 적은 인원과 재원으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방송용으로 만든 콘텐츠를 방송이외의 다양한 플랫폼에서 폭넓게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뚜렷이 정립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이다.

교육부문에서는 학교교육 보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만큼, 방송내용의 교육전문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EBS는 교육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외부의 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의 교사 등 전문인력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시키고, 소수이기는 하지만 교사 등 전문인력을 파견받기도 한다. 그러나 EBS가 설정한 방송교육목표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개별 프로그램을 실제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주체인 방송제작 인력이나 기타 프로그램 참여자도 상당한 정도의 교육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EBS 방송제작 인력의 교육전문성을 확보해 유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신입사원의 채용이나 연수 시에 이 점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교육부문의 성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양질의 교재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배포하고, 우수한 강의를 방송함으로써,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했으며,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교사 및 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교육 콘텐츠를 인터넷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의 4개 과목의 수능강의에 대해 별도의 모바일용 강의파일을 시범 제작해 서비스했을 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 입시정보를 제공하는 '입시맘'이라는 앱을 개발해 배포하는 등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

출판사업도 EBS의 주요한 사업부분인데, 수능교재의 경우 조금이라도 오류나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

전에 오류가 없는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종 감수를 거친 후 발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 인쇄업체의 실수로 전년도 교재 파일로 인쇄돼 배포되는 사고가 1회 발생했다. 다만 사고발생 즉시 신속하게 리콜대응반을 구성해 연락이 가능한 경우에는 오류가 있는 교재를 긴급히 회수하고,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온라인구매자의 경우에는 전원에게 정상교재를 택배로 발송해 사고를 원만하게 수습한 것은 적절한 사후조치로 보인다.

기술부문에서는 적은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현재의 TV 2개, FM라디오 1개의 지상파방송 및 4개의 유료방송플랫폼 방송뿐 아니라, 10개의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서비스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통합사옥의 방송 인프라 구축업무, UHD²⁾ 방송 준비업무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IT 인프라 무장애서비스 유지시간 비율이 100%에 이르고, IT 서비스 개선요청에 대한 적기처리비율도 99.0%에 이를 정도로 기술적인 지원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더구나 라디오 송출 파일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미디어 통합 관리시스템 솔루션을 개발해 운영하고, 모바일환경에 적합한 서비스도 개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래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는 하지 않은 채 현재의 인원과 장비를 너무 현업에 활용시킴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인 기술개발의 잠재력을 훼손하고 있지나 않은가 하는 우려도 있다. 방송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기술개발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방송기술을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인력과 자금이 없다면, 미래의 방송형태에 제대로 기술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위험성이 적지 않다. 더구나 본격적인 UHD 방송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런데 현재 EBS의 기술개발인력은 3명에 불과하고 이들도 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선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방송기술에 대한 인적, 물적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경영부문에서는 먼저 그 동안 수 차례의 경영평가에서 계속해 도입을 권유했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³⁾시스템)의 도입을 결정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한 점

2) UHD : Ultra High Definition Television, 차세대 초고화질 방송

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ERP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 재설계(BPR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통합사옥의 이전과 맞물려서 순차적으로 ERP시스템이 정착돼 EBS의 업무처리가 한 단계 높아지고 이를 통해 수익도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

EBS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영방송이면서도 수신료 등의 공적 재원의 비중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따라서 EBS로서는 가구당 수신료를 인상해 수신료 배분액을 현재의 70원에서 적어도 수백 원 정도로 증액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고, 그 밖의 공적 재원의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BS의 2016년도 매출액은 2,613억 원으로 전년의 2,700억 원보다 감소해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입었다. 그러나 판매관리비는 302억 원으로 전년의 306억 원과 비슷해 판매관리비의 비율이 11.6%로 증가했다. 중장기적으로 매출액의 획기적인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매관리비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낮추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BS의 2016년도 직원만족도는 56.3점으로 전년의 57.1점보다도 낮다. 직원만족도가 낮은 것은 조직의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직원만족도가 낮은 원인을 분석해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만약 EBS의 직원만족도가 낮은 원인들 중의 하나가 일반직(가), 일반직(나), 일반직(다)의 복잡한 인사제도로 인해 임금이나 승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일부 직원들의 불만 때문이라면, 중장기적으로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

3)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 인사재무-제작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해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영혁신방법

4)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부분에서 극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기업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

2. 부문별 총평

가. 방송부문

2016년 EBS는 방송목표의 설정과 실천, 방송편성,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 콘텐츠 품질관리, 제작 예산투자와 집행, 시청자 서비스, 시청률, 국내외 수상실적, 프로그램 평가지수,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 방송부문의 거의 모든 측면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EBS가 운용하고 있는 6개의 TV 채널별 특성화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며, 2015년 시범 서비스로 시작된 2TV의 경우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물론 새로운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신설 등의 작업에서도 다양한 기준과 지표의 적용, 연구조사와 분석을 통해 시청자의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 한정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제작예산을 늘렸으며 탄탄한 외주관리 체제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과 신뢰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EBS는 또 시청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방송에 반영하기 위해 일반 시청자위원회 이외에 교육방송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사 및 청소년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EBS는 2016년 국내 어느 방송사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수상실적을 올렸으며, 해외 콘텐츠 수출에서도 괄목할만한 실적을 쌓았고, 프로그램 품질과 관련한 각종 평가지수도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러나 2016년의 성과와 함께 EBS는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첫째, 경영목표, 편성목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새로운 목표설정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도식적 사고, 비슷한 구호의 반복적 사용, 상투적 문구 등을 벗어나, EBS의 설립취지를 유연하면서도 내실 있게 해석하고, 그에 기초해 수미일관한 논리구조와 내용을 갖춘 경영·편성목표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경영·편성목표를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공유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하다.

둘째,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채널별 특성화 전략이 더욱 명실상부한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한다. 우선은 특성화 전략과 관련해, 각 채널의 목표와 정체성에 대한 보다 진전된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EBS의 대표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1TV

의 경우에는, 내용적으로 종합채널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포함, 지금보다 더욱 확실하고 도전적인 개념을 담아내는 위상설정 작업이 요구된다. 또 부가채널로 신설·운영하고 있는 2TV에 대해서는 내·외부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구성원들이 2TV에서 다른 채널과 비교해 무엇을,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항상 제기되고 있는 자원문제에 대한 해결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BS가 매우 높은 생산성과 우수한 역량을 가진 콘텐츠 제작사라는 것은 인력의 규모, 운용 채널 수, 방송시간, 예산규모, 외주 투자비율, 수상실적 등 어떤 지표로도 인정된다. 한편 사교육비 절감이나 교육격차 해소효과, 평생교육 효과 등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몫을 감안한다면-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거의 2조원 대에 육박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EBS는 그 어느 방송사, 어느 교육기관보다 실제 크기를 훨씬 능가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본다면 수신료 배분뿐 아니라 애초부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거두고 있는 교육세 역시 일정 부분 EBS에 배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서 EBS는 자원문제와 관련 정부와 학계,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설립 취지에 명기돼 있는 민주적 교육발전 부분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어떻게 해석·정리하고, 어떻게 프로그램화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에 비해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프로그램의 신설·폐지 업무의 기초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의 품질과 수준을 재검토하고, 사회 트렌드 변화 연구를 포함,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여섯째, 지금 EBS가 활용하고 있는 시청자 관련 지표와 다른 지상파 방송사, CJ E&M 등이 활용하고 있는 유사 지표에 대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며, 이후의 재활용, 또는 새로운 지표 설정과 도입 등의 문제를 짚어보아야 한다.

나. 교육부문

EBS 설립목적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경영목표와 사업별 방송교육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교육내용과 교육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과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과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방법의 변화, 모바일 서비스를 기초로 학습환경의 변화는 EBS에 많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EBS도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해 학교교육을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콘텐츠 제작,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및 교재 제작,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개선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첫째, 수능교육사업 등 모든 사업에서 교육 콘텐츠 제작 목표를 달성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고, 교과별로 학습 유형을 강의에 적극 반영해 내신 및 수능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자 요구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와 학교현장 요구에 맞춘 창의·융합형 콘텐츠 및 학교 수업 현장에 활용 가능한 클립형 콘텐츠 등 실용성 높은 콘텐츠를 제작했다.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EBS 출판물 또한 매우 저렴하게 공급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과 수능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학교교육 보완과 수능대비 및 사교육비 절감에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직원과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교육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였다. 특히 교육 관련 전공자와 교사자격증 소지자 대부분을 수능교재기획부에 배치해 EBS 수능강의 연계정책의 원천 콘텐츠인 고교 학습용 교재 개발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 결과 EBS 인터넷 프로그램 및 교재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가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시청자들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과 콘텐츠 이용 고객들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평가체제를 강화했다. 월 1회 개최되는 'EBS 시청자위원회' 외에 'EBS 교사시청자위원회'를 신설해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화했다. 'EBS 수능강의 강사평가'와 주간 사이트 이용률 및 회원 가입 현황 분석, 프로

그럼별 히트 수 분석, 콘텐츠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 EBS 담당 장학사 및 홍보교사 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CSR⁵⁾ 및 EBS 사이트 의견 수렴 등 각 사업별로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그램 및 콘텐츠 평가를 실시했다.

셋째, 모바일 웹 론칭 및 SNS⁶⁾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했다. 수능강의의 경우 모바일과 PC 사용 비율을 5:5 정도로 파악하고, 2016년도 EBS 수능강의에서 수능특강, 수능완성 모바일용으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 4개 과목에서 PC 대비 작은 화면에서 판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바일 강좌를 시범 제작해 서비스 했으며, EBS 입시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의 입시 정보 앱 '입시맘'을 개발해 배포 완료했고, EBS Math⁷⁾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해 'm.ebsmath.co.kr- 모바일에서 펼쳐지는 즐거운 수학 세상!'을 2016년 8월에 오픈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5년 교육과정의 시행에 따른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의 변화, 수시 확대에 의한 수능 응시생의 감소에 따른 수능프로그램 개편 등 EBS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금년부터 시행에 들어 간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편과 2021학년도 수능체제개편에 대한 검토와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2015 교육과정은 기존의 암기식 교육 대신 토론 등 학생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 중심의 교육학습방법과 과정 중심의 학습평가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EBS의 모든 프로그램을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2015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통합으로 신설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등의 과목들에 대한 대책과 수시가 늘어남에 따른 내신 및 학생부종합전형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충분히 확보하고, 대학별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 수 및 수능 응시생 감소에 따라 교육부의 지원은 더욱 감소할 우려가 있는바 자체 수입 확충 등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인터넷 사

5)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기업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에 대해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당하는 경영 기법

6)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로, Facebook과 Twitter 등이 대표적임

7) EBS Math : EBS 수학 교육 사이트 www.ebsmath.co.kr

교육업체들도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EBS 프로그램의 점유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대비가 필요하며, 이들 업체들의 경쟁 심화 등으로 EBSi 이용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스타강사 육성·영입 및 학생들의 학습 패턴 분석, EBSi 활용도 분석 등을 토대로 한 맞춤형 서비스 개선을 통해 EBSi 이용률 증대 노력이 필요하다. 출판사업의 경우도 수능연계교재 축소에 따른 매출이 감소세에 있어 수요자 니즈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교재 내용과 마케팅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모바일 웹 론칭 및 SNS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했으나, 웹 위주의 사용자 이용 행태 및 환경 변화는 움직일 수 없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른 스트리밍 서비스 개선 및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더욱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 등 일부 과목에서 시범 제작해 서비스 한 모바일 강좌를 전 과목으로 확대해 EBS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확충하고, 모바일 환경에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2015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학습의 개별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습자 개인의 학습이력과 과정별 평가 결과 등을 누적 관리할 수 있도록 학습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스마트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직원과 프로그램 참여자 등의 교육전문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교육본부는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방송연구소가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의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송 및 관련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해 사이버 교육의 학습 효과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방송교육 및 이러닝의 품질 관리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끝으로 수능강의사업 등 5개 사업의 방송교육목표를 EBS의 2016년도 경영목표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이 두 번째 경영목표인 '명품 콘텐츠 확대'에 치우쳐 있어 경영목표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경영목표, 추진과제, 편성방향, 편성목표, 편성전략, 사업별 방송교육목표, 사업별 전략목표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다. 기술부문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미디어 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기존의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돼 발전해 오던 서비스가 이제는 융합화로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의 소비 형태도 실시간에서 VOD 시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TV 중심의 단말기에서 모바일 등 다양한 형태의 단말기를 통한 시청형태로 변화하고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시청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BS는 2016년 기술 목표로 차세대 방송 기반 마련, 콘텐츠 경쟁력 강화, IT 서비스 활성화로 잡았다. 기술부문 평가는 크게 기술정책, IT 환경 대응, 방송 시스템 개선으로 구분했다.

1) UHD 본 방송을 준비해야 된다.

미디어 환경은 차세대 방송인 UHD TV 수요의 증가로 인해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시청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BS는 2017년 9월에 예정된 지상파 UHD 방송을 대비해 UHD 시스템 정합 및 H/E 장비 테스트를 진행했고 UH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야외촬영용 UHD ENG 카메라와 렌즈를 도입했으며 UHD 3D CG 제작역량확보를 위해 그래픽 랜더팜 시스템을 증설함으로써 UHD 콘텐츠 제작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UHD 송신지원과 관련해 KBS의 지원 거부로 EBS의 UHD 방송 허가 취득에 차질이 발생한 것은 EBS의 미래와 연관이 되는 문제이므로 KBS의 EBS에 대한 UHD 송신 지원과 UHD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다양한 신규 미디어가 출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서비스 경쟁력의 핵심적인 요소는 고품질 콘텐츠 확보다. EBS는 파일기반 제작시스템을 구축해 기존의 콘텐츠 제작에서 소요되었던 불필요한 시간과 노동을 감소시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했고, UH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야외촬영용 UHD ENG 카메라와 렌즈 도입 및 UHD 3D CG 제작역량 확보를 위

해 그래픽 랜더팜 시스템을 증설함으로써 UHD 콘텐츠 제작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디지털통합사옥 방송 인프라 이전 및 구축 사업에 대규모 예산이 소요돼, 차세대 방송 서비스를 위한 UHD 콘텐츠 제작 장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향이 있으므로 UHD 콘텐츠 제작 기반 구축을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콘텐츠 제작 인력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3)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각종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미디어와 플랫폼의 발전으로 방송을 비롯한 미디어 서비스 형태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에서 소비자의 시청형태는 TV에서 모바일, 방송에서 VOD중심으로 이동했다. EBS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I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EBS PLAY 앱 고도화, 초·중학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클립뱅크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 SNS 계정을 통한 회원 인증 적용, 반응형 웹 서비스 개편을 추진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러나 EBS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타 방송사와 특별히 차별화된 요소가 없다. EBS의 장점은 특화된 콘텐츠이므로 이에 적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브랜드 가치와 서비스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야한다.

4) 방송기술 개발에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BS는 현업과 연계된 실용적 연구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2016년 6월 1일부로 방송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 분장은 교육방송연구소에서 융합기술본부 내에 기술기획부로 변경되었으며 3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다. 제한된 환경에서 현업과 연계된 실용적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과제를 수행했고 타 방송사의 기술연구인력 대비 적은 비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기술 개발 분야가 너무 현업과 연계된 분야에 집중하고 있어 차세대 방송 및 서비스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EBS는 타 지상파 방송과 함께 2017년 9월에 UHD 방송이 예정돼 있으므로 UHD 방송에 대비하고 신규 플랫폼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타 지상파 방송사 수준의 연구인력 비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라. 경영부문

1) 부대사업 수입의 다각화 노력이 절실하다.

부대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출판사업의 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4년도에 1,012억 원에서 2015년도에 936억 원, 2016년도는 882억 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더불어 학령인구 감소, 교재 정가 동결, 연계교재 책 수 축소⁸⁾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출판사업의 수입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특히 최근 국회 및 감사원 감사에서 학습용 교재의 제작수량 및 재고관리 개선을 요구받았다. 감사결과는, 구체적 제작기준과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교재를 일시에 제작·공급하고, 도매서점 재고가 있음에도 서점 간 이체보다는 추가 제작·공급하는 등 교재 과다 제작, 재고관리 소홀로 최근 5년간 반품률이 연12%(연235만부), 예산손실액은 61억 여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외부감사에서 지적한 교재제작·관리 프로세스 개선과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2)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에 따른 재정 절감대책이 필요하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예상되는 비효율적 인력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기업문화상 연장자 배려에 대한 기업문화 때문에 정년연장으로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기존 전산시스템의 노후화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기존시스템으로는 복잡해지는 사업에 대한 재무/세무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전사적 자원 관리시스템(ERP) 도입 및 전산시스템 활성화 등이 필수적으로, 현재 IT 재무의 급격한 발달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다. 특히 통합사옥 이전과 맞물려 업무프로세스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운영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8) 2014년 67책 → 2015년 60책 → 2016년 52책

4) 판매관리비율의 감소를 유도해야한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판매관리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판매관비 비율이 2014년에 11.0%, 2015년에 11.4%, 그리고 2016년에 11.6%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 공영방송사의 판매관리비율보다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통합사옥 건립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 증가 등으로 판매관리비율 증가가 예상되므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판매관리비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CLEAN EBS'의 실천과 신원보호가 강화된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를 제고하였다.

'익명신고시스템'은 신분노출 우려로 인한 기존 신고 시스템 이용률 저조 문제를 개선하고자 3월부터 외부기관(레드휘슬)에 신고시스템을 위탁 운영해 시행 이후로 총 24건이 접수되었으며 23건 처리 완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특히,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CLEAN EBS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규정 개정 및 청렴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2016년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비록 최상급은 아니지만 EBS 종합청렴도가 2015년도 5등급에서 2016년도 3등급으로 상향되었다.



제4장 부문별 평가



1. 방송부문

EBS 설립목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명기돼 있듯이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방송부문 평가의 목적은 EBS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방송을 실천했는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은 방송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도 EBS 방송부문 경영평가에 적용하는 항목과 지표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여기에 2015년도 방송부문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의 개선 노력 및 성과 정도를 추가하게 된다.

<표 1> 방송부문 경영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 방송목표	1. 방송편성목표의 적정성
나. 방송편성과 운영	1.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
	2.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기준
	3. 방송운영의 정시성 정도
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1.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2. 외주제작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3. 프로그램의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라. 시청자 서비스	1.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적정성
마. 방송성과	1.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2.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3.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바.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첫째, ‘방송목표 항목’은 EBS의 설립목적, 경영목표, 그리고 편성목표 등이 상호 부합하는가와 같은 거시적 차원의 조직 운용방향 점검을 목표로 한다. 둘째, ‘방송편성과 운영 항목’은 EBS 편성의 세부적 내용과 관련, 장르별, 시청자 집단

별, 이용자별 등으로 세분한 편성 비율의 적정성,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기준, 방송운행의 정시성 및 표준제작시간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한다. 셋째,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항목'은 프로그램의 내부 제작 및 외주제작과 관련된 업무의 진행 과정과 품질관리 제도를 짚어보는 것으로, 각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예산의 적정성과 집행실적, 기획과 실제 제작과의 유기적 연관성, 내·외부 프로그램 모니터 제도 운용 부분을 짚어본다. 넷째, '시청자 서비스 항목'은 EBS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시청자 및 이용자들의 참여도, 반응과 의견 수렴도 등을 점검한다. 다섯째, '방송성과 항목'은 시청률, 국내외 수상실적, 외부 기관의 프로그램 평가지수,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이용 실적 및 국내외 프로그램 판매실적을 토대로 EBS가 2016년에 거둔 방송부문의 전반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여섯째,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은 2015년도 방송부문 평가 결과 지적된 사항의 개선 노력 및 성과 정도를 평가한다.

가. 방송목표

평가내용

1) 방송편성목표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방송의 편성은 방송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다. 즉 넓은 의미에서 방송사가 설립취지에 근거해 수립·설정된 경영목표를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반영하는 구체적 경로의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방송편성목표 설정의 적정성 여부는 당해 연도에 설정된 편성목표가 경영목표, 나아가 EBS 설립목적과 부합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기준은 1) 편성목표와 경영목표와의 부합 정도 2) 방송편성목표의 반영성과 등이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지표에 주목하고,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는 두 번째 지표에 대해서는 '방송성과' 평가항목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나) 평가내역

EBS는 2016년도 경영목표를 인성·창의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으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2016년도의 세부과제를 6가지로 설정했다. 1) 미래 인재 교육 선도, 2)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 구현, 3) 고품격 콘텐츠 제작, 4) 글로벌 교육한류 선도, 5) 차세대 방송기반 구축, 6) 시청자 서비스 내실화 등이 그것이다.

<표 2> 2016 EBS 경영 및 편성목표

교육방송공사법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구현	민주적 교육발전
경영목표	인성·창의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
편성목표	미래 인재 교육 콘텐츠 강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응

방송편성의 목표는 '미래 인재 교육 콘텐츠 강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응'이라 설정한 바 이는 경영목표에 기초한 것이며,

이 경영목표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교육 보완’과 ‘평생교육의 구현’,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EBS 설립의 기본 취지에 토대를 두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같이 설정한 2016 EBS 방송편성목표는 경영목표와 설립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가결과 및 제언

경영목표와 편성목표 설정작업이 중요한 이유는 명료하게 정리된 질서 있는 목표의 설정과 내부적 공유가 조직운용의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경영목표는 EBS의 설립취지에 기초해 설정하는 조직의 거시적 목표라면, 편성목표는 경영목표를 실천하는 구체적 경로 또는 방안이다. 따라서 경영목표는 편성목표보다 추상수준에서 상위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성·창의 교육을 강화하는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미래 인재 교육 콘텐츠를 강화한다는 편성의 목표는 자연스럽다.

그러나 명품 콘텐츠 확대라는 경영목표와 콘텐츠 경쟁력 제고라는 편성목표 부분, 그리고 스마트 서비스 구현이라는 경영목표와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응이라는 편성목표는 추상수준에서 위와 아래가 바뀐 것이다. 즉 경영목표로는 콘텐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돼야 하고 그 방안으로 편성에서 명품 콘텐츠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다. 또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경영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스마트 서비스를 구현하는 편성, 이렇게 정리돼야 각 목표들이 상하의 추상수준에서 잘 어울리게 된다.

둘째,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구현, 민주적 교육발전’은 EBS의 설립취지이다. 경영·편성 목표 설정작업에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민주적 교육발전’이다. 이에 맞추어 EBS가 설정한 2016년 경영목표는 ‘스마트 서비스 구현’, 편성목표는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응’이다. 2014, 2015년도 이와 유사하다. 질문은 그렇다면 ‘민주적 교육발전’과 ‘스마트 서비스 구현’이 어떻게 상호 연결 되는가이다. 사실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설립취지와 매끄럽게 연결되는 경영·편성목표 설정작업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고 분명하게 해석·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경영·편성목표의 내용적 일관성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 부합여부일 것이다. 사실 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든 ‘목표’는 대체로 이상적 단계의 구호를 담아내는 추상적 단어나열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실제

로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목표는 그러한 수준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불편하지만 진실에 가까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2014년과 2015년 경영 및 방송편성목표를 2016년의 그것과 비교해 보자.

<표 3> 연도별 경영 및 편성목표

2014년	경영목표	창의교육 강화	고품격 콘텐츠 확대	미래형 서비스 구현
	편성목표	창의인성 콘텐츠 강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 및 교육의제 선도	신성장 동력 콘텐츠 개발
2015년	경영목표	창의인성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
	편성목표	공영성·공익성 강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	매체 환경 변화 적극 대응
2016년	경영목표	인성·창의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
	편성목표	미래 인재 교육 콘텐츠 강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응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6년의 경영·편성목표에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차이가 있다면 사용한 표현과 용어가 미세하게 다른 것, 그리고 목표들의 위치 또는 배치가 바뀐 정도이다. 말할 나위 없이 EBS 경영·편성목표가 매년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목표는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추구돼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구호들이 위치만 달리해 계속 재활용 되고 있는 것은, 경영·편성의 목표들이 대체로 형식적인 수준에서 논의될 뿐, 내부 구성원들이 진지하게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은 아닌지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2016년 하반기부터 EBS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전체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시작했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한 가지 지적할 것은 경영목표, 편성목표 설정에 있어 EBS의 세 가지 설립취지와 일대일로 조용하는 구도를 세우고, 그에 반강제적으로 맞추려는 도식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인성·창의 교육의 내용을 담아내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품질을 고도화하는 것, 그리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스마트한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EBS 설립취지와 중흥으로 연결된다는 유연한 해석의 바탕에서 경영과 편성의 목표를 설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방송편성과 운영

평가내용

방송 관련 업무 영역 중 가장 핵심적인 분야 중 하나는 편성부분이다. 방송편성이란 일반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 명칭, 성격, 분량, 배치 같은 것을 계획, 집행하는 행위부터 프로그램의 시간별 운행까지를 포괄한다. 2016년 EBS의 방송편성과 운영부분 평가에서는 첫째,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 둘째,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기준, 그리고 방송 운행의 정시성 정도를 따져보게 된다.

1)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방송편성과 운영 평가항목의 첫 번째 평가지표는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으로 적용되는 평가기준은 1) 법정 편성비율 준수 정도 2) 채널 특성화 전략 3) 시청 타깃별 편성의 균형성 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편성 5) 민주교육 프로그램의 편성 등이다. EBS는 시청자·이용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채널별, 플랫폼 별로 특성화된 전문편성을 시행하고 있다. 아래의 표는 각 채널과 플랫폼에 따라 차별화된 편성의 기본틀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각 채널별 주요편성 구분

구분	주요 편성 내용
EBS 1TV	○ 유아어린이 교육 ○ 청소년 인성·진로교육 ○ 성인 평생교육
EBS 2TV	○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보완 ○ 외국어 학습 콘텐츠
EBS 플러스1	○ 대입 사교육비 경감 콘텐츠
EBS 플러스2	○ 초·중학 사교육비 경감 콘텐츠 ○ 직업능력 향상 콘텐츠
EBS English	○ 영어교육
EBS FM	○ 독서교육 ○ 외국어교육

상이한 시청자/이용자 집단이 품고 있는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 편성을 시행하는 것은 방송사가 가진 사회적 책무의 하나이며 동시에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원칙에 맞추어 여기에서는 EBS가 적절하고 균형 잡힌 편성을 시행하고 있는가, 또 이에 부합하는 방송·콘텐츠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나) 평가내역

① 법정 편성비율 준수

현재 지상파 방송, 전문편성 등과 관련한 방송법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는 법정 편성비율을 EBS 1TV의 경우, 국내제작(60% 이상) / 국내제작 영화(25% 이상)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8% 이상) / 국내제작 대중음악 (60%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EBS 라디오와 다른 TV 채널의 경우 아래의 표와 같은 의무 편성비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표 5> 채널 법정 편성비율 준수 현황

점검항목	대상 채널	기준	법정 편성비율	실제 반영 비율	
외주제작 프로그램	EBS 1TV	전체 방송시간	20% 이상	봄 편성	29.0%
				가을편성	27.9%
비상업적 공익광고	EBS 1TV	전체 방송시간	0.2% 이상	준수	
	EBS FM,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	전체 방송시간	0.1% 이상	준수	
국내제작 프로그램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	전체 방송시간	40% 이상	준수	
신규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EBS 1TV	전체 방송시간	0.3% 이상	준수	

※ EBS 2TV는 시범서비스 기간으로 법정 편성비율 없음

위의 표 실제 반영비율 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BS는 2016년 모든 채널과 플랫폼에서 법정 편성 비율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규정을 훨씬 상회하는 편성을 시행했다. 특히 1TV의 경우 국내제작 프로그램은 87% 수준을 (규정: 60%), 8% 규정비율인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편성시간대의 가중치를 감안할 경우 100%를 넘는 편성실적을 보였다.

② 채널 특성화 전략

방송사의 채널 특성화 전략, 즉 일종의 전문편성 전략은 다양한 계층의 시청자/사용자들이 품고 있는 서로 다른 요구와 필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취하는 편성방침 중 하나이다. 아래의 표는 2016년 EBS가 설정한 각 채널별 정체성과 차별화된 편성 전략을 보여준다.

<표 6> 지상파 채널의 정체성과 특성화 전략

매체	구분	내용
EBS 1TV	채널 정체성	○ 유아어린이 창의인성 교육 채널 및 평생 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 유아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채널 ○ 교육 다큐멘터리 채널
	채널 특성화 전략	○ EBS 위상 제고를 위한 대표 콘텐츠 개발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명품 대기획 시리즈 기획 ○ 생애 주기별 콘텐츠 편성을 통한 공익성 강화 ○ N스크린, UHD 등 방송 환경 변화 대비 콘텐츠 개발 ○ 유아어린이 창의인성 콘텐츠 기획 개발
EBS 2TV	채널 정체성	○ 지역별·소득별 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 채널
	채널 포지셔닝	○ 실용적 지식교육 콘텐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채널 특성화 전략	○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 개발 - 초등 교과 융합형 프로그램 신규 편성 확대 - 유아어린이 대상 기초 영어 교육 프로그램 신규 편성 - 성인 대상 외국어 프로그램 개발 - 교육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 콘텐츠 기획 ○ 채널·프로그램 인지도 확대를 위한 편성 및 시간대 고정 - EBS 2TV 대표 프로그램 편성 확대 - 주중·주말 시간대 고정을 통해 인지도 확대
EBS FM	채널 정체성	○ 외국어 및 독서교육 중심 FM 방송
	채널 포지셔닝	○ 외국어 학습 및 독서진흥 라디오 채널
	채널 특성화 전략	○ 시간대별 Zone 개념 편성 전략(영어·제2외국어 / 교양·다문화 / 문화·책·음악·낭독 / 부모·교사교육) ○ 수준·대상·대상별 다양한 외국어 콘텐츠 편성 ○ 음악과 책이 어우러진 감성 중심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 차별화

<표 7> PP채널의 정체성과 특성화 전략

매체	구분	내용
EBS 플러스1	채널 정체성	○대학수능 및 고교 학습 채널
	채널 포지셔닝	○고교 대상 학습 및 정보 채널(무료)
	채널 특성화 전략	○수능 및 내신 대비 전 교과 수준별 편성 ○입시, 논술 등 각종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교과 학습용 클립형 콘텐츠를 통한 학습 효율성 제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강화
EBS 플러스2	채널 정체성	○초·중 공교육 보완 및 직업 교육 채널
	채널 포지셔닝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하는 고품질 학습 프로그램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보, 시험대비, 실무 콘텐츠
	채널 특성화 전략	○초·중학생 및 성인 생활시간대에 맞춘 블록 편성 강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공교육 보완 콘텐츠 강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격 맞춤형 직업교육 콘텐츠 제작 ○학생 및 교사, 학부모 등 교육현장의 니즈를 반영한 콘텐츠 강화
EBS English	채널 정체성	○영어교육 전문 채널
	채널 포지셔닝	○고품질 영어 학습 콘텐츠 제공
	채널 특성화 전략	○학교 커리큘럼 반영 및 학교 현장 활용 가능한 융합 교과형 프로그램 강화(클립형 콘텐츠 확대) ○온라인 방송을 활용한 양방향 라이브 클래스 강화

정리하면 유아어린이 교육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채널로서의 1TV, 지역별·소
특별 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 채널로서의 2TV, 외국어 학습 및 독서진흥 라디오
채널로서의 FM, 대학수능 및 고교 학습 채널인 EBS 플러스1, 초·중 공교육 보완
및 직업 교육 채널로서의 EBS 플러스2, 영어교육 전문 채널인 EBS English 등 각
채널과 플랫폼은 비교적 명료하게 특성화·차별화된 성격과 내용의 편성을 보여주
고 있다.

③ 시청 타깃별 편성의 균형성

여기에서 말하는 ‘시청 타깃’이란 우선 소수계층 시청자 집단을 (예: 다문화
가정, 노년세대, 저소득 계층, 장애인 등) 뜻하며 다음은 각 채널과 플랫폼, 프로
그램별로 목표를 둔 주 시청층을 (예: 유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일반) 의
미한다.

소수계층 대상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2015년 7.5%였다. 2016년은 이보다 약간

증가해 전체 방송시간으로는 38,000여 시간, 비율로는 8.2%이며 편성된 주요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표 8> 소수계층 대상 프로그램

구분	주요 프로그램
다문화 가정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다문화 고부열전>,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K-POP으로 배우는 다문화 한국어>, <한국어 쉬워요>, <다문화 '사랑'> 등
저소득층	<나눔 070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등
노년세대	<장수의 비밀>, <낭랑108세>, <성인 문해교육 프로젝트 공부하기 좋은 날>, <즐거운 인생, 씨시봉>, <건강한 아침>, <성공! 인생 후반전> 등
장애인	<희망풍경>

한편 장애인들의 시청접근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2016년에도 역시 아래의 표와 같이 정부가 정한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자막, 수화, 화면해설 방송을 실시했다. 장애인 관련 서비스는 또 방송 프로그램에서뿐 아니라 EBS의 해당 웹사이트에서도 제공했다.

<표 9> 장애인들의 시청접근권 보장을 위한 방송

구분	2015년		2016년		2016년 정부 목표(%)
	방송시간(분)	비율(%)	방송시간(분)	비율(%)	
자막방송	429,710	100%	439,115	100%	100%
수화방송	25,630	6.0%	26,695	6.1%	5%
화면해설방송	51,015	11.1%	56,620	12.2%	10%

시청 타깃별 편성의 균형성 부분에서 두 번째로 짚어보는 것은 EBS의 각 프로그램이 소구하고 있는 주 시청 대상 또는 방송내용별로 구분해 겨냥하고 있는 시청자 층에 대한 편성이다. 1TV부터 EBS English까지 전체 6개의 채널 편성표를 종합해볼 때, 유아·어린이 집단이나 성인·일반 시청자 집단, 또는 초등학교 교육과 고교교육, 그리고 평생교육의 경우가 가장 높은 편성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중학교교육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편성비율과 시간이 배치돼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채널과 프로그램이 주목하고 있

는 시청층 대상의 편성은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평생교육과 민주교육 프로그램의 편성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민주교육 프로그램 관련 평가지표는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이라는 EBS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편성에서 거둔 구체적 실적을 따져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평생교육법이 정의하고 있는 ‘평생교육’이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지칭한다. 더 넓게 말하면 평생교육은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해 평생에 걸쳐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교육을 형식과 틀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에 비추어보면 TV와 라디오를 망라한 EBS 전 채널에서 편성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민주교육 프로그램이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복잡하고 다원적인 각종 문제에 대해 시청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인식을 증진시킴으로서, 건강하고 합리적인 국가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콘텐츠를 지칭한다. 이런 바탕에서 EBS는 교육정책과 교육현실에 대한 진단과 대안의 제시, 인문학적 소양의 저변 확대, 시민의식의 함양, 정치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 증진, 통일과 같은 한국사회의 거시적 과제 등등을 다룬 프로그램을 편성·방송하고 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2016년의 대표적인 것을 들자면, <EBS 다큐 프라임>, <명義>, <세계테마기행>, <한국기행>, <지식채널>, <역사채널>, <달라졌어요>, <시대 공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등이고, 민주교육 프로그램은 <EBS 교육대토론>, <투표>, <민주주의>, <정치의 재발견> 같은 다큐멘터리, <인문학 특강>, <역사특강>, <통일의 길>, <EBS 초대석>과 같은 일일, 주간, 또는 특별 프로그램 등이다.

2)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 기준

가) 평가기준

이 평가지표는 프로그램의 신설/폐지와 같은 편성개편과 관련해 EBS가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과정이 경영·편성의 목표와 설립목적, 각 채널별 정체성 등의 차원에서 적절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작업이다. 교육적 가치, 공익-공공성, 트렌드의 반영, 프로그램의 경쟁력,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EBS 가치의 구현 등과 같은 기준을 적절하게 수립하고 그에 입각해 프로그램 신설과 폐지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EBS로서는 물론 제작 담당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나) 평가내역

2016년 프로그램 신설의 경우 적용한 기준은 1) 교육적 가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창의·인성 교육, 공교육 보완, 직업/진로 교육의 내용 변화반영 등, 2) 공익·공공성: 교육정책 의제 설정, 사회통합 콘텐츠, 다문화 등 소외계층 대상, 교육복지 확대, 사교육비 절감,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3) 트렌드 반영: 모바일 등 방통융합 환경, 소비자 니즈·기호 변화, 사회 트렌드·이슈 반영, 새로운 포맷 개발, 시청자 참여 확대, 4K와 UHD 등 기술 혁신 내용의 반영 등이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보다 구체적인 지표로 환산, 평가하기 위해 시청률과 청취율, EPEI⁹⁾와 CI¹⁰⁾ 지수, 그리고 편성목표 부합성 여부와 채널 정체성과의 연관성 정도 등을 적용했다(표 10 참조). 한편 신설과 폐지 작업과 관련 제작 및 편성부서 간의 합동 간담회, 편성자문위원회를 가동함은 물론 프로그램 시사회 등을 거쳐 보다 세밀한 프로그램 평가작업을 거쳤다. 또 두 차례에 걸쳐 사내·외 기획안 공모행사를 진행, 프로그램 신설의 보조 과정으로 활용한 바 있다.

한편 EBS는 신설과 폐지 작업에 필수적인 프로그램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프로그램 및 채널 정책에 대한 연구를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국내 주요 방송사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사 프로그램 1천여 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9) EPEI : EBS Program Evaluation Index, EBS 프로그램 평가지수

10) CI : Children's Index, EBS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 평가지수

<표 10>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의 주요 내용 및 적용방식

구분	기준 주요 내용	적용 방식
시청률 및 청취율	○TNmS ¹¹⁾ , 닐슨코리아 등 시청률 조사기관을 통한 시청률 조사	○시간대별, 연령별, 프로그램별 시청률 분석에 따라 주요 시청층 및 시청 흐름 분석 ○분석 결과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EPEI (EBS Program Evaluation Index)	○EBS 프로그램 평가 지수, EBS전체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수용자 평가	○조사 대상 프로그램 선정(총 42개) ○전국 지역별, 성별, 연령별 분포비에 비례한 표본 추출을 통한 인터넷 설문 조사 실시 ○1,075명의 패널을 1주일 동안 조사 ○분석 결과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CI (Children Index)	○EBS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품질에 대한 수용자(어린이 및 부모)조사	○조사 대상 프로그램 선정(자사 16개, 타사 13개) ○패널 1,560명(부모 및 자녀)을 대상으로 면대면 인터뷰 조사 실시 ○분석 결과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편성목표	○2016년 편성목표인 '콘텐츠 경쟁력 제고', '미래 인재 교육 콘텐츠 강화',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응'과의 부합 정도 평가	○제작 및 편성부서 합동 간담회, 프로그램 시사회, 편성자문위원회, 각종 편성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사내외 기획안 공모(연간 2회)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채널 정체성	○교육전문 공영방송사로서 EBS의 채널 정체성과의 부합 정도 평가	○제작 및 편성부서 합동 간담회, 프로그램 시사회, 각종 편성조사를 통한 프로그램 평가 ○사내외 기획안 공모(연간 2회)를 통한 프로그램 기획개발 ○개편 시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 기준으로 활용

EBS는 이처럼 다양한 평가 기준과 연구 결과를 프로그램 신설 및 폐지의 기준으로 활용, 설립목적(학교교육 보완, 국민의 평생교육,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과 방송편성목표(2016년 : '콘텐츠 경쟁력 제고', '미래 인재 교육 콘텐츠 강화',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응')를 구현했으며, 이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었다.

11) TNmS : 전국 멀티미디어 통합 조사, Total National Multimedia Statistics의 약자로,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시청률 조사 회사로 지상파, 케이블 TV, 스카이라이프, DMB 시청률 조사를 시행한다.

3) 방송운행의 정시성 정도

가) 평가기준

프로그램 편성표는 시청자와의 기본적 약속이며, 편성표의 정시 운행은 방송사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지연되는 이유는 생방송을 포함한 제작 프로그램의 표준 제작시간 위반, 대응편성을 위한 고의적 지연, 프로그램 고지방송의 과다 편성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이 세 가지 기준에 근거해 EBS의 방송 프로그램이 정해진 편성표에 따라 제대로 운행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내역

2016년 EBS 전체 7개 채널의 정규 프로그램 105,583편 중 방송이 10분 이상 늦게 시작된 프로그램은 한 편도 없어 100%의 정시 운행률을 달성했다. 한편 각 프로그램별로 표준 제작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결과, 2016 표준 제작시간의 준수에 관한 한 (25분 이상의 경우 허용범위는 1분 내외 / 20분 이하 프로그램은 30초 내외), 초과 프로그램이 편수로는 전체 16,158편 중 262편, 비율로는 1.6%로 2015년의 3%보다 절반 정도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대응편성을 위한 고의적 지연이라든가, 프로그램 고지방송의 과다편성 등은 2016년의 경우 해당 사항이 전혀 없었다.

평가결과 및 제언

2016년 EBS의 방송편성과 운영부분 평가에서 첫째, 방송편성비율의 적정성, 둘째,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기준, 그리고 방송 운영의 정시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방송편성비율 적정성 부분의 평가지표 중 법정 편성비율 준수 정도와 방송 운영의 정시성 정도¹²⁾는 방송사의 기본 규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외적인 경우 또는 고의가 아니라면 지적될 만한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실제로도 2016년에 여기에서 특별히 유의해야할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시청 타깃별 편성의 균형성 역시 애초부터 문제 삼을 부분이 적은 지표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느 방송사든 생존을 위해 당연히 취하는 전략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평생교육과 민주교육 프로그램의 편성 역시 프로그램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어느 쪽으로도 지정할 수 있고, 그에 맞는 성과목표이나 수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문제될 것은 없는 지표이다. 이 부분 역시 2016년 EBS의 방송편성에서 문제될 부분은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본다면 방송편성과 운영항목의 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것은 6개에 이르는 EBS의 TV 채널별 특성화 전략, 그리고 프로그램의 신설 및 폐지기준 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채널별 특성화 전략 자체에 어떤 큰 문제가 엿보이지는 않는다. TV의 경우 1TV와 2TV를 제외하면 나머지 4개 채널은 사실상 문자 그대로 학습채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청 대상을 달리한다해도 학습의 연속성 차원에서 일정 부분의 내용 중첩은 피할 수 없다.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편성 특성화 전략과 관련한 두 개념, 즉 채널의 정체성과 포지셔닝이 다소 혼란스럽게 기술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2TV의 경우, 정체성은 ‘지역별·소득별 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 채널’로 규정되면서 쉽게 이해되지만, ‘실용적 지식교육 콘텐츠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으로 서술된 포지셔닝은

12) 세부 기준 : 1) 표준제작시간 위반 정도. 2) 대응편성을 위한 고의적 지연 정도. 3) 프로그램 고지방송의 과다 편성

포지셔닝이라기보다 채널이 추구하는 목표, 또는 시청자들이 얻는 이익을 말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체성이 브랜드의 속성이나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라면 포지셔닝은 브랜드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된다. 이렇게 본다면 2TV의 정체성은 '교육복지 채널', 포지셔닝은 '실용지식 채널/사교육비 경감 채널'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설명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1TV의 경우, 정체성을 '유아·어린이 창의·인성 교육 채널 및 평생교육 채널', 포지셔닝은 '유아·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채널/교육 다큐멘터리 채널'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러나 1TV가 EBS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해 너무나 평이하고 거의 동어반복형 서술이다. 같은 설명일지라도 좀 더 깊이 있는 개념을 도출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2TV의 편성에 대해 좀 더 언급하자면, 학교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편성의 경우 반드시 중첩되는 영역이 발생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설령 다른 채널에서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아직 신규 채널인 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 등이 작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재방률이 높아, 중복 편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했듯이 채널 정체성과 포지셔닝 부분에서 아직 명료한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물론 정체성이나 포지셔닝의 설정이 편성 특성화 전략에서 핵심적 사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채널 특성화와 관련된 설명방식과 설명내용은 당해 채널에 대해 EBS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명확하고 애매한 생각이나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명료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한편 채널 정체성 문제와 관련 EBS는 2016년 하반기에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함께 편성전략연구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지식채널'(1TV), '창의채널'(2TV), '학습채널'(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 EBSu)의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널 위계 및 보완 체제를 마련한 바, 2017년에는 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도록 진력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설립취지와 연관돼있는 민주교육 프로그램의 편성에 대해, 무엇이 민주교육인가, 민주교육을 어떻게 정의하고, 그것을 어떻게 방송 프로그램화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예를 들어 2016 민주교

육 프로그램 편성 리스트에 포함돼 있는 <EBS 교육 대토론>, <THE VOTE(투표)>, <민주주의 특집 다큐멘터리-정치외교의 재발견>, <2016 서울인문포럼>, <EBS 인문학 특강>, <EBS 초대석>, <통일의 길>, <통일 미리보기>, <민주주의 특강>, <세상의 모든 법칙 Talk>, <문화재 人 사이드> 등의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 제출이 가능한 목록이다. 다시 말해 평생교육, 민주교육과 관련해 지금과 같은 평가 지표가 적절한가부터 시작해, 평생교육과 민주교육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또 편성차원에서 재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EBS의 설립 취지, 그리고 경영·편성목표 설정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내부 논의가 전개되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 프로그램의 신설·폐지 문제와 관련해 EBS가 적용하는 다양한 기준을 문제 삼기는 어렵고 또 이외의 어떤 다른 대안을 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이 작업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내부 제작진들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의 평가가 지적하기에 조심스럽다. 주지하다시피 프로그램의 신설과 폐지는 봄·가을의 6개월 단위 정기개편 이외에도 다채널·다매체 시대에 따른 시청 행태 변화 및 콘텐츠 소비 행태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수시로 발생하는 사안이다. 정기적이든 수시든 프로그램의 신설과 폐지 작업을 성과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참신한 소재와 포맷의 개발, 상시적인 프로그램 기획과 연구작업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편성개편에 따른 제작 일정 조율을 위해 당해 제작부서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 강조할 것은 첫째, 신설·폐지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 프로그램 및 채널 정책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다 충실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사회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프로그램과 편성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EBS 내부자료에 따르면 편성 담당 부서에서는 2016년 국내 주요 방송사는 물론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사 프로그램 1천여 건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를 실시했다(조사 대상 :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 27개 채널). 이전 연도의 경영평가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이러한 참고자료 조사 및 분석 작업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신설·폐지 업무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방대하다. 그러나 양적 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모니터링의 내용과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실제 프로그램 신설·폐지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기대한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필요하다면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 트렌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세대별 시·청취자, 콘텐츠 이용자 집단의 취향과 선호도, 미디어 이용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가능한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EBS의 프로그램과 편성에 단기적, 또는 중·장기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명제에서 출발하는 과제이다. 그러나 이를 EBS가 독자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학계의 전문가들이나 관련 연구소, 또 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문화 트렌드 연구성과나 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수합, 이를 재정리해 내부적으로 공람함으로써 프로그램과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

평가내용

방송사가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업무영역을 든다면 하나는 프로그램의 편성, 또 하나는 프로그램의 제작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제작과 운영은 이 중에서 제작과 관련, 1.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정도, 2. 외주제작 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여부, 3. 프로그램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등의 기준으로 2016년 EBS를 평가하는 것이다.

1)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의 효율성

가) 평가기준

방송사로서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프로그램의 제작예산을 가능한 한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맞추어 적절하게 예산을 배치,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요긴한 과제이다. 이에 더해 한정된 EBS의 재원을 감안한다면 제작비 협찬 역시 중요한 비용 조달의 창구로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점에서 1) 제작 투자비의 적정성, 2) 표준제작비 집행의 적정성, 3) 제작비 협찬 정도의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작예산 관리와 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내역

먼저 제작 투자비의 적정성 부분에서, 2016년도 EBS는 전체 매출액 중 55%에 이르는 비율을 프로그램의 제작에 투자했다. 이는 2015년 대비 비율로는 약 1%, 액수로는 1억 6,000만 원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두 번째, 표준 제작비 집행의 적정성 부분은 EBS가 각종 프로그램의 장르별로 (예: 다큐,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구성 프로그램, 뉴스 등) 설정한 표준 제작비와 실제 집행 제작비의 비율을 보는 것으로 예산추정의 정확성과 투입예산의 적절성을 동시에 짚는 것이다. 2016년의 표준 제작비 집행비율의 경우, 9개 프로그

램 장르 중 80%를 기록한 SB를 제외하면, 100% 이상이 3개, 95% 이상이 2개, 나머지 3개는 90%의 비율을 기록, 전체 평균 제작비 집행률이 사전 설정 예산 대비 99%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적절한 수준을 유지했다.

<표 11> 2016년 EBS 제작비 집행액과 매출액(단위:원)

제작비 집행액		매출액		집행액/매출액
EBS TV	40,516,716,759	수신료수입	17,712,404,259	
EBS FM	3,626,582,013	방송발전기금수입	27,321,652,900	
EBS 플러스2	6,105,240,506	방송광고수입	37,009,757,000	
		제작협찬수입	5,054,800,000	
		프로그램공급수입	4,712,347,700	
계	50,248,539,278	계	91,810,961,859	54.73%

※ 집행액 : 종합정보시스템의 표준제작비집행현황(방송일자기준 2016.01.01.~2016.12.31.)

※ 매출액 : 2016년도 예산 대 결산 손익계산서

세 번째, 제작비 협찬 부분에서 EBS는 2016년 횡수로는 총 122건, 액수로는 목표액을 크게 상회하는 110억 원 정도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의 대표적인 협찬 프로그램으로는 <장학퀴즈>, <세계테마기행>, <극한직업>, <지식 채널 e>와 <EBS 다큐 프라임> 프로그램 중 일부, <문화유산 코리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등등이었다.

2) 외주제작 정책 및 제도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외주제작은 콘텐츠 품질 고도화의 방편으로 지난 1991년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 제작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그 효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방송사 내부적으로는 직접비 부담을 절감하면서 운영방식에 따라서는 수준과 내용을 갖춘 양질의 콘텐츠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제도이다. 외주제작이 의무화 된 지금 방송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주 제작의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이며 이에 대해 2016년 경영평가에서는 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외주비율 준수 정도, 2) 외주제작 비율의 적정성, 3) 양질의 외주제

작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위한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 4) 외주제작사의 EBS 교육이념에 대한 이해 및 제작 시 반영 정도에 대한 평가 시스템 운영 정도, 5) 외주제작사의 방송물이 EBS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내부 평가, 심의 및 반영 정도 등 5가지를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는 간명한 논의를 위해 크게 1) 외주비율 준수 및 비율의 적정성 부분과 2) 외주제작 관리 시스템의 두 지표로 묶어 기술하고자 한다.

나) 평가내역

① 외주비율 준수 정도 및 적정성

EBS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외주제작 비율은 20% 이상이다. 2016년의 경우 봄 편성 시 29%, 가을 편성 시 28%에 달해, 고시비율을 훨씬 상회하는 실적을 이룩했다. 한편 외주제작 비율의 적정성 부분은 기본적으로 방송 시간 비율을 적용하지만, 외주 프로그램 제작에 어느 만큼의 제작비를 투입하는가가 더욱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한 투자의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2016년 EBS의 외주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전체 대비 29% 정도였는데 비해, 외주제작에는 전체 제작비 예산 대비 40% 넘게 투입했다. 이 같은 편성비율과 예산 투자비율은 프로그램의 품질을 유지·제고하는데 큰 의미를 가진 수치이다.

③ 외주제작 관리 시스템

외주제작을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은 크게 사전-중간-사후의 단계로 나누어, 1) 외주제작사 제작진 사전교육 및 프로그램 기획부분, 2) 제작관리 및 검수 부분, 3) 평가 이후 사후 제작사 재계약 부분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2016년 EBS는 외주제작사 프로그램 제작 매뉴얼을 작성, 배포했으며, 선정된 외주제작사 전 제작진을 대상으로 공사의 제작지침, 심의지침, 그리고 교육방송의 강령, 해당 편성에서의 제작 주안점, 제작 가이드라인 및 기술표준 준수 사항, 문자그래픽 관련 표준, 홍보자료 작성 등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그리고 외주제작진과 EBS 내부의 PD가 공동으로 매회 각 프로그램별 세부 기획작업을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아이템 검토 및 확정, 문제점 점검, 아이템별 강조점 및 강화 방안 등의 세부사항을 점검한 바 있다.

둘째, 중간단계의 외주제작 관리작업은 프로그램의 실제 제작 과정을 관리하는 부분과 최종 작업을 검수하는 부분으로 구성, 시행되었다.

<표 12> 외주제작 관리 순서

순서	업무	주요내용
1	편별 세부구성안 공동조정 (내부 PD, 외주제작사 제작진)	○ 회별 아이템을 확정된 후 현지 사전 답사 결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부 촬영 방안, 구체적인 내용 전개, 촬영 외 필요한 구성요소(CG, 영상자료 등)를 공동 설계
2	제작 진행 사항 조정	○ 세부 구성 확정 후, 제작 진행에 따른 주요 조정 사항 및 인허가 사항 등 처리 ○ 관계 기관 공문 발송, 촬영 허가 관련 사항 진행(내부 PD의 주관 하에 진행), 내부 스태프들과의 업무 조율(스튜디오 제작 시 회의 주관 등)
3	가편집 관리 및 조정	○ 촬영 직후 촬영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단계에서 편집 구성안 확정 및 편집 진행, 촬영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촬영 진행 여부 등 결정
4	최종 대본 검토	○ 내레이션 톤, 프로그램 내용, 자막, 표준어 사용, 성우 결정, 그래픽 내용 등 최종 프로그램 완성에 필요한 사항 결정
5	완성본 시사	○ 최종 완성본을 기획자 및 시청자의 입장에서 시사, 방송 적합성, 기획의도 구현 여부, 완성도 등을 최종 검토함
6	종합 시사	○ 편성기획 관계자, 방송 기술 관계자, 동료 PD 등이 참여하는 종합시사를 실시해 다양한 시사 의견을 듣고, 시사 결과를 반영해 해당 편 수정 또는 다음 기획에 반영함 (월 1회 정도 시행)

한편 개별 외주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 작업 뿐 아니라, 편성 개편 이후 중간 정도의 시점에 신규 및 주요 외주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반응, 시청률 및 내부 평가 등을 토대로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질 제고를 위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외주 제작사 스스로 작성한 분석 보고서와 관리 담당 프로듀서의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외주관리 기획 간부급들이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가지고 이후의 개선점과 발전 방향 도출작업도 병행했다.

세 번째 외주제작 관리 사후 단계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작업을 시행했고, 여기에서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양적·질적 평가 (기획 및 내용, 구성의 적절성, EBS 채널 정체성 부합정도, 흥미유발도, 기술적 완성도 기준평점 적용), 외

주제작 PD의 제작능력 등 질적 평가, 그리고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 관리능력 등에 대한 질적 평가를 진행했다. 또 콘텐츠기획센터의 간부들과 프로그램 담당자들이 외주제작 프로그램 종합 시사회를 개최했고, 각각의 외주 프로그램과 EBS 설립 목적, 정체성 등과의 부합에 대한 평가작업도 함께 진행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친 외주 프로그램 평가결과는 DB화, 현재 누적관리하고 있는 중이며, 여기에 내부의 심의실 평가, 시청률, 그리고 외주 프로그램 기획 CP들의 종합평가, 수상실적 및 주의·경고 건수, 협찬유치 실적 등을 추가, 향후 외주제작사 선발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3) 프로그램의 내부 평가 및 심의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프로그램에 대한 객관적 평가작업의 중요성은 오류의 발견·교정이나 프로그램의 품질향상이라는 기본 취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이에 비추어 내부적으로 어떤 평가 또는 심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평가 제도의 운영 현황과 결과를 기준으로 이 부분을 짚어본다.

나) 평가내역

프로그램 평가 및 심의제도로 EBS는 내부 위원 및 제작부서의 프로그램 심의와 외부의 시청자 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다. 평가 및 심의 대상 콘텐츠는 지상파 1TV와 2TV, 라디오, 그리고 EBSu 채널 등 4개 채널의 프로그램으로, 신규 및 주요 프로그램은 심의위원들이 업무를 분담 진행하고 있으며, 재활용 프로그램, 교과 등 학습과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은 해당 제작부서의 부장 또는 CP에게 심의를 위임하고 있다.

심의위원은 각자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 심의업무 외에도 신규 편성 프로그램, 부서 위임 심의 프로그램 등을 '합동심의평가회의'를 통해 심의·평가함으로써 부서 위임 심의를 보완하고 질 높은 콘텐츠 제작에 기여 및 방송심의 규정을 준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리뷰회의 및 심의위원 워크숍 등을 통해 심의위원들 간의 심의 수준을 공유하고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류해 효과적이고

도 효율적인 심의가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내부의 프로그램 평가 및 심의 실적을 정리하면 총 심의 대상 프로그램 39,087편 중 부서 위임 심의는 36,730편(94%), 심의위원은 총 2,349편을 (6%) 심의, 자막, 간접광고, 내용 및 사실관계 오류 등으로 1,570건의 수정을 요청, 방송 전 수정을 완료했다. 그리고 심의 결과는 월 단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외부의 시청자 모니터단은 2016년 3월부터 전문 모니터요원제(13-20명)를 폐지하고 자원봉사형 시청자모니터단(100명 내외)으로 개편했다. 전문요원 대신 시청자들로 구성된 프로그램 모니터단으로 개편한 이유는 시청자의 실제 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일반 시청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었다. 시청자모니터단은 2016년 3월부터 총 2,941편을 모니터링했고, 그 중 중복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핵심적인 모니터 내용을 선별해 1,164편을 제작진에게 반영 요청했으며, 1,164편 모두 반영되었다.

평가결과 및 제언

제작예산 관리 및 집행 부분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율이 2014년 56%, 2015년 53%, 2016년 55% 수준으로 큰 차이 없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고, 표준 제작비 집행비율 역시 연도별로 유의할 만한 차이는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방송사로서 매출액 대비 어느 정도의 투자비율이 적절한 것인지, 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짚어봐야겠지만, 일단 2016년의 비율은 최근 2년간의 그것과 유사한 수치를 보인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 EBS의 전체 매출이 2015년 2,700억 원에서 2016년 2,613억 원으로 약 87억 원 정도(3.2%)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제작비 투자액이 증가한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둘째, 프로그램 장르별로 표준 제작비를 설정하는 것은 제작비의 초과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제작비 예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16년의 표준 제작비 집행률이 2014, 2015년에 이어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비록 증가한 액수로는 1억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정확한 예산측정과 집행,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EBS의 경우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협찬은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특히 2016년의 경우, 2015년 대비 25억 원 이상 늘어난 110억여 원의 실적을 올린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과이다. 그러나 협찬과 관련해 상시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협찬을 통해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공사의 정체성과 편성전략에 부합하는가에 유념하고 있는가이다. 여기서 이를 다시 또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아닐 것 같다.

한편, 제작비 예산과 관련해 반드시 언급치 않을 수 없는 것은 EBS의 자원문제이다. 이 문제를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파악하기 위해 EBS가 송출하는 총 방송 시간과 전체 제작인력 규모를 KBS와 비교해보면, TV의 경우, 6개의 EBS 전체 채널의 방송시간은 1일 121시간, 8개의 KBS 전체 방송시간은 1일 189시간이다.

그리고 방송 제작 PD의 경우, EBS는 138명인데 KBS는 891명이다¹³⁾. 물론 프

로그그램의 재방률이나 장르의 다양성, 지역 방송국 등의 인력 등을 감안해야 하지만 이 수치만으로도 ‘작지만 강한 콘텐츠 기업’이라는 EBS의 평가는 매우 정당하며 크게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사교육비 절감이나 교육격차 해소효과, 평생교육 효과 등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몫을 감안한다면-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거의 2조원 대에 육박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¹⁴⁾- EBS는 그 어느 방송사보다 자신의 실제 크기를 훨씬 능가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BS 재원은 극히 제한적이다. 36년째 정체돼 있는 3만원의 TV수신료 중 EBS 몫은 3%가 채 되지 못하며, 때문에 수신료 수입은 공사 재원의 7%에도 미치지 못한다. 정부의 수능강의 관련 특별교부금 지원액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EBS의 사회적 공헌도를 감안할 때 자원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정부와 학계,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수신료 부분 이외에 교육세에서 EBS에 일정한 몫을 배분하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학교교육, 나아가 평생교육에 기여하는 EBS의 역할을 감안한다면, 교육세의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용처 중 하나가 바로 EBS를 지원하는 것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2016년 외주 관련 평가항목에 대해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프로그램의 양적 비율이나 투자의 적정성, 그리고 외주 시스템의 전체적 관리 부분에서 EBS는 모범적인 성과를 올렸다. 특히 외주와 관련해 많은 물의가 빚어지고 있는 제작비 부분에서 전체 제작비 대비 40%를 넘는 기록으로, 전체 프로그램 대비 29%에 이르는 시간비율 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투자한 점은, 외주제작의 의의를 가장 잘 실현한 성공적인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표 13> 외주제작비 비율

구분	전체제작비	외주제작비	외주제작비 비율
외주제작비 비율	40,516,716,759	16,320,851,861	40.3%

13) 출처 : 2016년 방송산업실태조사(미래부) 자료 기준

14) 출처: 2008. 교육행정학 연구 26권 1호 / 2010. 아시아 교육연구 11권 4호 / 2014. EBS 수능강의 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특히 주목할 것은 외주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 그리고 사후 평가과정이 잘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용한다는 점이다. 기획단계에서 내·외부가 함께 공동으로 작업하는 일종의 협치 시스템으로 작업하고 있는 점, 체계적인 중간단계의 프로그램 검수와 완성분에 대한 평가기준 수립과 집행, 이를 포함해 외주제작사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객관적 평가자료의 누적 DB화 등등, 외주와 관련한 EBS의 주도면밀한 관리 시스템은 프로그램 전반에서 EBS가 유지하고 있는 높은 신뢰도를 받쳐주는 요긴한 토대라고도 할 것이다.

넷째, 평가 및 심의 제도에서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내부의 부서 위임 심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물론 심의 대상이 학습 또는 애니메이션, 재활용 프로그램 등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많은 프로그램이 부서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2016년 EBS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3건의 권고와 주의 1건을 처분 받았다. 2015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해 권고 및 주의 각 2건이었다.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내부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한편 향후 지상파 2TV가 정식 출범할 경우 심의 대상 프로그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심의 인력의(방송제작 경력 25년 이상의 부장급 간부로 현재 7명) 대폭 확대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또 부서 위임 심의 역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지침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 3월에 신설한 시청자모니터단은 이제 시작단계라는 점에서 세심한 요원 관리와 함께 이들의 모니터 결과를 수합분류,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유념해야 함은 물론이다.

라. 시청자 서비스

평가내용

방송은 최종적으로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또는 콘텐츠 시청·수용·이용 단계에서 완성된다. 시청자들이 방송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어떠한 생각과 의견을 품고 있는지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방송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아이디어나 문제점, 나아가 시청자의 수요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내고 수정·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매우 요긴한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청자 서비스에 대해서는 첫째,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과 둘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적정성 두 지표로 평가한다.

1) 시청자 의견 수렴 및 반영 시스템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첫째 평가지표인 시청자 의견수렴·반영 제도 부분은 1) 시청자 의견수렴 시스템의 적정성 및 운영 정도, 2) 시청자 의견 반영 정도, 두 가지를 기준으로 짚어본다.

나) 평가내역

EBS는 사실 방송법 상 시청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외부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차원에서 각 시청 집단별로 시청자를 대표하는 집단 회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는 기존의 시청자위원회에 더해 교사 시청자위원회, 그리고 청소년 시청자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했다.

먼저 시청자위원회는 NGO, 시청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9명의 교육 및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2016년도에 예년과 같이 위원회는 월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임원진, 제작 관련 부서장, 담당 부장과 PD가 회의에 참석해 위원회의 제언을 청취하고 이를 프로그램에 반영했는데, 총 281건의 제언을

받아 그 중에 273건(97%)을 반영했다. 한편 시청자위원회의 결과는 EBS 홈페이지 '시청자위원회' 코너에 '회의록 전문'과 '제언 반영결과' 자료를 공개, 일반 시청자들과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 중이다.

이뿐 아니라 EBS는 2016년 학교교육과 관련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8명의 중·고 교사로 구성되는 교사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했으며, 4차례에 걸쳐 공사 경영진과 이사진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교사 입장에서 EBS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청소년 시청자위원회에는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직접 시청층인 중·고등학생 1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032건의 프로그램(교과 및 학습 프로그램 위주) 시청소감을 제출했고, 그 중 39건의 우수 소감문은 사내 인트라넷과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 직원들 및 시청자들과 그 내용을 공유했다.

둘째, 시청자 의견을 실시간으로 청취접수하고 수렴해, 그 내용을 빠른 시간 내에 반영하려는 취지에서 EBS는 고객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청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전화, 고객센터 온라인 게시판, 1:1 메일, 모바일, SNS 등으로, 2016년에는 총 277,292건의 시청자 의견을 수렴해 각 부서에 전달했으며 그 중 94.4%의 의견을 반영했다. 한편 고객센터는 원격 서비스 및 SNS 상담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는데, 원격 서비스는 컴퓨터 원격제어를 통해 시청자들의 동영상 시청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로 2016년에는 전체 13,850건을 처리했다. 또 고객상담 채널 추가 확보를 위해 2015년 10월부터 SNS 상담창구(헬로우 EBS 카카오톡 친구 14,321명, 2016.12.31.기준) 개설했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EBS와 소통할 수 있도록 했다.

2)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시청자 서비스 평가항목의 두 번째 평가지표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비율은 말 그대로 해당 프로그램의 편성시간 비율과 운영의 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나) 평가내역

2016년 EBS는 보다 폭넓은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지상파 TV 전체 방송 시간의 14.1%, FM 라디오는 전체 방송 시간의 21.3% 비율로 편성했다.

다양한 형식으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했는데, 시청자 직접 제작 프로그램부터, 시청자의 프로그램 진행, 보조진행, 시청자 제보, 시청자 패널, 토크쇼 참여, 시청자의 실연, 강의 등에 참여하는 경우 등이 그것이었다. 2016년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방귀대장 뽕뽕이>, <장학퀴즈>, <엑소 브레인> 등 유아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및 카톡 대화창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생방송 <라이브 토크 부모> 프로그램도 편성했다. 또 시청자가 직접 제작하는 1인 방송 다큐멘터리인 <EBS 스페셜 프로젝트-엄마 TV>, 전국의 시청자가 참여하는 서바이벌 <EBS 스페셜 프로젝트-기적의 가위바위보 한판 합시다>, <스마트 퀴즈쇼-간다면 간다> 등 실험적인 대규모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들도 편성했다.

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건강 프로젝트 바꾸면 산다>, <달라졌어요> 등과 같이 시청자의 신청과 제보로 진행되는 다양한 장르의 솔루션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나눔 070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소외 계층을 위한 시청자 참여형 기부문화 조성에도 노력했다. 이외에도 시청자 대상 무료 콘서트 프로그램인 <EBS 스페이스 공감>을 매일 개최했으며, 문화 교육 소외 지역의 유아어린이를 위한 캐릭터 뮤지컬 쇼 <모여라 덩동댕> 등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FM 라디오에서는 <모닝스페셜>, <English Go Go>, <영어! 할 수 있다 Can Can Can>, <EBS 북 카페> 등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는 한편,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다문화 음악여행> 등의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청취자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평가결과 및 제언

EBS는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외부 평가와 서비스 차원에서 다른 방송사들과 동일한 수준과 내용을 갖춘 시청자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교사와 청소년이 주축이 되는 별도의 시청자위원회도 구성·운영했다. 이는 EBS 프로그램의 장르와 특성에 비추어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아 마땅하다. 한편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의 편성 정도 부분에서는 다른 방송사와 비교할 이유가 없고, 따라서 어느 만큼의 편성비율이 적절한 것인가를 정하기 어려운 만큼 공사 제작진의 판단과 노력에 맡길 부분이다.

다만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해 시청자 참여가 무엇인가에 대한 세밀한 논의, 또 다양한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방송포맷들이 선보이고 있는 점, 또 시청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미디어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환경에서, 참여의 형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공사의 관심이 요구된다. 다시 말하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져보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직·간접적 방식의 시청자의 프로그램 참여가 진정한 의미의 '참여'인지, 아니면 시청자를 '이용' 또는 '동원'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TV 플랫폼뿐만 아니라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크로스 플랫폼 형 콘텐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엄마 TV' 같은 프로그램은 이런 시도의 한 형식으로 아주 모범적인 선례로 보인다. 또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아예 전통적인 TV 매체를 이탈하고 있는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장치나 홍보, 마케팅, 참여경로 설정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는바 추후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해보고자 한다.

마. 방송성과

평가내용

방송사의 경영목표·편성목표 달성 여부는 프로그램이 거둔 성과로 판가름이 난다. 물론 경영평가에 적용하는 방송성과의 기준이 공사의 경영과 편성목표 달성률을 100% 판정하는 최종의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임은 분명하다. 이 항목의 평가기준으로는 1)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2)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3)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등 세 가지이며, 각 지표 별로 설정된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1)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

가) 평가기준

프로그램의 완성도와 관련된 평가는 1) 기존 프로그램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노력 및 결과, 2) 신규 프로그램의 참신성, 실험성 및 제작 횟수, 3) EPEI와 CI 신장 정도, 4) 프로그램의 국내·외 평가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짚어본다. 여기에서 1과 2는 편의상 기존과 신규 프로그램을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품질 제고노력에 대한 평가라는 점에서 함께 논의하도록 한다.

나) 평가내역

① 기존·신규 프로그램 완성도,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과 결과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해결의 방정식은 사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문화 콘텐츠의 성과와 관련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프로그램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기획과 사전제작, 제작 담당 인력의 수준, 문화적 트렌드의 충실한 파악과 적절한 반영, 사후 성과에 대한 평가 공유 등등이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EBS가 시도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첫째, 주 3회 방송되

는 간판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인 <EBS 다크프라임>의 2016년 신규 방송분을 6개월 또는 길게는 1년씩의 기간을 두고 모두 사전 기획·제작했다. 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등 정규 프로그램의 경우 시즌제를 도입, 각 시즌별로 사전 기획·제작 기간을 운영, 기존의 인기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제고하고 시청률 및 화제성을 높이는 성과를 보였다. 이 같은 사전 기획·제작 프로그램들은 2016년 높은 국내 수상 실적(총 32건)을 달성했고, 2016년 EBS 전체 프로그램 수상 건수(46건)의 70%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외에도 시의성을 반영하고 시청자의 요구를 충실하게 담아내기 위해 주요 정규 프로그램을 특집 형식으로 제작·편성했다. <명의-신년 특집>, <하나뿐인 지구-부처님 오신날 특집>, <모여라 덩동댕-추석 특집, 크리스마스 특집>, <희망풍경-장애인의 날 특집> 등을 방송했다. 또 <EBS 스페이스 공감-기획시리즈 다시, 공감>, <명의-전설의 외과의>, <세계테마기행-시청자와 함께하는 특집> 등 인기 프로그램에서 접근방식과 형식을 바꾸는 특집 시리즈를 운영함으로써 시청자의 관심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는 사전 기획과 파일럿 제작 프로그램을 시도, 새로운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수학이 야호>, <놀이 대장을 찾아라>, <갯력시 안전 프로젝트> 등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EBS 스페셜 프로젝트>라는 포맷을 설정, 이 안에 3~4부작의 새로운 콘셉트의 프로그램을 연중 선보임으로써 빠르게 변하는 시청자의 요구나 선호도를 반영하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철저한 사전기획 및 제작 방식을 취함으로써 프로그램의 기획 역량을 높이고 품질제고를 꾀했으며, 이 중에서 시청자의 피드백이 좋은 프로젝트는 정규편성으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의 속마음을 퀴즈로 맞춰보는 포맷의 부모 교육 프로그램 <부모고시>, 화제의 도서 내용을 직접 체험하며 검증해보는 프로그램 <책대로 한다> 등이 시청자의 좋은 반응을 받았으며, 2017년 정규 편성을 목표로 세부 내용을 재기획하고 있는 중이다.

② EPEI와 CI 신장 정도

EPEI는 EBS가 한국방송학회와 공동으로 지난 2002년 개발, 프로그램의 창의성·완성도, 공익성, 흥미성, 유익성, 교육성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를 온라인 조사로 측정하는 지수이다. 2016년 한국 리서치의 EPEI 조사결과는 7.83으로 2015년 대비 0.03점 상승했다.

<표 14> 2013년~2016년 EPEI 지수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종합EPEI	7.67	7.78	7.80	7.83
창의성	7.42	7.55	7.39	7.44
완성도	7.54	7.66	7.51	7.57
흥미성	7.41	7.57	7.45	7.50
공익성	7.43	7.56	7.43	7.51
교육성	7.51	7.66	7.51	7.55

한편 EBS의 시청층과 프로그램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인 CI는, 내용평가, 기획·제작평가,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2016년 한국 리서치의 대인면접 조사 결과 7.18점으로 전년 대비 0.03점 상승했으며, 동일한 시청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능교육, 대교방송 등과 비교한 채널 평가점수 역시 유익성과 교육성 모두 상승, 타사에 비해 모두 30% 이상 높은 평가를 받았다.

<표 15> 2013년~2016년 CI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아동	부모	평균											
전체 CI	7.03	7.19	7.11	7.01	7.21	7.09	6.96	7.34	7.15	6.85	7.51	7.18		
채널평가	교육성			유익성			교육성			유익성				
	EBS 4.30, 재능 3.21, 대교 3.19(5점 척도)			EBS 4.23, 재능 3.33, 대교 3.27(5점 척도)			EBS 4.32, 재능 3.38, 대교 3.29(5점 척도)			EBS 4.40, 재능 3.31, 대교 3.26(5점 척도)				
			EBS 4.32, 재능 3.20, 대교 3.16(5점 척도)			EBS 4.23, 재능 3.33, 대교 3.29(5점 척도)			EBS 4.33, 재능 3.29, 대교 3.32(5점 척도)			EBS 4.39, 재능 3.29, 대교 3.24(5점 척도)		

③ 프로그램의 국내·외 평가정도

방송 프로그램의 완성도 평가에서 국내·외 수상실적은 중요한 기준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프로그램의 해외 판매 실적 역시 완성도 평가의 한 기준으로 적용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실 프로그램의 국내·외 수상실적과 관련, 조직의 크기나 재원규모를 기준으로 한다면, EBS는 국내의 다른 어느 방송사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예를 들면 YMCA가 주관하는 좋은 방송 대상의 경우, EBS는 2014년부터 15, 16년 3년 동안,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부분에서 6편을 수상한데 비해 KBS는 5편, SBS는 4편에 그치고 있다(MBC 본사는 전무함). 또한 수상내역의 측면에서도 EBS는 정부기관, 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방송 관련 단체,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직종 전문조직, 학술단체 등, 거의 모든 미디어 유관기관을 망라하는 수상실적을 보여준 거의 유일한 방송사이다. 아래의 표는 2016년에 거둔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16> 국내·외 수상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수상 내역	주최 기관
1	EBS 명의	제19회 범석언론정책상	범석학술장학재단
2	EBS 다큐프라임 - 시험	제20회 삼성언론상 어젠다상	삼성언론재단
3	EBS 다큐프라임 - 녹색동물	제191회 이달의 PD상	한국PD연합회
4	EBS 스페이스 공감	제28회 한국PD대상 특별상	한국PD연합회
5	EBS 다큐프라임 - 또 하나의 독립운동	제20회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 대상	한국 YWCA연합회
6	EBS 다큐프라임 - 넘버스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창의발전부문	방송통신위원회
7	책 읽어주는 라디오 SB	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라디오부문	방송통신위원회
8	EBS 다큐프라임 - 녹색동물	제19회 베스트 촬영감독상	한국방송 촬영감독연합회
9	EBS 다큐프라임 - 한국인의 집단심리 우리WE	제14회 언론인권상 특별상	언론인권센터
10	EBS 특별기획 THE VOTE - 투표 2부작	2016년 4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1	EBS 다큐프라임 - 시험	제52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교양작품상	(주)일간스포츠

2016사업연도 EBS 경영평가 보고서

번호	프로그램명	수상 내역	주최 기관
12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아기따라 우는 개 멍이	2016년 3월 이달의 독립PD상	한국독립PD협회
13	하나뿐인 지구 그 많은 반려동물은 어디로 갔을까	2016년 4월 이달의 독립PD상	한국독립PD협회
14	학대피해아동쉼터 집중취재 - 우리가 설 곳은 어디인가요?'	제43회 한국방송대상 뉴스보도부문	한국방송협회
15	라디오 행복한 교육세상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생활정보R 부문	한국방송협회
16	스페이스 공감 특별기획 - 재즈의 비밀	제43회 한국방송대상 문화예술 부문	한국방송협회
17	다큐프라임 - 넘버스	제43회 한국방송대상 다큐TV 부문	한국방송협회
18	EBS 생방송 특! 특! 보니 하니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어린이 부문	한국방송협회
19	EBS 다큐프라임 - 한반도 대서사시 나무 (개인상)	제43회 한국방송대상 작가상	한국방송협회
20	다큐프라임-한라산 늑대개	2016년 6월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1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	제 15회 AIBD 연례 총회 올해의 TV 프로그램상	AIBD
22	EBS 다큐프라임 - 청춘 사라진 100년 그들의 목소리	2016년 8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3	EBS 다큐프라임 녹색동물	2016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ABU)상 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	ABU
24	남북 10대들의 통일프로젝트 딱 좋은 친구	제22회 통일 언론상 특별상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 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25	EBS 다큐프라임 - 웹툰다큐 우리집 끈대	국민통합 우수문화콘텐츠 대중문화 콘텐츠 분야	국민대통합위원회 (대통령 소속)
26	EBS 아시아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너도 동생이 있니?	2016 재팬 프라이즈 JAPAN FOUNDATION PRESIDENT PRIZE	일본 NHK
27	봉구야 말해줘2	2016 재팬 프라이즈 PRE-SCHOOL 부문 최우수상	일본 NHK
28	EBS 힐링모의고사 (캠페인)	2016 아시아태평양 광고페스티벌 다이렉트부문 실버상	아시아태평양 광고페스 티벌 집행위원회
29	EBS 힐링모의고사 (캠페인)	제24회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 온라인부문	한국광고주협회

번호	프로그램명	수상 내역	주최 기관
30	EBS 힐링모의고사 (캠페인)	2016 ADSTARS(부산국제광고제) Divers Insights/ Branded Viral Videos 2개 부문 브론즈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
31	EBS 힐링모의고사 (캠페인)	Spikes Asia Media부문 브론즈	스파익스아시아 집행위원회
32	EBS 힐링모의고사 (캠페인)	2016 대한민국 광고대상 심사위원 특별상	한국광고총연합회
33	EBS 다크프라임 - 녹색동물	2016 그리메상 다크멘터리 부문 우수작품상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34	EBS 다크프라임 - 사라진 인류	2016 그리메상 프론티어상	한국방송촬영감독연합회
35	EBS 뉴스 아빠는 육아 휴직 중	제18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최우수상(장관상)	여성가족부
36	EBS 뉴스 공학이 된 여성 공학	제18회 양성평등미디어상 우수상(장관상)	여성가족부
37	EBS 다크프라임 - 청춘 사라진 100년, 그들의 목소리	2016년 Media Awards 지상파방송콘텐츠 우수상	(사) 미디어미래 연구소
38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16 푸른미디어상 가족상	한국여성민우회
39	WHY 최고다 호기심 딱지	2016 푸른미디어상 어린이상	한국여성민우회
40	EBS 다크프라임 - 넘버스(개인상)	2016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포상 국무총리표창	한국콘텐츠진흥원
41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 (개인상)	2016 대한민국콘텐츠대상 방송영상산업발전유공포상 국무총리표창	한국콘텐츠진흥원
42	출동 슈퍼왕스	2016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캐릭터대상 문체부장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43	플라워링 하트	2016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캐릭터대상 문체부장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44	정글에서 살아남기	2016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애니메이션대상 문체부장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44	코코몽	2016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캐릭터대상 문체부장관상	한국콘텐츠진흥원
45	하나뿐인 지구 이상한 나라의 죽음	제7회 YMCA 선정 좋은방송대상 우수상	서울YMCA
46	EBS 뉴스 엄마의 두번째 출근	2016 올해의 양성평등문화상 문체부장관상	여성문화네트워크, 여성신문

국내·외 수상실적과 함께 2016년 프로그램 해외 판매에 있어서도 EBS는 금액으로 환산, 총 13억여 원에 달하는 수출실적을 올렸다. 이는 전년 대비 46%의 엄청난 증가율을 기록한 역대 최고의 콘텐츠 수출 성과이다. 몇 가지 주요한 예를 들면, <빛의 물리학> 프로그램은 미국 대표 OTT¹⁵⁾ 플랫폼인 넷플릭스(Netflix)¹⁶⁾와 미주교민 대상 OTT 플랫폼인 ODK미디어(주)¹⁷⁾에 동시에 서비스했다. 또 완성된 콘텐츠뿐만 아니라 수출 유형을 다양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녹색동물>의 촬영 자료본을 영국 BBC에 판매하는 등, 다큐멘터리 채널 EBS의 입지를 높이는 실적도 쌓았다.

한편 EBS는 2016년 콘텐츠 판매를 넘어 콘텐츠 수출형식과 수출내용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실적을 쌓았다. 공사는 베트남이 개국한 교육채널 VTV7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여기에 애니메이션 브랜드 블록인 'Kiddie' 플랫폼을 확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콘텐츠-광고, 출판, 라이선싱 등의 부대사업 포함-판매 인프라를 구축하는 성과를 이룬 것이다. 여기에서 나아가 공사는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에 교육방송 모델을 수출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또 중국시장을 개척, SMG¹⁸⁾와 <황제의 영원한 제국, 진시황릉>, 중국 후난 TV와 <빅뱅 차이나>, <세계문명의 시작, 디 오리진>, <상시>를 공동제작하고 <세계테마기행>과 같은 시리즈 다큐멘터리의 수출 길을 열었다. 또, 텐센트¹⁹⁾ 미디어와 봉황망²⁰⁾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EBS의 우수한 다큐멘터리들을 선보였다.

이처럼 EBS는 2016년 플랫폼 확보를 통한 콘텐츠 수출 연계, 해외교육사업 및 포맷 수출 확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외 콘텐츠 시장의 문을 여는 성과를 거두었다.

15) OTT(Over The Top) :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 서비스를 일컫는다.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Public internet)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Top'은 TV에 연결되는 셋톱박스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셋톱박스가 있고 없음을 떠나 인터넷 기반의 동영상 서비스 모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임.

16) 넷플릭스(Netflix) : 미국 최대의 온라인 TV·영화 서비스 회사. 세계적인 인터넷 기반 TV 서비스 기업으로, 1997년 DVD를 우편 배달하는 서비스로 시작해 2007년부터는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

17) ODK(On-Demand Korea)(미디어(주)) :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18) SMG(Shanghai Media Group, 상하이 미디어 그룹) : 중국 정부가 자국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육성하기 위해 2001년 상하이인민라디오방송국, 상하이 TV방송국 등 5개 방송국을 통합해 설립한 종합미디어그룹으로 13개의 텔레비전 채널, 11개의 라디오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19) 텐센트(Tencent) : 중국 최대의 SNS회사이자 세계 1위 온라인게임사다. 7억이 넘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PC 버전의 메신저 QQ와 모바일 버전의 위챗(WeChat, 微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 봉황망(鳳凰網, www.ifeng.com) : 중국 최대 온라인 뉴스 미디어 플랫폼

2)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가) 평가기준

수상실적이나 콘텐츠 판매실적 등이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판단하는 질적인 척도라면 시청률 그리고 VOD 이용 정도는 프로그램의 품질을 판단하는 양적인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1) 주 시청 시간대 시청률 및 점유율 정도, 2) 타깃 시청자 시청률 및 점유율 정도, 그리고 3) 온라인·모바일 VOD 이용 정도 세 기준을 가지고 2016년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을 평가해본다. 이들은 모두 양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통합 비교해보고자 한다.

나) 평가내역

EBS는 시청 대상이 이미 분명하게 설정돼 있는 학교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다른 프로그램의 경우 주 시청자층을 유아·어린이 그리고 성인으로 크게 나누고 있다. 이에 따라 주 시청시간대의 경우 유아·어린이는 평일 오전 7-9시 40분, 오후 4시-7시 반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성인의 경우는 평일 저녁 8시 50분부터 자정까지를 주편성시간대로 설정하고 있다.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분포도가 크게 달라진 점과 (예: 1인 가구 증가: 통계청 기준 2010-2015년 1인 가구 증가율 25%)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의 시청률 통계 기준 변경정책에(2016년 8월 1일 시청률 조사 표본 집단에서 유아/어린이 비중 축소) 따라 유아·어린이 프로그램 가구 시청률은 하락했다. 그럼에도 주 타깃 시청 대상의(4-12세) 시청률은 2015년 1.76%에서 2016년 1.78%로, 점유율도 2015년 20.18%에서 2016년 21.01%로 상승, 해당 시청층의 경우 타 방송사와 비교해 여전히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6년 성인 시간대 타깃 시청자 시청률은 전년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2015:0.87/2016:0.85), 전체적으로는 당해 연도 직전 3년간 시청률/점유율 평균 값으로 설정한 목표치를 상회하는 기록을 달성했다.(시청률 목표치 0.79-2016:0.85/점유율 목표치 2.73-2016:2.96) 또한 2016년 프로그램 시청률 3%

이상 돌파 횟수는 164회로, 2015년의 148회 대비 10.8% 증가했다.

한편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시청지표를 가늠해볼 수 있는 VOD와 AOD의 홈페이지 이용 횟수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7> TV VOD 및 FM AOD(EBS 홈페이지 이용 건수)

연도	TV VOD	FM AOD
2013년	17,627,093	4,656,954
2014년	33,099,793	10,877,641
2014년	24,410,415	10,448,206
2016년	29,529,308	8,065,430

VOD, AOD 공히 연도별로 비교적 변동의 폭이 크지만 시청률·점유율 기준 지표와 같은 방식으로 2016년의 실적을 3년간 평균과 대비했을 때, AOD의 경우는 소폭 하락했으나 VOD는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3) 콘텐츠 내부 관리 및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유통 및 사업화 정도

가) 평가기준

디지털 정보통신·미디어 기술은 다종다양한 변용의 가능성 때문에 본래 질서 교란적이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은 따라서 공급자나 이용자 모두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로 다가온다. 전통적인 TV 플랫폼을 넘어 무수히 많은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공급·접속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방송사들은 자신이 가진 콘텐츠 자원을 환경에 맞추어 적절하게 기획·제작·변용·유통시키는—흔히 One Source Multi Use(OSMU) 또는 Create Once Publish Everywhere(COPE)라고 불리는—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1) 콘텐츠 내부 관리 체계의 적정성, 2)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의 유통 및 사업화 정도, 3) 제작단계부터 사업부서와 제작부서 간 협력 시스템의 운영정도를 기준으로 이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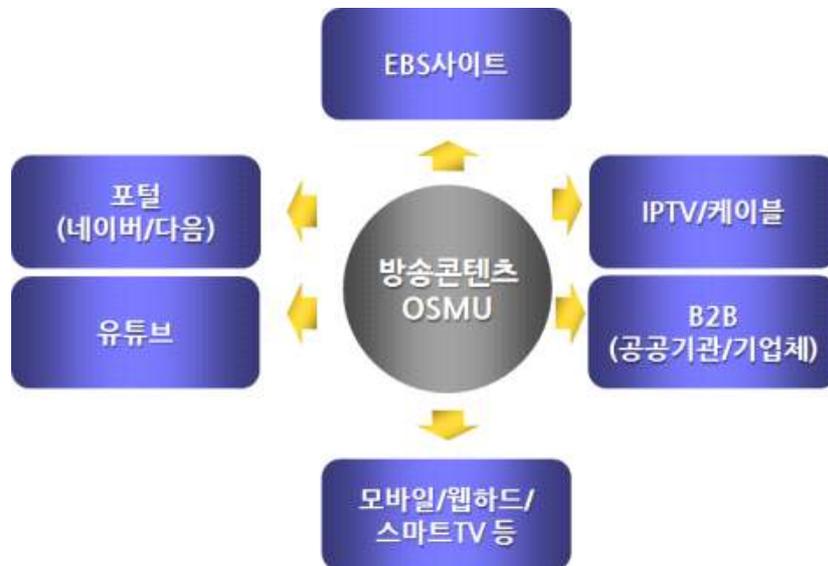
나) 평가내역

① 콘텐츠 내부 관리 체계의 적정성

콘텐츠 내부 관리 체계의 적정성이란 각종의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에 EBS 콘텐츠를 공급하는 작업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원활한 업무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플랫폼 별로 콘텐츠를 다양한 포맷으로 변환하고 공급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묻는 것이다.

아래 <그림 1>은 현재 EBS가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 및 서비스 제공 내역을 보여준다.

<그림 1> EBS 콘텐츠의 OSMU 개념도



2016년에도 EBS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미디어 플랫폼에 공사의 디지털 콘텐츠 DB에서 해당 콘텐츠를 선택, 플랫폼 운영사의 톨을 통해 직접 업로드했으며, 시·도 교육청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는 고객사가 요청하는 포맷에 맞게 공사의 인코딩실에서 작업 완료 후, FTP(File Transfer Protocol, 파일전송툴) 또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 전달했다. KT, LGU+, SKB 등의 IPTV와 각 지역의 케이블 방송에도 역시 인코딩실에서 FTP를 이용해 각 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하고 있는 중이다.

② 멀티 플랫폼을 활용한 콘텐츠의 유통 및 사업화 정도

변화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사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겨냥, 그에 적합한 자산 재활용 전략과 사업을 시행, 매출과 수익을 올려야 한다. 2016년 EBS는 방송 콘텐츠의 외부 플랫폼 공급사업을 통해 총 185억여 원의 실적을 기록, 2015년 대비 8% 증가의 성과를 올렸다.

<표 18> 방송 콘텐츠 공급 사업(단위 : 억 원)

구분	내용	매출액
온라인 실시간 채널	CJ헬로, LGU+ 등 (PC, 태블릿 동시 공급)	7.1
VOD 유통사업	IPTV(CATV) VOD 유통사업	49.9
B2B 제휴 및 공급	교육청 등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제작 공급 등	55.3
웹하드 양성화 사업	36개 업체 43개 사이트와 제휴	2.3
IPTV 및 위성방송	SkyLife, KT, LGU+, SKT 공급	23.5
SO 런칭	총90개처	24.0
뉴미디어 플랫폼	유튜브, 네이버,카카오 등 미디어플랫폼	22.8
	(합계)	184.9

방송 콘텐츠 공급사업의 경우 2015년 대비 매출 증가분은 B2B 제휴 및 공급 영역에서, 문화사업의 경우 2015년 대비 매출 증가분은 협찬사업의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른 영역의 경우는 약간의 증가 또는 전년과 동일한 실적을 보여주었다. 이를 전체로 보면, 협찬을 포함, 방송 콘텐츠에 기초한 각종 아이템을 활용한 부대사업, 보급 대행, 방송권과 공연권 판매, 프로그램 복사 및 캐릭터 제품 판매 사업을 진행, 전체 132억 여 원의 실적을 올린 바, 이는 2015년 대비 24%의 증가를 기록한 성과이다.

<표 19> 문화사업 현황(단위 : 억 원)

구분	내용	매출액	비고
협찬사업	방송 프로그램, 시험대비강좌, 캠페인 등 협찬	110.1	
대행보급사업	한국산학경영 연구소, 러닝코리아 등	3	EBS미디어
방송권 판매	다큐프라임, 극한직업 등	14.9	EBS미디어
공연권 판매	세계테마기행, 명의 등	0.1	EBS미디어
셀스루 제품 판매	방귀대장 뽕뽕이, 뽕뽕뽕 뽕로로 등	0.2	EBS미디어
복사 판매	다큐프라임 등	0.8	EBS미디어
캐릭터 제품	방귀대장 뽕뽕이, 덩동댕 유치원 등	2.8	EBS미디어
	(합계)	131.9	

③ 제작단계부터 사업부서와 제작부서 간 협력 시스템의 운영정도

프로그램 유통과 문화사업 등 콘텐츠 관련 사업은 내부의 업무 관련 부서 간 협조체제, 그리고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가 관건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EBS는 편성과 제작, 그리고 사업부서 간의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2016년 2회(봄/가을) 정기 편성개편 시, 편성-제작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같은 시점에 제작-사업-경영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편성위원회를 운용, 최종적인 편성의결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후 편성과 제작진 사이의 공동 시사회,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했고 이를 통해 콘텐츠 사업의 진행 과정과 문제점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콘텐츠 사업 관련 외부 유관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파통신진흥원 등과 2016년 한 해 동안 수시로 제작비 협찬 및 고품질 콘텐츠 개발을 위한 협의체를 운용했다. 이뿐 아니라 수능 등 학교교육 관련 정책, 또 학교폭력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에 대해 교육부와 수시로 열리는 상호 협의체를 가동했으며 그 결과를 방송편성에 반영해왔다.

평가결과 및 제언

지금까지,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EBS의 노력, 그 결과 나타난 프로그램 시청률 및 VOD 이용 정도, 또 프로그램 관련 사업 실적과 업무 프로세스 등을 기준으로 EBS 콘텐츠 전반의 성과를 짚어보았다.

적용된 평가기준과 대비해 볼 때 전체적으로 EBS는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물론 신규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품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장기기획·사전제작 등의 다층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참신한 실험정신을 살린 프로그램도 적지 않았다. 그 결과 EPEI와 CI 모두 전년 대비 상승하는 성과를 올렸을 뿐 아니라, 수익의 측면에서도 높은 실적을 거두었다.

이 같은 방송성과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EBS가 설정한 2016년도의 편성목표와 적절하게 부합하면서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2016년 EBS는 경영목표로 인성·창의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의 확대,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스마트 서비스 구현 등을, 편성목표로는 미래 인재 교육 콘텐츠 강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 그리고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응 등을 설정했다. 이와 같은 경영·편성 목표는 2016년 EBS의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 대기획-공부의 재구성〉, 〈연중기획-미래를 여는 교육〉, 〈입시 핫라인-입시 정보/학과 선택〉, 〈봉구야 말해줘 시즌2〉,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녹색동물〉, 〈모멘트〉, 〈앙트레프레너, 경제 강국의 비밀〉,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민주주의〉, 〈호랑이의 땅〉, 〈패권의 비밀〉, 〈사라진 인류〉, 〈녹색동물〉, 〈세상의 모든 법칙〉, 〈뷰티풀 코리아〉, 〈공부법 특강-미라클〉, 〈라이브 클래스-원 포인트 레슨〉, 〈스쿨랜드〉, 〈사이틴〉, 〈라이브토크 부모〉 등등의 프로그램들은, 2016년 EBS가 설정한 경영과 편성의 목표와 적절하게 부합하는 내용과 성과를 거둔 콘텐츠들이다.

또 2016년 EBS 프로그램의 시청률과 VOD/AOD 이용 정도 등도 수치상으로는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평년수준을 유지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유념할 것은 통상적인 성과지표를 넘어 바뀐 미디어 환경에 더욱 적합하고 정확한 시청자

관련 지표를 마련할 때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미 방송통신위원회나 KOBACO²¹⁾ 같은 공공기관, EBS는 물론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 또 CJ E&M 같은 케이블 방송사들도 나름대로 콘텐츠 시청·수용자 관련 지표를 개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표의 신뢰도, 타당성 등에 대해 꾸준한 문제제기가 있어온 만큼 EBS에서도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지수와 다른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지표와의 차이 또는 유사성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특히 EBS의 VOD/AOD 접속건수에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YouTube나 다른 포털로의 접속으로 인한 것인지 등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이다.

21) KOBACO(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한국방송광고공사) : 방송광고 판매 대행, 방송광고의 균형 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바.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평가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가) 평가기준

경영평가의 근본적 취지는 반성을 통한 성장이다. 전년도 평가의 결과와 그에 토대를 둔 제언은 이어지는 새해에 조직과 구성원 모두 새로운 생각과 노력의 자세를 가다듬는 기초로서 매우 의미 있는 자원이다.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는 말 그대로 전년도에 제기한 문제가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결과는 어떠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다.

나) 평가내역

2015년 경영평가 방송부문에서 지적한 사항은 크게 5가지이다. 첫째, 제작비의 안정적 상승 추세의 수립, 둘째, 작지만 강한 콘텐츠 기업의 지향, 셋째, 2TV의 채널 특성화, 넷째, 시청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포맷과 구성, 다섯째,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체계화 등이다.

먼저 제작비의 안정적 상승 추세의 수립과 관련해 2016년의 경우 공사의 총 제작비 집행액은 약 502억 원으로 2015년의 498억 원보다 4억 원 정도 늘어났다. 금액 자체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지만 2016년 공사의 전체 총 예산이 3,002억 원에서 2,871억 원으로 추경이후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제작비의 증가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또한, 2017년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예산이 증액되면서 이후에도 EBS 2TV 제작비 등을 확대 편성할 방침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투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둘째, 2015년 경영평가에서 제안된 '작지만 강한 콘텐츠 기업으로의 지향성'은 구체적 제안이라기보다 EBS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이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그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앞의 각종 방송부문 평가항목에서 언급했듯이 EBS는 2016년 콘텐츠 기획과 제작, 유통에 있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에 따른 성과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2TV의 출범에 맞춘 새로운 특성화 모델의 마련과 관련, EBS는 나름대로 채널 차별화 전략을 수립하고 학교교육 콘텐츠부터 외국어, 다문화, 통일문제 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편성했으나 아직 신생 채널이라는 위상 탓에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기에는 더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시청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포맷과 구성이라는 제언은 사실 어느 방송사든 언제나 품고 있는 일종의 정언 명령과 같은 것이다. 이와 관련 EBS는 2016년 특히, 디지털 플랫폼의 적극 활용에 주목했는데, 모바일에 맞춘 콘텐츠를 시범적으로 제작(예: <스쿨랜드>, <사이트> 시리즈)했으며, 온라인 양방향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예: 라이브 토크 부모) EBS 육아학교 프로그램과 연결·편성했다. 또 1인 방송시대 MCN²²⁾형의 교육 콘텐츠와(예: <공부법 특강 미라클>, <라이브 클래스-원포인트 레슨>) 클립형 콘텐츠(예: 세상의 모든 법칙) 형식으로 다양한 학문 분야의 주요 법칙과 이론들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또 <세계테마기행>, <EBS 다크프라임> 등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페이스북 등 SNS와 네이버 등을 활용, 시청자와의 소통을 강화한 한편, 가을 편성 조정을 통해 청소년 소통 및 정서 함양 프로그램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을 FM에 신설했다.

다섯째, 소외계층 배려의 균형과 체계화 부분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의 경우, 단순 강의 포맷 (다문화 언어 교육 등)을 지양하고 일반 시청자들도 함께 시청 가능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으로 전환했고, 동시에 다문화를 복지의 관점이 아니라 '글로벌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제작해 차별화했다. 그 결과 시청률 등 피드백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 고령화 시대를 반영, 중장년층 디지털 문해교육, 재취업, 창업 등 실용성 직업교육, 노인 건강, 세대 간 소통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22)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 채널 네트워크) :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사이트에서 인기가 많은 1인·중소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눠 갖는 미디어 사업

평가결과 및 제언

2016년 EBS는 전년도 경영평가 방송부분에서 지적한 사항, 제언 등에 대해 노력과 성과의 측면에서 대체로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라기보다 시간의 문제, 예산의 문제 등과 같은 기술적 차원의 것이다.

한편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는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 취지와 성격상 이 평가항목은 2016년도 해당 부분의 경영평가 전체를 축약·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맞추어 여기에서는 각 항목별 평가에서 제시한 결과와 제언을 요약·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EBS의 경영목표, 편성목표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와 새로운 목표설정 작업이 필요하다. 어느 조직이든 역량을 결집하고 추진력을 갖추기 위해 명료하게 정리된 질서 있는 목표의 설정과 그 목표의 내부적 공유는 필수적인 과제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과 같은 도식적 사고, 비슷한 구호의 반복적 사용, 상투적 문구 등을 벗어나, EBS 설립취지를 유연하면서도 내실 있게 해석하고, 그에 기초해 수미 일관한 논리구조와 내용을 갖춘 경영·편성목표를 수립하는 것, 그리고 경영·편성목표를 내부적으로 진지하게 공유하는 작업이 매우 절실하다.

둘째, 채널 특성화 전략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문제와 관련, EBS는 2016년 하반기에 공공미디어연구소와 함께 편성 전략연구를 실시했다. 이에 기초해 EBS는 '지식 채널'(1TV), '창의 채널'(2TV), '학습 채널'(EBS 플러스 1, EBS 플러스2, EBS English, EBSu)의 정체성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채널 위계 및 보완 체제를 마련했다. TV 채널 특성화 전략과 관련, EBS는 명실상부한 실천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항상 제기되고 있는 EBS 자원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EBS가 매우 높은 생산성 우수한 역량을 가진 콘텐츠 제작사라는 것은 인력의 규모, 운용 채널 수, 방송시간, 예산 규모, 외주 투자비율, 수상실적 등 어떤

지표로도 인정된다. 한편 사교육비 절감이나 교육격차 해소 효과, 평생교육 효과 등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몫을 감안한다면 EBS는 그 어느 방송사, 어느 교육기관 보다 자신의 실제 크기를 훨씬 능가하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조직이다. 이렇게 본다면 수신료 배분 뿐 아니라 애초부터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거두고 있는 교육세 역시 일정 부분 EBS에 배분돼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자원문제와 관련해 EBS는 정부와 학계, 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좀 더 기능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의 과제 3가지 정도를 여기에서 제시한다면, 1) EBS 설립 취지에 명기돼 있는 민주적 교육발전 부분을 개념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어떻게 해석·정리하고, 프로그램화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과 연관된 프로그램에 비해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매우 빈약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 프로그램의 신설·폐지 업무의 기초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는 국내·외 주요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연구 작업의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매우 방대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 연구·분석 작업의 품질과 수준이 양적인 규모에 버금갈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지, 실제 프로그램 신설·폐지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기대한 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사회 트렌드 변화에 대한 주도면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프로그램과 편성에 반영토록 노력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세대별 시·청취자와 콘텐츠 이용자 집단의 취향과 선호도, 미디어 이용 패턴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프로그램과 편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학계나 관련 연구소 또 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문화 트렌드 연구자료들을 최대한으로 수합하여 내부적으로 공람함으로써 프로그램과 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지금 EBS가 활용하고 있는 시청자 관련 지표와 다른 지상파 방송사, CJ E&M 등이 활용하고 있는 유사 지표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하다. 비교·검토 이후 결과에 따라 해당 지표를 여전히 가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각 지표들이 만들어지던 시점과 지금의 미디어 환경이 매우 달라졌기 때문에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도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의미 있는 과제이다.

방송부문 대표 집필위원 : 김평호 위원

2. 교육부문

EBS 설립목적인 학교교육 보완 및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EBS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문은 이러한 사업들을 5개의 '평가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항목과 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20> 교육부문 경영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 방송교육목표	1. 방송교육목표의 적정성
나. 교육방송 시스템	1.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조직 활용 및 대외협력의 정도
	2.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시 방송교육목표의 반영 정도
	3.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4. 제작 직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5. 참여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6.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7.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다. 방송교육 과정	1.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라. 방송교육 성과	1. 타깃 시청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정도
	2.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3.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 정도
마.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가. 방송교육목표

평가내용

1) 방송교육목표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방송교육목표의 적정성은 학교교육본부의 수능강의사업, 초·중학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 교재발간사업 등 5개 사업의 방송교육목표가 당해 연도 경영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개별 프로그램의 기획 및 배치에 교육목표를 적절하게 반영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요소로는 1. 교육목표의 당해 연도 경영목표와의 부합성, 2. 개별 프로그램 기획 및 배치에 교육목표 반영의 적절성이다.

나) 평가내역

① 교육목표의 당해 연도 경영목표와의 부합성

EBS의 2016년도 경영목표는 '인성·창의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이다.

수능강의사업의 2016년도 방송교육목표는 '종합적 입시정보 서비스 제공', '과견교사 확대 운영으로 학교 현장 연계 강화', '입시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수능강의 콘텐츠 제작', '수요자 중심의 학습지원 서비스 강화', '연구지원 확대를 통한 전문성 강화'이며, 초·중학교육사업의 방송교육목표는 '초·중학 강의 콘텐츠 영역별 확충'과 '초·중학 콘텐츠 활용 부가가치 창출 및 홍보 강화', 영어교육사업의 방송교육목표는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 내실화 및 공교육 보완', 수학교육사업의 방송교육목표는 '혁신적 수학콘텐츠 개발 및 이용률 제고', 교재발간사업의 방송교육목표는 '수능연계교재 완성도 제고'와 '신규 혁신 교재 기획·개발'이다.

이러한 방송교육목표들을 경영목표에 비추어 보면 '인성·창의 교육 강화'와 부합하는 목표는 찾아보기 어렵고, '스마트 서비스 구현'과 관련되는 목표 또한

‘종합적 입시정보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학습지원 서비스 강화’뿐이며, 두 번째 경영목표인 ‘명품 콘텐츠 확대’와 연관되는 목표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향은 교육에서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바는 아니나, 인성·창의 교육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방송교육에서 스마트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세 가지 경영목표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영어교육사업의 경우 방송교육목표는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 내실화 및 공교육 보완’이나,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6년 목표를 방송교육목표와 연계되는 세부목표로 별도 수립해 제시하고 있다. ‘① 교육과정 기반 실용 영어 콘텐츠 기획·제작’, ‘② 자기주도 학습 지원 및 수준별 맞춤 학습 사이트 운영’은 방송교육목표 중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 내실화 및 공교육 보완’에서 세부적으로 파생된 목표이며, ‘③ 교사와 소통을 통한 EBSe 콘텐츠의 교육 현장 보급계획’은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에서 세부적으로 파생된 목표로서, 보다 직접적인 사업 기획 및 진행을 위해 방송교육목표와 연계되는 세부 목표를 별도 수립해 제시하고 있다.

2016년도 전략목표로 제시한 ‘방송과 인터넷을 결합한 최적의 영어교육 환경 구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지역·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학교 교육 보완 및 영어교육 혁신’은 방송교육목표에 포함된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빠뜨리고 있다.

② 개별 프로그램 기획 및 배치에 교육목표 반영의 적절성

수능강의사업은 5개의 방송교육목표를 개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해 방송교육목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제공했다. 초·중학교교육사업도 교육목표인 ‘초·중학 강의 콘텐츠 영역별 확충’과 ‘초·중학 콘텐츠 활용 부가가치 창출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초등 〈만점왕〉 강의를 비롯한 학습콘텐츠 초등 581편, 중학 1,819편과 역사 창의·융합형 강의 등을 제공했으며, 2016년 경영목표의 하나인 ‘인성·창의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 생활 매너 백서〉, 〈대도서관 잡(JOB)쇼〉, 소프트웨어 양방향 웹 콘텐츠 〈헬로! EBS 소프트웨어!〉, 〈링크, 소프트웨어 세상〉를

제작했다.

영어교육사업은 초등 자기주도학습형 교과 기반의 학습 콘텐츠와 실생활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콘텐츠 등 영어 교과과정 연구 및 학년별 교과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영어학습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콘텐츠 분절을 통한 현장 수업 활용도 강화와 수준별 맞춤 서비스 및 접근성 강화 등 콘텐츠 활용도 강화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 내실화 및 공교육 보완’이라는 교육목표를 개별 프로그램에 적절하게 반영했다.

수학교육사업은 ‘혁신적 수학콘텐츠 개발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첫째, 초등 5~6학년 전 과정 동영상, 웹툰, 게임의 고품격 수학 콘텐츠를 개발했고, 둘째, 모바일 웹 론칭 및 SNS 접근성 강화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늘리고, 학생 및 교사의 활용 확산을 위해 포털 광고 및 SNS 활용 온라인 마케팅을 실시해 이용률을 제고했다.

교재발간사업은 ‘수능연계교재 완성도 제고’를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수능-EBS 연계교재 완성도 제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교재 집필기간을 늘리고 감수위원을 49명에서 250명으로 확대하는 등 오류 발생을 줄이고 교재 완성도를 높였으며, ‘신규 혁신 교재 기획·개발’을 위해 학습자의 학업성취도와 관심을 반영한 신규혁신교재 26책을 개발하는 한편, 교재 만족도 및 수요 조사를 통해 기존 시리즈 중 일부를 과감히 통폐합했다.

평가결과 및 제언

수능강의사업 등 5개 사업의 방송교육목표들을 경영목표에 비추어 보면 전체적으로 두 번째 경영목표인 '명품콘텐츠 확대'와 연관되는 목표가 대부분이며, '인성·창의 교육 강화'와 부합하는 목표는 찾아보기 어렵고, '스마트 서비스 구현'과 관련된 목표 또한 '종합적 입시정보 서비스 제공'과 '수요자 중심의 학습지원 서비스 강화'뿐이다. 그 외에 일부 사업의 경우 경영목표인 '인성·창의 교육 강화'와 '스마트 서비스 구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프로그램에서 이들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방송교육목표를 제시하고 방송교육목표를 개별 프로그램의 기획 및 배치에 반영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보인다. 교육에서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고려해 볼 때 거의 모든 목표가 '명품콘텐츠 확대'에 치중하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인성·창의 교육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방송교육에서 스마트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세 가지 경영목표를 보다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방송교육목표를 개별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전체적으로 인정되나 수능강의사업을 제외하고는 방송교육목표를 구체적으로 개별 프로그램의 기획 및 배치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며, 오히려 경영목표를 개별 프로그램에 반영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영어교육사업의 경우 자체적으로 정한 방송교육목표 외에 다른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해 방송교육목표와 혼동하고 있으며, 방송교육목표 중 '영어사교육비 경감'을 누락한 '지역·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학교교육 보완 및 영어교육 혁신'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영어교육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들이 같은 방송교육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개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교육방송 시스템

평가내용

1)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 연구조직 활용 및 대외협력의 정도

가) 평가기준

교육정책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설계 및 관리(교육 관련 부서와의 연계 등)를 위한 체계,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체 또는 상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외부 연구조직 및 그 과정이 확립돼 있는 정도 등을 평가한다. 평가요소는 1. 교육정책 등에 대한 중장기적 설계 및 관리(교육 관련 부서와 내·외의 부서 및 기관 등과의 연계 등)체계의 적정성, 2. 자체 교육방송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이다.

나) 평가내역

① 교육정책 등에 대한 중·장기적 설계 및 관리(교육 관련 부서와 내·외의 부서 및 기관 등과의 연계 등)체계의 적정성

EBS 설립목적인 학교교육 보완 및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교육 관련 부서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외부기관과의 연계 등을 통해 교육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EBS의 발전방향과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편성방향을 결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설계 및 관리가 필요하다.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수능과 EBS 강의의 연계 강화 및 수능 서비스 개선을 위한 'EBS-교육부' 회의를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EBS 수능 연계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했으며, 수시 협력 체제를 강화해 수능강의 서비스 개선과 수능 관련 이슈를 공동으로 관리했다. 또한 시·도교육청과 수능 모의고사 풀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으며, '교사시청자위원회'와 '시·도교육청장학사연구협의회'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수렴해 콘텐츠 개선에 반영했다. 그러나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2021학년도 수능체제개편 발표를 앞두고 있어 이에 대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

초·중학교육사업의 경우 교육방송시범학교를 방문해 교사와 학부모에게 콘텐츠 활용 안내와 학교 현장 활용설명회 및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창의·융합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전문가, 현직 교사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학 교육 콘텐츠의 중장기 기획 인력 및 개발 지원이 미흡하며, 정부정책과 밀접한 수능강의사업과는 달리 정부 지원과 교육부 관련 부서와의 협력 또한 미흡한 실정으로 초·중학생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현장 지원을 위한 콘텐츠 기획 개발 인력 및 추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영어교육사업의 경우 교육부 융합교육지원팀과 업무 협력을 위한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해 영어교육정책 및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및 홍보교사 회의, 찾아가는 EBSe 활용 설명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의 EBSe 콘텐츠 활용을 극대화하고 학교 교사들의 의견 청취 및 수용도 조사에 활용했다. 그러나 영어교육사업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해마다 줄어들어 예산 부족으로 중장기 개발 계획 및 대외협력 추진과 교과과정 기반의 수준별 대상별 맞춤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

수학교육사업의 경우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시·도교육청과의 공동 협력으로 수행되는 EBS Math 사업특성상 해당 기관과의 협력과 교류를 활발하게 추진했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EBS Math 활용 확산과 관련해 EBS Math 활용설명회 및 수학체험전 참가, 가정통신문 발송, EBS Math 자문위원회, EBS Math 장학사협의회, EBS Math 담당 중학교 및 초등학교 수학교사 연수 등 긴밀히 협력했다. 그러나 수학교육사업의 경우도 EBS Math 사업에 대한 정책 변화 및 예산지원 규모의 감소 등으로 수학교육사업을 당초 목표대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 수학교육사업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학교현장과 밀접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수학분야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유지·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표 21> 기관별 주요 업무 내용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방향 설정 및 사업 총괄관리 • 특별교부금 확보 • 관련 기관 기초협력 체제 구축 	EBS(한국교육방송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 • 인터넷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EBS Math 홍보 및 활용 확산 추진
한국과학창의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콘텐츠 개발 자문 • EBS Math 활용 확산 지원 (ICT 교사 연수) 	시·도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교부금 교부 • 교육현장 의견 수렴 및 운영 지원 • EBS Math 활용 확산 협력 및 지원

교재발간사업의 경우 수능 70% 연계정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했으며, 특히 2015년에 교육부, 평가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수능-EBS 연계교재 완성도 제고 종합 대책안’을 2016년부터 전면 적용해 개발 수능연계교재의 품질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했다. 재택감수 도입 및 감수기간 확대(5주→7주) 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감수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했으며, 평가원과 공동으로 집필 및 검토 지침서를 개발하고, 평가원과 공조해 EBS 집필진 전문성 향상 연수를 실시했다. 과목별 감수위원회 및 연계교재 집필방향협의회와 교육청 및 평가원의 추천을 받은 학계 전문가로 교재정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함으로써 교재의 완성도를 높이고, EBS 수능연계교재의 개발 기초와 대입 수능 및 모의고사의 방향성 일치를 기했다.

교육방송연구소(미래교육연구소)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학술정보원 등 교육 관련 기관과의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와 정보공유를 위한 정보공유체제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했으며, 교육청 및 연구기관과의 정기협의회 및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② 자체 교육방송연구소의 전문성 확보 및 활용 정도

교육방송연구소의 인력은 소장을 포함해 총 8명으로(2016년 12월 말 기준) 전년도에 비해 연구인력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방송·경영 분야 연구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각 연구가 전략제시와 시장·현

업 밀착형으로 진행되도록 수행 과정에서 유관부서 담당자의 연구 참여와 현업 부서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연구의 활용도를 제고했다.

연구주제 및 관련 업무를 위해 유관 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해 교육방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연구 네트워킹을 강화했으며, ‘교육방송연구대회’와 ‘EBS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EBS 콘텐츠의 활용도를 증진시키고, 외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긴밀히 했다.

연구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방송실무(PD) 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을 연구 인원으로 확충했고, 현업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해 EBS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위해 연구 방향을 설정했다. 방송 및 교육 유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와 ‘교육방송연구대회’ 및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현장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했다. 그러나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의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송, 관련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며,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자체 연수를 확대하고, 외부 유관기관 견학, 학회·세미나 참가 등을 통한 글로벌 동향 파악 및 정보 수집을 위한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

2)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시 방송교육목표의 반영 정도

가) 평가기준

프로그램 기획 또는 제작 시 교육목표 설정을 위한 체계가 명확하게 구성돼 있는지, 교육목표 달성에 관한 사후평가가 존재하는지 평가한다. 평가요소는 1.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시 설정한 교육목표의 명확성, 2.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과정과 절차, 방법의 교육목표 적합성 및 실천 정도, 3.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체제의 구축 및 실천 정도이다.

나) 평가내역

①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시 설정한 교육목표의 명확성

수능강의사업은 EBS 수능강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송교육목표인 '입시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수능강의 콘텐츠 제작'과 '수요자 중심의 학습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학습자 수요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커리큘럼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으며, Focus Group을 통해 학생과 교사의 의견과 개별 강좌 및 커리큘럼에 대한 평가를 수렴해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세부 프로그램의 학습목표를 명시하기 위해 학습 대상, 강좌 기획 의도, 제작 가이드라인 등을 토대로 해당 콘텐츠의 성격을 정의하기 위한 '콘텐츠 기획서'를 작성해 프로그램 제작 지침화하는 등 교육목표를 명확히 했다.

방송교육목표인 '초·중학 강의 콘텐츠 영역별 확충'과 '초·중학 콘텐츠 활용 부가가치 창출 및 홍보 강화'를 구현하기 위해 콘텐츠 기획 또는 제작 시 현직 교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자기주도학습이 가능하도록 수준별 강의를 개발·제작했다. 교과별 전문 검수요원이 콘텐츠 내용에 대한 적절성 및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월 단위 사이트 이용률 및 다운로드 횟수와 월 단위 콘텐츠별 히트 수 분석 및 수요자 반응 조사 등을 실시해 콘텐츠 제작에 반영했다.

영어교육사업의 방송교육목표인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를 위해 영어 사교육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과 지역 학생들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제작해 제공했다.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 내실화 및 공교육 보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성인 실용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해외 유명 프로그램 <Sesame Street>, <Nina & The Neurons> 등을 방영하고, 영어를 다시 시작하는 청소년·성인 기초 학습자를 위한 <왕초보 영어>를 기획·제작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기획·제작 시 주 시청 대상, 학습수준, 학습내용 등을 명확히 설정해 진행했으며, 프로그램의 기획의도 및 제작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프로그램의 학습목표를 명시하기 위한 '제작계획서'를 활용했다. 그러나 예산 부족으로 인한 단계별·영역별 커리큘럼 세분화 작업 미비, 소외 계층 중 다문화, 탈북, 아동·청소년을 위한 콘텐츠 미비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수학교육사업의 방송교육목표인 '혁신적 수학콘텐츠 개발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 및 내용회의 시에 수학과 또는 수학교육과 교수와 현직 중학교 수학교사들이 참여했다.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교육이 STEAM²³⁾ 및 융합

형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역사·예술·과학·실생활과 연계된 수학학습이 가능하도록 콘텐츠를 구성하고, 제작 완료된 콘텐츠들은 EBS Math (www.ebsmath.co.kr)를 통해 현직 교사들이 예습 또는 복습 시에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표준교과과정에 입각한 콘텐츠로 학교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였고, 연령대가 낮은 사용자들도 친숙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카드형 UI/UX²⁴⁾를 채택한 사이트 리뉴얼과 모바일 웹을 통한 모바일 이용 확대 등 이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 확대에 노력했다.

②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과정과 절차, 방법의 교육목표 적합성 및 실천 정도

방송교육목표인 ‘입시변화에 맞춘 혁신적인 수능강의 콘텐츠 제작’과 ‘수요자 중심의 학습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 이용 현황을 분석하고, 학습자 FGI²⁵⁾, 제작진(출연강사, 교재 기획자, 제작CP) FGI 등을 통해 학습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했다. 변화하는 입시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 출연강사, 제작진 등 내부 의견 수렴, 학습자 수요 조사 및 분석(위탁 연구조사, FGI 등), 2016년 피드백 및 2017년 방향 설정, 기본 방향 및 차별화 전략 수립, 초안 마련 및 관계자 협의, 연간 커리큘럼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방송교육목표인 ‘초·중학강의 콘텐츠 영역별 확충’과 ‘초·중학 콘텐츠 활용 부가가치 창출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콘텐츠 기획 또는 제작 시 현직 교사, 전문가 등이 참여해 콘텐츠 제작목표의 적정성을 평가했으며, 교과별 전문 검수요원의 영상검수를 통해 콘텐츠 내용에 대한 적절성 및 적합성을 검토했다. 그리고 정기적인 콘텐츠 평가회의를 통해 콘텐츠의 질 관리에 노력했으며, 창의·융합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통한 공교육 보완을 위해 초·중학 교과 커리큘럼 및 방과 후 활동

23) 미국은 1990년대부터 융합 인재 교육의 영문 표기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며, 이를 가장 먼저 도입했다. 2006년에는 미국 버지니아 주 기술교육협회장인 조젯 야크만(Georgette Yakman)이 STEM에 예술(Art)을 포함한 STEAM을 제시하면서 디자인 분야와 과학 기술의 ‘융합 인재 교육’을 강조해왔다.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서 이러한 교육 방식을 본받고 있다.

24) UI/UX(User Interface / User eXperience,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경험)의 약자로 UI는 사용자와 시스템 정보 등을 교환하기 위한 ‘접점’을 의미한다. 좀 더 대상을 명확히 하자면, HMI(Human Machine Interface)로 기술될 수 있다. 또한 웹 등의 화면 인터페이스는 GUI(Graphical User Interface)도 표현된다. 이에 비해 UX는 ‘사용자가 무엇을 경험 하는가?’의 관점을 말하며,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를 문제 삼고 있다. 사용자 관점에서 UI는 기능을 말하며, UX는 결과를 가리킨다.

25) FGI(Focus Group Interview) : 소수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를 통해 정보를 찾아내는 소비자 면접조사

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했으며, Q&A 질의응답시스템을 통해 강의에 대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영어교육사업의 방송교육목표인 '영어 사교육비 경감 및 지역·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 해소'와 '실생활 중심의 영어교육 내실화 및 공교육 보완'을 위해 EBSe 프로그램 기획·제작 과정에 파견교사 및 현직교사가 참여하고, EBSe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수학교육사업의 방송교육목표인 '혁신적 수학콘텐츠 개발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 『수학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1-361호)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된 세부 아이টে에 대해서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 현직 초·중학교 교사들의 자문 및 감수를 받았으며, 제작 과정에서도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와 현직 중학교 교사들이 기획회의와 원고회의 등에 참여해 교육과정에 맞도록 원고 검토 및 수정작업을 병행했다.

③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체제의 구축 및 실천 정도

수능강의 콘텐츠 경쟁력 향상을 위해 EBS 수능강의 출연강사 전체를 대상으로 강의 이용 현황 및 제작진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EBS 수능강의 강사평가'를 연 1회 실시했으며, 주간 사이트 이용률 및 회원 가입 현황 분석을 매주 1회 실시했다.

서비스 활용도를 분석해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콘텐츠 이용 고객 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EBS 초·중학교교육 콘텐츠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했으며,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건수 등 각 콘텐츠별 이용률을 IT운영부 통계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EBS 영어채널사업 프로그램 평가를 위해 매주 프로그램별 히트 수 분석, 상·하반기 EBSe 담당 장학사 및 홍보교사 회의, 자문회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CSR 및 EBSe 사이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프로그램 평가를 실시했다.

프로그램 제작완료 시 수학 및 수학교육과 교수와 현직 중학교 교사들의 검수 작업을 실시하고, 제작 콘텐츠 및 사이트 이용의 효과성 및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문 연구진 및 일선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시행했다.

3)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노력 및 성과

가) 평가기준

교육 콘텐츠 확보와 개발을 위한 조직, 부서, 인원의 구성 및 배치, 예산집행 등을 평가한다. 평가요소로는 1.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2.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자원 확보 정도는 어떠한가? 이다.

나) 평가내역

①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계량평가에 해당하는 교육 콘텐츠 제작에서 수능강의사업은 목표 17,278편의 106.3%를, 초·중학교육사업은 목표 2,561편의 100.78%를, 영어교육사업은 목표 4,139편의 148.9%를, 수학교육사업은 목표 121편의 171%를 제작해 모두 목표를 달성했다. 교재개발사업의 경우도 목표 215책의 102%를 개발해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학교현장과 학생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고, 교과별로 학습 유형을 강의에 적극 반영해 내신 및 수능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입시정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대입정보의 지역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

초·중학교육사업도 전체인력을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투입해 초·중학교육 콘텐츠 2,581편을 제작했으며, 특히 수요자 요구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콘텐츠와 학교현장 요구에 맞춘 창의·융합형 콘텐츠를 제작했다.

영어교육사업은 교과서 저작권 확보를 통해 학교 수업 현장에 활용 가능한 클립형 콘텐츠 등 실용성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EBSe 홍보교사, 활용우수학교 담당 교사 자문회의를 통해 교과영어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영어 사교육 혜택이 어려운 지역 및 학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다문화, 탈북,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가이드 자료 부족 등 영어 사교육 혜택이 어려운 지역 및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학교육사업은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2009년 개정 수학교육과정'에 따라 수학과 및 수학교육과 교수,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기획 및 제작 과정에 참여해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 요구되는 고품질의 다양한 수학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에는 제작비가 부족하며,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생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었으나, 향후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등학생 등 서비스 대상자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교재발간사업은 수험생의 학습부담 경감과 정부의 '쉬운 수능' 정책 기조에 부응하기 위해 수능연계교재의 경우 '수능-EBS 연계교재 완성도 제고 종합대책안'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충실한 기본 개념 및 원리 설명에 집중해 다양한 난이도와 유형의 문항을 개발했다. 비연계교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재만족도 조사, 총판·학교 방문조사, 일본·싱가포르 서점 실사와 교재 제작 프로세스에 프로토타입 제작 과정을 신규 도입해 기획의도가 교재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는 등 기획·개발 시스템을 개선했다.

②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 자원 확보 정도는 어떠한가?

수능교육사업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5년에 예산이 줄어 EBS 수능강의의 콘텐츠 및 주요 서비스가 축소되었으며, 그 결과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및 개선을 요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다행히 2016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나, 수능강의 제작편수와 자막서비스는 늘어났으나, Q&A서비스는 오히려 감소했다. 다른 사업들도 예산과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초·중학교교육사업의 경우 초·중학 교육 콘텐츠의 증장기 기획, 교과과정을 충실히 반영한 콘텐츠 제작, 학교현장 활용 교사 자료 제공 및 사이트 활용도 제고를 위해 상시 근무하는 교육콘텐츠매니저²⁶⁾(CM) 인력이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해당 인력이 전무하며, 학교현장 활용이 가능한 방송 프로그램 개발 및 이를 활용한 교사 자료 등 교육 자료를 추가 생성해야 하나, 프로그램 제작비 외 추가 투입 예산과 인력이 전무해 교육청 파견교사 인력을 활용, 부분적으로 교육 자료를 생성했다.

26) CM, Contents Manager

영어교육사업도 EBS 영어채널의 설립 목표에 따라 영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과과정 기반의 콘텐츠(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서는 전문 교수설계자의 콘텐츠 연구가 필요하지만, 2011년 이후 매년 특별교부금 예산 삭감으로 현재의 프로그램 제작비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수학교육사업도 특교 지원 축소로 현재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지정된 학년(2016년 초등 5·6 학년) 학습 과정 전체를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수학학습 콘텐츠를 학생들이 즐겨하는 본격적인 형태의 게임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4) 제작 직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가) 평가기준

제작 직원이 교육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신입사원 채용 시 교육학적 전문성에 대한 고려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 등의 실시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요소로는 1.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정도, 2. EBS 직원의 전문적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실적, 3. 신입사원 채용 시 교육학적 전문성에 대한 학력 및 경력 고려 정도, 4.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학적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정도이다.

나) 평가내역

① 제작 직원의 교육전문성 정도

제작 직원 69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6명(수능교육부 1, 수능교재기획부 5)으로 8.7%이며, 석사학위 소지자는 16명으로 23.2%, 학사학위 소지자는 47명으로 약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초·중학교육사업, 영어교육사업, 수학교육사업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가 없으며, 영어교육사업의 경우 교육 관련 전공자는 없으나 교사자격증 소지자 2명이 있다. 교육 관련 전공자는 25명(36.2%)으로 그 중 대부분이 수능교재기획부에 있으며, 교사자격증 소지자 27명(39.1%) 중 21명이 수능교재기획부 소속이다. 이는 교재발간사업의 경우 학교교육 보완 및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EBS 수능강의 연계정책의 원천 콘텐츠인 고교 학습용 교재

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연계교재의 경우 2010년 교육부·평가원과 EBS가 체결한 MOU에 따라 수능에 70% 연계되고 있고,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 학습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점에서 오류 없는 완성도 높은 교재 개발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비연계교재의 경우에도 교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 니즈를 반영한 양질의 교재를 개발했으며, 수능 뿐 아니라 학교시험까지도 사교육 없이 EBS만으로 자기주도학습을 해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경력별로는 5년 미만인 29명(42.0%), 5~15년이 18명(26.1%), 15~25년이 19명(27.5%), 25년 이상 경력자가 3명(4.3%)으로, 5년 미만 경력자가 42.0%로 가장 많고, 5~25년 경력자가 37명(53.6%)으로 중추를 이루고 있다. 영어교육사업의 경우 5년 미만 경력자가 14명 중 1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재발간 사업의 경우에는 5년 미만 경력자가 34명 중 18명으로 과반을 넘고 있다.

② EBS 직원의 전문적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및 운영 실적

직원의 전문적 능력 개발을 위한 2016년 교육프로그램은 가치공유 과정, 리더십 과정, 직무역량 과정, 전략 과정, 기타지원 과정 등 5개 전문 영역별, 5개 레벨로 세분화해 전사 교육체계를 수립해 추진했다. 특히 구성원의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직무역량 과정에 가장 많은 예산을 반영해 집중 지원했으며, 성과 창출기반 마련을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선제적 문제 해결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R&D 연수 지원과 직무전문 과정을 통해 구성원의 업무 전문성 및 조직경쟁력을 강화했다.

<표 22> 직무역량 영역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적(단위 : 명, 시간, 천원)

영역	세부 영역	교육 인원	교육 시간	교육 비용
직무역량	직무공통교육	71	640	16,000
	직무전문교육	806	9,801	133,761
	합계	877	10,441	149,761

장기근속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107명의 직원에게 근속 연수에 따라 5~14일의 자율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연수비를 지원했다.

대학원 및 전문가 과정으로 국내 대학원 석·박사 학위취득 지원 5명 등 모두 13명을 지원했다.

<표 23> 대학원 및 전문가 과정 지원 실적

구분	세부 과정	대상 및 인원
상위학위	국내 대학원 석박사 학위 취득 지원	총 5명
최고위 과정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	임원급 1명
산학정책 과정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30기 산학정책 과정	부서장급 1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제31기 산학정책 과정	부서장급 1명
위탁파견연수	경찰대학교 제33기 치안정책 과정	부장급 1명
	경찰대학교 제34기 치안정책 과정	부서장급 1명
	국방대학교 안보 과정	부장급 1명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 과정	부장급 1명
	통일교육원 통일미래지도자 과정	부장급 1명

각 사업별로는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학습조직 운영과 수능강의 사업 고도화를 위한 워크숍 실시 2회, 수능강의 연간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집중 워크숍 실시 1회,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에 5회에 걸쳐 8명이 참여했다.

영어교육부의 경우 재직 직원 직무연수를 실시했으며, 수학창의교육부에서는 학술 문헌, 국내·외 동영상 트렌드, 강의 모델, 동향 등 다양한 시사연구 워크숍을 정례화해 연중 2회 1박2일로 커리큘럼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집중연수를 실시했다.

수능교재기획부에서는 수능연계교재 완성도 제고 종합대책에 따른 연계교재 프로세스 안내 워크숍과 비연계교재 개발을 위한 기획 워크숍을 실시했고, 출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일본 학습서 출판 트렌드 분석 및 출판 모델 조사와 싱가포르 수학교과서 등 우수 수학 출판물 사례 분석을 실시했다. 그리고 교재개발담당자 직무역량강화연수를 2회 실시했다.

③ 신입사원 채용 시 교육학적 전문성에 대한 학력 및 경력 고려 정도

신입사원 채용 시 교육학적 전문성 확보에 관해 세부적으로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채용 과정에서 교육 관련 기본 소양 및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

와 평가를 통해 신입사원을 선발했으며, 2016년도 신입사원 채용에서는 중등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교직 경력자, 중등교재 전문 편집자 등 다양한 교육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신입사원을 채용했다.

<표 24> 2013년, 2014년, 2016년 신입직원 전공 및 학위

연도	분야	전공 및 학위
2013년	PD	신문방송학 학사(4), 경제학 학사(1), 생명과학 학사(1)
	방송기술	전기전자컴퓨터공학 학사(1), 정보통신전자공학 학사(1), 전자공학 학사(1)
	카메라	영화학 학사(1)
	경영	디자인경영 석사(1), 법학전문대학원 석사(1), 교육학 학사(1), 경제학 학사(1), 국제경영 석사(1)
2015년	PD	미학 학사(1), 영어영문학 학사(2), 방송영상학 학사(2) 정책학 학사(1), 인지과학협동학 석사(1)
	기자	불어교육학 학사(1), 정치외교학 학사(1)
	카메라	영화영상학 학사(1)
	컴퓨터그래픽	영상애니메이션 학사(1)
	교재개발	사회학 학사(1), 영어교재개발학 석사(1),
	모바일/웹기획	신문방송학 학사(1), 멀티미디어학 석사(1)
	방송기술	전자전기공학 석사(1), 정보통신공학 학사(1), 전기전자공학 학사(2),
	경영	경영학 학사(2), 문헌정보학 석사(1), 행정학 학사(1) 중국어학 학사(1)
2016년	PD	국어국문학 학사(1), 경제학 학사(2), 언론정보학 학사(1)
	기자	국어국문학 학사(1)
	방송기술	전자전기공학 학사(2), 금속시스템공학 학사(1) 멀티미디어공학 학사(1)
	카메라	영화영상학 학사(1)
	세트디자인	동양화학 학사(1)
	컴퓨터그래픽	애니메이션학 학사(1)
	해외사업	다큐멘터리 석사(1)
	교재개발	거시문법교육 석사(1), 일반사회교육학 학사(1), 생물교육학 학사(1)

최근 채용된 신입사원들의 교육학적 전문성을 살펴보면 2013년 신입사원 15명 중 교육학 전공은 학사 1명, 2015년에는 신입사원 24명 중 불어교육학 학사 1명과 영어교재개발학 석사 1명, 2016년에는 신입사원 16명 중 일반사회교육학 학사 1명과 생물교육학 학사 1명이다.

④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학적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정도

신입사원 연수는 교육방송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 및 미디어 전반에 관한 심

화 내용 등으로 구성·진행했다. 특히 평생교육, 학교교육, 유아·어린이교육 등 EBS의 주요 역할 및 핵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별 교육을 담당 부서장 및 부장이 직접 교육자료를 구성하고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신입사원의 교육학적 전문성 신장 및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했다.

5) 참여자들의 교육전문성 제고 정도

가) 평가기준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프리랜서 PD 등)나 감수자가 기관의 교육목표와 편성 의도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활용되고 있으며, 참여 후 이들의 의식·인지 평가 및 추후 반응을 위한 시스템(DB)이 구축돼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요소로는 1.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프리랜서 PD 등)나 출연자 선정 시 교육전문성 고려 비중, 2. 제작 직원,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감수자가 기관 교육목표와 편성의도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활용 정도, 3. 프로그램 참여 후 이들의 의식·인지도 평가 및 반응을 위한 시스템(DB) 운영 정도이다.

나) 평가내역

①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프리랜서 PD 등)나 출연자 선정 시 교육전문성 고려 비중

학교교육본부의 모든 부서에서 직원과 프리랜서 PD 등 프로그램 참여자나 출연자 선정 시 공모를 통해서 서류심사, 카메라테스트, 면접 등 2~3단계를 거쳐 선정했다. 선정 기준에는 교육에 대한 이해, 해당교과에 대한 전문성, 해당 교과에 대한 이해 및 경험, EBS 학습콘텐츠에 대한 이해 정도, 해당분야 학력 및 경력, 교직 경력 및 교육 콘텐츠 제작 경험 등 교육전문성을 비중 있게 고려했으며, 일부 사업의 경우 그 사업 특성에 필요한 전문성에 가중치를 부여해 전문성을 갖춘 참여자를 선정했다.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교과전문제작자(ECD)²⁷⁾ 선발 시 교육 콘텐츠 제작경험, 교육에 대한 이해, 해당교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를 높은 비중으로 평가했으

27) ECD : Educational Contents Director, 교과전문제작자

며, 강사는 해당 교과에 대한 전문성 구비를 필수적으로 고려했다.

영어교육사업은 사업 특성상 프로그램 참여자의 언어 사용의 적절성(표준어, 품위 유지 등), 공정성과 균형성, 객관성 유지, 준법정신 고취 등을 강조하고, 출연자 공모 시 교직 경력 및 교육 콘텐츠 제작 경험에 가중치를 두었으며, 수학교육사업은 수학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을 가진 참여자만 프로그램 기획·제작에 참여시켰다.

교재발간사업은 특히 해당교과에 대한 이해 등 교육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므로 교재 개발 참여자의 자격요건을 엄밀하게 설정하고, 역량 검증 시스템을 활용해 전문성 있는 참여자를 선정했다. 수능연계교재의 대표집필자는 전문성 있는 교수급(박사학위) 저자로 초빙하고, 수능연계교재 집필자는 석·박사 학위 소지자가 다수이며 대부분 평가원 및 교육청 출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했다. 신규 집필자는 샘플원고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교재 검토자는 샘플 교정지 검토 테스트, 온라인 사전 검토(CBT²⁸) 등의 검증 절차를 거쳐 내용 오류 검토자와 단순 오탈자 검토자로 자격 요건을 분리해 선발했으며, 내용 오류의 경우 초·중·고·대학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및 대학 강사 등으로, 단순 오탈자의 경우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으로 구성해 교재의 정확성을 높였다.

② 제작 직원,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감수자가 기관 교육목표와 편성의도 등을 이해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활용 정도

각 사업부서별로 워크숍 및 교육, 매뉴얼을 활용한 교육, 오리엔테이션, 출연자 회의·콘텐츠 제작자회의·기획회의·원고제작회의·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내용 선정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목표와 편성의도 등을 주지시키고 공유했다.

수능강의사업은 직원, 참여자, 감수자들이 고교 강의 제작 목표와 편성의도 공유를 위해 영역별 워크숍 및 교육에 참여했으며, 프로그램 제작의 목표와 교육적 책임성을 담은 제작매뉴얼을 배포, 모든 참여자가 숙지토록 해 교육전문성 제고와 교육목표를 명확히 했다.

초·중학교육사업은 신규강사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EBS 학습콘

28) CBT : Closed Beta Test, 게임이나 소프트웨어를 정식 서비스 하기 앞서 비공개로 하는 베타 테스트

텐츠 제작방향 공유 및 방송강의 제작 시 유의점 및 강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프리랜서 PD, 작가진의 콘텐츠 이해를 위해 매주 1회 해당 과목별 회의를 개최했으며, 자문교사와 수시 온라인 접촉을 통해 목표를 공유했다.

영어교육사업은 출연자회의, EBSe 콘텐츠 제작자회의, 자문회의,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목표, 편성의도, 교육 정책 변화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공동 시사 후 CP 및 다른 프로그램 PD의 의견을 제작에 반영, Q&A, CSR 등을 통한 시청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후 관리를 했다. 수학교육사업은 아이템 선정 및 기획회의, 원고제작회의를 진행하면서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용어와 표현, 설명방법 등을 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자료를 교수와 교사들 간에 공유함으로써 오류 최소화 및 참여자들의 콘텐츠 제작목표 인식을 제고했다.

교재발간사업은 연계교재 집필진 문항전문성 신장 연수를 통해 수능 문항에 준하는 EBS 교재문항 개발을 위한 집필진의 출제 전문성을 향상했다. 수능연계를 위한 문항 개발 및 검토 전문성 신장을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²⁹⁾) 연구위원이 교과별 출제 기초, 출제 주안점, 교육과정 관련 유의점 등의 연수를 실시했다. 그리고 교재 집필 착수 전 내용선정협의회를 통해 교재 개발 계획안 및 세부 지침 자료를 개발 참여자와 공유하고, 교재 개발 과정에서도 합숙 검토회의 등 수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교육목표와 기획의도를 충분히 알렸으며, 평가원과 공동으로 집필 및 검토 지침서를 제작해 활용함으로써 교재 개발 의도와 방향을 참여자와 효과적으로 공유했다.

③ 프로그램 참여 후 이들의 의식·인지도 평가 및 반영을 위한 시스템(DB) 운영 정도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수능 출연 강사는 연 1회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실시해 평가 점수가 낮은 일부 강사는 다음 강의 배정을 제한했으며, 프리 PD 평가는 6개 영역 CP별로 정성평가를 실시했다.

초·중학교육사업은 출연 강사에 대해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평가를 통해 다음 출연 여부를 결정하고, 출연자 및 콘텐츠 개발기획 참여자는 해당 콘텐츠 제작 완료시 평가했다.

2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KICE, Korea Institute of Curriculum & Evaluation

수학교육사업의 경우 수학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전문가나 제작진 등 참여자 평가는 제작 완료 후 콘텐츠 공동 시사 및 학생과 교사·학부모 등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이용자 피드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또한 EBS Math (www.ebsmath.co.kr) 사이트의 이용 건수가 매일 통계자료로 공유되며, 이를 바탕으로 매 사업기간마다 콘텐츠 유형별 이용 건수의 증감 추이 및 콘텐츠별 이용 건수, 이용 행태의 변화 등을 통해 수학교육 콘텐츠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했다.

교재발간사업은 수능연계교재 품질의 중요성을 고려해 교재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오류 발생 개수를 교재 개발 참여자를 평가하는 주된 기준으로 설정했다. 교재 오류 발생 시 페널티 조항을 적용해 오류 건수에 대한 집필료, 검토료, 편집료를 차감하고 향후 교재 개발 시 참여를 제한했다. EBS 교과위원이 작성하는 교재개발완료보고서에 개발 참여자들의 태도 및 목표 공유 수준에 대한 평가를 포함했으며, 평가결과는 향후 인력을 구성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교재 참여자의 성과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실시했다. 이러한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2016년 5월 <2017학년도 수능특강 스페인어 I> PDF 제본교재(강의노트) 일부가 인쇄소 착오로 인해 2017학년도가 아닌 2016학년도 내용으로 제작, 유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프로그램 참여 후 이들의 의식·인지도 평가 및 반영을 위한 시스템(DB)은 수능강의사업의 ECD 인력 풀이 있으나, 영역별 ECD 총 인원이 31명으로 수능강의 제작 콘텐츠 질에 있어 핵심적 협력인력인 ECD 인력 풀 관리 및 육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5> 영역별 ECD 현황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대학별	합계
4	4	8	7	6	2	31

6) 매체별 전문성 확보와 상호 연계성 제고 정도

가) 평가기준

다양한 채널을 보유하고 있는 EBS의 특성에 맞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이러한 독립채널이 가지고 있는 교육 노하우 등의 상호 협조를 위한 체제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요소로는 1. 제작 과정에서 각 매체별 상호 보완 체제를 고려한 정도와 2. 제작 과정에서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민주교육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고려한 성과이다.

나) 평가내역

① 제작 과정에서 각 매체별 상호 보완 체제를 고려한 정도

지상파(1TV, 2TV), 유료방송 플랫폼(EBS 플러스1·2, EBS English), FM 라디오 등 각 매체별 주요 특성 및 주 시청 대상을 반영해 지상파 1TV는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 등 전 연령대 대상 평생교육 채널, 지상파 2TV는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보완과 외국어 교육채널, FM 라디오는 외국어 및 독서교육 중심 평생교육 채널, EBS 플러스1은 고등학생 대상 학교교육 보완, EBS 플러스2는 초·중학생 대상 학교교육 보완 및 성인 대상 직업교육, EBS English는 영어학습 전문 채널로 채널 정체성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또한,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위성방송과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지상파 TV방송 간의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위해 EBS 플러스1·2 및 EBS English 채널의 학교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은 지상파 1TV·2TV에, 지상파 1TV의 유아·어린이 인성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EBS 플러스1·2 및 EBS English 채널에 교차편성하고, 1TV와 2TV간에도 학교교육 보완 및 통일 프로그램 등을 교차 편성하는 등 연간 약 200건의 교차편성을 실시함으로써 채널 간 콘텐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표 26> 2016년 채널 간 교차편성 유형 및 건수 현황

기간	교차 유형		교차편성 건수	계
	주매체	부매체		
2016년	EBS 1TV	EBS 2TV	23	200
		EBS 플러스1	4	
		EBS 플러스2	10	
	EBS 2TV	EBS 1TV	7	
		EBS 플러스1	1	
		EBS 플러스2	3	
		EBS English	11	
	EBS 플러스1	EBS 1TV	4	
		EBS 2TV	10	
		EBS 플러스2	6	
		EBS English	7	
	EBS 플러스2	EBS 1TV	18	
		EBS 2TV	25	
		EBS 플러스1	8	
		EBS English	11	
	EBS English	EBS 1TV	2	
		EBS 2TV	49	
		EBS 플러스2	1	

② 제작 과정에서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민주교육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고려한 성과

지상파(1TV, 2TV), 유료방송 플랫폼(EBS 플러스1·2, EBS English, FM 라디오 등) 각 매체별 특성에 따른 채널별 차별화 전략을 통해 EBS의 설립목적인 학교교육 보완과 국민의 평생 교육 구현 및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시대변화에 맞춰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매체별 차별화 전략과 더불어 일부 채널 간 중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상호 교차편성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으며, EBS 설립목적을 기반으로 경영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결해 아래와 같이 EBS의 다양한 채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실현했다.

<표 27> 채널별 주요 편성목표

구분	주요 편성목표	비고	
지상파	EBS 1TV	■ 평생교육 및 인성창의 교육	Broadcasting의 특성 고려한 범용적 콘텐츠, EBS 브랜드 가치 제고, 시청률 견인
	EBS 2TV	■ 사교육비 절감 및 공교육 보완 ■ 외국어 학습	
	EBS FM	■ 독서교육 및 외국어 교육	
위성	EBS 플러스1	■ 대수능 및 고교 학습	채널별 목표 시청자 대상 콘텐츠 및 교육3주체 대상 콘텐츠 강화
	EBS 플러스2	■ 초중고 학습 및 직업교육	
	EBS English	■ 영어 교육	
인터넷 / 1인 방송	ebs.co.kr ebsi.co.kr ebse.co.kr EBS 육아학교 Pin	■ 방송 플랫폼과 연계 ■ 동영상 콘텐츠와 타깃별 각종 세부 정보 제공(학습법, 입시정보, 육아정보 등)을 통한 One Stop 교육정보 포털화	온라인 특성 고려, 다양한 상세 부가 정보 (narrowcasting)

그러나 제작 과정에서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민주교육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고려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확히 평가하기가 어렵다. “유기적 연결이라 함은, EBS는 법에 명시된 설립목적에 기반해 경영목표를 설계하고, 그 경영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편성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유기적인 연결에 관한 구체적인 형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정확한 평가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표 28>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및 편성목표

설립목적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구현	민주적 교육발전
↓ ↓ ↓			
경영목표	창의인성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
↓ ↓ ↓			
편성목표	미래 인재 교육 콘텐츠 강화	콘텐츠 경쟁력 제고	미디어 환경 변화 적극 대응

7) 출판부문 외주의 전문성 및 관리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교육 관련 출판물의 집필진과 편집외주사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제작한 교재와 출판물들이 다른 교재 및 출판물들과 비교해 질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요소는 1. 출판물 제작 집필진과 편집외주제작사가 EBS 교육이념을 숙지하고 있으며, 제작한 출판물이 EBS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과 시스템 운영 현황과 2. 교육 관련 출판물 제작 외주사들의 전문성 정도, 제작한 교재들의 타사 교재출판물들과 비교한 질적 우수성 및 경쟁력 정도이다.

나) 평가내역

① 출판물 제작 집필진과 편집외주제작사가 EBS 교육이념을 숙지하고 있으며, 제작한 출판물이 EBS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과 시스템 운영 현황

EBS 교재는 기획 단계부터 EBS의 교육이념 실현을 위해 내부 기획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EBS 교재 집필 지침을 공유하고, 집단 지성을 활용해 교재의 질을 높였다. 수능연계교재의 경우 최대한 수능의 출제 방향에 맞도록 각 교재별로 KICE와 '내용선정협의회'를 실시하는 등 긴밀히 협력했다. 집필진이 정해지면 EBS-수능연계정책의 취지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있음을 숙지하도록 했으며, 전체적인 내용 점검 및 작업 상태의 평가는 내부 인력인 교재개발자 및 편집 담당자가 밀착해 진행함으로써 EBS 기획의도 및 목표의 달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했다.

중·고교 일반(비연계)교재는 직영출판물로 편집에 있어서 편집 대행사를 활용한다는 것에 차이가 있으나, 수능연계교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초·중학 교재의 경우 교육과정과 교육정책 및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기 주도학습을 강화한 신규 시리즈, 영어·수학 특화교재 등 다양한 컨셉의 신규 교재를 기획·개발해 학습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했다.

제작한 출판물이 EBS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수능

교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교재기획 및 개발에 반영했으며, 교재 발간 전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EBS 교육이념에 배치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를 철저히 차단했다. 특히 수능연계교재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종 감수를 거친 후 발간했다.

<표 29> 내부 교과위원의 전공 및 학위

연번	소속	세부	성명	담당 교과	전공	학위
1	수능교재기획부	출판기획팀	이00	국어	국어교육	석사
2	수능교재기획부	출판기획팀	윤00	수학	수학교육	석사
3	수능교재기획부	출판기획팀	김00	과학	물리학	석사
4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김00	국어	현대소설교육	석사
5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이00	국어	국어국문학	학사
6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허00	국어	국어교육	학사
7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남00	수학	수학	박사
8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최00	수학	수학	박사
9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이00	영어	영어영문학	석사
10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양00	영어	영어학	석사
11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김00	영어	영어영문학	학사
12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오00	과학	화학교육	박사
13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권00	과학	생물교육	학사
14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이00	사회	지리교육과	학사
15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김00	사회	일반사회교육	학사
16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박00	사회	사회학/사학	학사
17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박00	사회	환경교육/윤리교육	학사
18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고00	직업탐구	국어국문학	석사
19	수능교재기획부	연계교재개발팀	김00	제2외국어	영어영문/중어중문	학사
20	수능교재기획부	비연계교재개발	이00	국어	국어국문	학사
21	수능교재기획부	비연계교재개발	이00	국어	국어교육	학사
22	수능교재기획부	비연계교재개발	정00	수학	수학교육	석사
23	수능교재기획부	비연계교재개발	최00	수학	수학	학사
24	수능교재기획부	비연계교재개발	김0	영어	HRE/영어교육	박사
25	수능교재기획부	비연계교재개발	홍00	영어	영어교육	학사
26	수능교재기획부	비연계교재개발	강00	과학	천문학	박사
27	수능교재기획부	비연계교재개발	박00	사회	지리교육	석사

수능연계교재를 담당하는 책임편집자의 경우 집필자, 검토자와 마찬가지로 오류 발생 내역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해 지급액 차감 및 교재 개발 참여를 제한하는 시스템적 관리를 했다. '무오류 교재 제작'을 목표로 집필 및 검토 과정에서 오류 발생과 관련된 부분의 지침을 명확히 공유하고, EBS 교과위원이 교재 개발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면대면 검토와 합숙형 검토를 수행했다. 그리고 교재 개발 전 과정에서 교재 품질 관리를 위한 개발 참여자들의 교차 검토와 대면 검토, 외부검토, 점독 검토 등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양질의 교재를 발간했다.

② 교육 관련 출판물 제작 외주사들의 전문성 정도, 제작한 교재들의 타사 교재출판물들과 비교한 질적 우수성 및 경쟁력 정도

출판물 제작 외주사들은 격년으로 공모를 통해 평가단의 심사(서류 평가, 현장 실사)를 통과한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했다. 외주제작사 자격요건을 고시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위원들의 평가와 최종 현장 실사를 통해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직영출판교재의 인쇄·제본 업무를 담당하는 인쇄업체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 요건을 구비한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했으며, 인쇄 감리자 제도를 도입해 외주 관리상의 전문성 및 공정성 확보는 물론 비용 절감 등 효율성을 확보했다.

대행출판교재를 담당하는 대행출판사는 '동아출판', '한국교총' 등 전통적으로 해당분야의 경쟁력 또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또는 기관)와의 제휴를 통해 발행해 교재 품질에 있어 우수성 및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전문성을 강조해 참여자를 선정했으나 2016년 5월 <2017학년도 수능 특강 스페인어 I> PDF 제본교재(강의노트) 75부가 인쇄소 착오로 인해 2017학년도가 아닌 2016학년도 내용으로 제작,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쇄 협력업체가 삭제해야 하는 전년도 교재 파일을 관리 소홀로 삭제하지 않음으로써 교재 제작 시 혼선이 발생했으며, 3쇄 파본교재 물류센터 재고 392부와 온라인서점 미판 매본 33부 등 총 425부를 긴급 회수 조치하고, 온라인 구매자 전원에게 정상교재를 택배로 발송하는 등 전사적 대응 체제로 전환, '리콜대응반'(반장: 부사장)을 구성해 사태를 수습했다. 재발방지대책으로 검수절차 및 협력업체 관리를 강화하

고, 교재관리시스템 개선 및 업무 담당자 문책 등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유사 사태 언제라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 교재 발행, 인쇄, 제본 프로세스 및 인쇄업체 간 계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평가결과 및 제언

교육정책 등에 대한 중장기적 설계 및 관리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외부기관과 위원회 구성·운영 및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 자문단 운영 등 연계·협력을 강화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및 인력 부족과 교육정책 발굴 및 연계정책 지속 운영을 위한 대내·외 협의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EBS-교육부' 회의 등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 체제를 강화해 수능강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2021학년도 수능체제개편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어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요망된다.

방송교육도 방송을 매개로 한 교육이므로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학교교육본부는 교육을 직접 담당한다는 점에서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교육방송연구소의 연구인력 8명 중 박사급 인력이 2인에 불과해 연구소 자체 수행 연구 추진에 한계가 있다. 연구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방송 및 교육 분야의 정기적인 연수와 학회 참여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체 수행 연구를 강화하며, 외부 위탁연구의 경우에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해 연구 결과의 내재화 및 연구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노력했으나,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관의 중·장기적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 방송 및 관련 분야별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자체 연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능강의사업 등 모든 사업에서 개별 프로그램 기획 및 제작 시 방송교육목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제작 과정과 절차 및 방법을 교육목표에 적합하게 마련하고 이를 실천했다. 그리고 프로그램별로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사후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각 사업부서 전체 직원들이 방송교육목표를 이해하고 공유

해 이를 개별 프로그램에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콘텐츠 기획서'를 작성해 프로그램 제작 지침화했으나, 콘텐츠 기획서가 모든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것에 그치고 있으므로 과목별, 학년별, 수준별 등에 따른 학습목표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체제로는 '수능강의 강사평가' 및 '콘텐츠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와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건수 등 콘텐츠별 이용률 분석을 연 1회 정도 실시했으며, 콘텐츠 및 사이트 이용의 효과성 및 만족도 측정을 위한 연구 조사를 실시했으나, 평가체제를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수능교육사업 등 모든 사업에서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 콘텐츠 제작과 교재개발에서 모두 100% 이상 목표를 무난히 달성했다. 학교교육본부의 2016년도 인력과 예산은 전체의 약 17% 정도씩을 차지하고 있어 균형을 이루었으나, 여러 사업에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2014년에 비해 2015년 예산이 줄어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지적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다행히 2016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늘었으나, 앞으로 학생 수 및 수능 응시생 감소에 따라 교육부 지원은 더욱 감소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영어교육사업과 수학교육사업의 경우에도 교육부의 지원이 감소 추세에 있어 자체 수입 확대 등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사교육 인터넷강의 업체들의 경쟁 심화 등으로 EBSi 이용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내신 및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한 콘텐츠를 충분히 확보하고, 스타강사 육성·영입 및 학생들 학습 패턴 분석, EBSi 활용도 분석을 토대로 한 맞춤형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EBSi 이용률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교육본부의 모든 직원이 교육 관련 전공자일 필요는 없으나, 초·중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생 수요자의 요구사항과 필요한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토대로 콘텐츠를 기획·제작하므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 및 역량을 갖춘 적정 수준의 교육 관련 전공자가 필요하다.

제작 직원 69명 중 교육 관련 전공자와 교사자격증 소지자 대부분이 수능교재 기획부에 소속돼 있다. 이는 교재발간사업의 경우 EBS 수능강의 연계정책의 원천

콘텐츠인 고교 학습용 교재를 개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나, 교육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수능교재기획부 외에는 거의 없는 점은 개선을 요하며, 특히 개별 교과를 떠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교육프로그램 제작이나 교재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교육학적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필요하다.

직원의 전문적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가치공유 과정 등 5개 전문영역별, 5개 레벨로 세분화해 실시했으나, 직원의 전문적 능력 신장에 대한 요구 조사와 연수 효과에 대한 평가 없이 해마다 비슷한 형태의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자체 워크숍과 연수를 실시했으나, 참여율 저조 등으로 계획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미지수다.

신입사원 채용 시 교육 관련 기본 소양 및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를 통해 선발했으나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전문성을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 인사규정 또는 동 규정 시행세칙에 공채 원칙, 전형방법 등을 명시해 EBS에 필요한 교육전문성을 갖춘 신입사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입사원 연수는 교육방송에 대한 기본 이해, 교육 및 미디어 전반에 관한 심화 내용 등으로 구성·진행했으나, 앞으로 신입직원의 교육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연수계획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참여자(직원, 프리랜서 PD 등)나 감수자들이 기관의 교육목표와 편성의도 등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나 출연자 선정 시 공모를 통해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해당교과에 대한 전문성 등 교육전문성을 비중 있게 고려해 적격자를 선정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자 및 감수자가 기관 교육목표와 편성의도 등을 이해하도록 각 사업부서별로 워크숍과 교육 및 내용선정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목표와 편성의도 등을 주지하도록 하고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학 교육사업과 영어교육사업 및 수학교육사업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다양한 의견 교환을 위한 참여자 연수 및 자문회의 개최 횟수가 부족하므로 강사진과 제작진 및 제작참여자의 교육을 위한 워크숍과 우수 콘텐츠 개발을 위한 자문회의 등을 늘릴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평가는 정성 및 정성평가와 이용자 만족도 조사와

이용자 피드백 등 각 사업별로 적절하게 했으나, 이들의 의식·인지도 평가 및 반영을 위한 시스템(DB)은 수능강의사업의 ECD 인력 풀 외에는 없으며, ECD 인력 풀도 영역별 ECD 총 인원이 31명으로 수능강의 제작 콘텐츠 질에 있어 핵심적 협력인력인 ECD 인력 풀 관리 및 육성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상파(1TV, 2TV), 유료방송 플랫폼(EBS 플러스1·2, EBS English), FM 라디오 등 각 매체별로 전문화해 주 시청 대상별로 채널 정체성을 설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위성방송과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지상파 TV방송 간의 상호 보완적 시너지를 위해 약 200건의 교차편성을 실시함으로써 채널 간 콘텐츠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제작 과정에서 각 매체별 상호 보완 체제를 고려한 정도나 제작 과정에서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민주교육의 상호 보완적 관계를 고려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다.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2TV의 목표설정이 EBS 플러스1, 2 및 EBS English 등과 다소 중복되는 면이 있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자원 및 인력 확보 등에 있어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어 보완을 요한다. 다행히 이 점을 미리 파악하고 2017년부터 EBS 2TV를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창의채널'로 설정해 수학·과학·소프트웨어 등 창의융합교육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학교교육본부 내에 창의융합교육부를 신설해 콘텐츠 개발 및 제작인력을 확보 했으며, 방송통신위원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2017년 50억 원의 2TV 제작비를 확보했다.

EBS 교재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내부 기획인력이 주도권을 가지고 EBS 교재 집필 지침을 공유하며 교재의 질 제고를 기했으며, 수능연계교재의 경우 수능의 출제 방향에 맞도록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력했다. 집필진이 정해지면 EBS-수능연계정책의 취지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사교육 부담 경감에 있음을 숙지하도록 했다.

제작한 출판물이 EBS 교육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수능 교재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EBS 교육이념에 배치되거

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를 철저히 차단했다. 특히 수능연계교재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종 감수를 거친 후 발간했으며,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재 발간 전 표지검토위원회를 실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했다.

‘무오류 교재 제작’을 목표로 EBS 교과위원이 교재 개발 참여자들과 지속적으로 면대면 검토와 합숙형 검토를 수행하고, 교재 개발 전 과정에서 개발 참여자들의 집중적인 검토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2016년 5월 <2017학년도 수능특강 스페인어 I> PDF 제본교재(강의노트) 75부가 인쇄소 착오로 인해 2017학년도가 아닌 2016학년도 내용으로 제작, 유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즉시 전사적 대응 체제로 전환, ‘리콜대응반’(반장: 부사장)을 구성해 사태를 수습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검수절차 및 협력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교재관리시스템 개선 및 업무 담당자 문책 등 내부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유사 사태가 언제라도 발생할 수도 있음을 감안해 교재 발행, 인쇄, 제본 프로세스 및 인쇄업체 간 계약사항 등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 방송교육 과정

평가내용

1) 학교교육 보완 활동 전략의 적정성과 성과

가) 평가기준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학교교육과 어떻게 연계돼 보완하고 있는지, 보충 및 심화교육은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요소로는 1. 학교교육 보완 작업의 수행 방법의 적정성, 2. 학교교육 보완 수행 방법 및 전략 성과, 3. 학교교육 보완 채널 및 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가 자문이나 감수 과정 및 절차이행의 적절성, 4. 방송 후에 평가수행 및 그 평가결과의 사후 반영 정도이다.

나) 평가내역

① 학교교육 보완 작업의 수행 방법의 적정성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수능강의사업은 창의·인성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준별·맞춤형 강좌를 강화했으며, 'EBS 교사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화했다.

초·중학교교육사업은 초등 교과과정 변화에 맞춘 단계별 심화 학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초등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 및 이해 증대, 인성교육 및 한자에 대한 흥미를 높여 주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교육 보완에 기여했다. 영어교육사업은 현장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분절형 콘텐츠와 학년별 교과과정 및 교과서 내용을 분석해 클립 콘텐츠를 제공하고, 현직 초등교사가 직접 참여해 콘텐츠를 기획하는 등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수학교육사업은 '2009년 개정 수학교육과정'에 따라 실질적인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했다.

그리고 EBS는 방송법 상 시청자위원회 운영이 의무적이지 않으나, NGO, 시청자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EBS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월 1회 회의를 개최해 총 281건의 제언을 받아 273건(97%)의 제언을 반영했다. 반영결과는 EBS 홈페이지에 탑재해 일반 시청자들과도 내용을 공유했다.

이에 더해 EBS는 2016년 학교교육과 관련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8명의 중·고 교사로 구성된 교사시청자위원회를 구성했으며, 4차례에 걸쳐 공사 경영진과 이사진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 교사 입장에서 EBS 콘텐츠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리고 청소년시청자위원회는 EBS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직접 시청자인 중·고등학생 100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032건의 프로그램(교과 및 학습 프로그램 위주) 시청소감을 제출했고, 그 중 39건의 우수 소감문은 사내 인트라넷과 홈페이지에 게시해 전 직원들 및 시청자들과 그 내용을 공유했다.

② 학교교육 보완 수행 방법 및 전략 성과

전국의 학생 1,050명, 교사 500명, 학부모 1,000명 등 총 2,550명 대상으로 실시한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 결과 교사의 99.2%가 EBS 수능강의를 수업에 활용했으며, EBS 동영상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강의 내용이 89.0%, 강사 선정 88.4%, 쉬운 설명 86.6%, 난이도적합 80.1% 순으로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 학교교육 보완 성과는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초·중학교교육사업의 경우 강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강좌의 다양성, 난이도·분량·속도의 적정성과 활용한 과목의 성적이 향상 되었다는 비율이 모두 85%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수학교육사업은 초·중학생 1300여 명과 교사 1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EBS Math 사용자의 정의적·인지적 영역 효과성 분석 조사' 결과 'EBS Math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 수업 참여도 증대에 기여한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이 89%, 'EBS Math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이 87%, 'EBS Math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의 이해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 비율이 82%로 나와 비교적 만족도가 높았다.

③ 학교교육 보완 채널 및 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가 자문이나 감수 과정 및 절차 이행의 적절성

수능강의사업은 수능콘텐츠의 내용 및 표현 적합성 검토 등을 통한 강의 품질 향상, 교과전문성을 보유한 검수교사(현직교사)를 통한 내용 검토 전문성 강화, 수능강의 내용에 피드백을 통한 강의경쟁력 제고를 위해 검수교사 92명으로 구성된 '수능강의 검수시스템'을 1년 내내 운영했다. 그리고 강의 노출 전 사전에 철저한 검수를 통해 강의 오류를 방지했다.

초·중학강의사업은 학교교육 보완 콘텐츠인 과학, 역사, 창의·인성 콘텐츠 제작 시 자문을 풀(Pool)제로 운영함으로써 내용의 타당성 및 교육과정의 적절성을 다단계로 검증했다. 기초 및 심화학습 콘텐츠 제작 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자격을 갖춘 검수 요원을 선발해 학습콘텐츠의 내용 및 표현 적합성 사전 검수제를 실시했으며, 초·중학 학습 콘텐츠 제작 후 정기적인 평가회를 실시했다.

영어교육사업은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시 현직 교사들의 자문을 확대하고, EBSe 콘텐츠 내용 오류 방지를 위한 파견교사들의 콘텐츠 검수 및 자문을 실시했다.

수학교육사업에서는 모든 콘텐츠들을 수학과수학교육과 교수의 자문을 바탕으로 현직 초·중학교 수학교사들의 내용연구를 통해 제작했으며, 제작이 완료된 후에도 참여 교수와 교사들과의 공동 시사 및 평가를 통해 적절한 콘텐츠가 제작되었는지 재평가하고, 미비한 점에 대해 수정·보완했다.

④ 방송 후에 평가수행 및 그 평가결과의 사후 반영 정도

EBS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통해 281건의 제언 중 97%에 해당하는 273건을 반영해 높은 반영률을 보이고 있다.

수능강의사업은 연 1회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와 EBS 수능강의 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FGI 조사를 실시했고, '교사시청자위원회'를 운영했으며, 초·중학교교육사업은 연 1회 'EBS 초등/중학 사이트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영어교육사업은 17개 시도 교육청 EBSe 담당 장학사 회의(연 2회) 및 교육부

의견을 수시로 청취해 반영했으며, EBSe 사이트 게시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제작이나 내용 구성 및 질적 평가에 활용했다. 그리고 CSR 접수 868건 중 793건을 처리해 91.4%의 높은 처리율을 보이고 있다.

수학교육사업은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통해 콘텐츠 개선·보완점을 조사해 신규 콘텐츠 기획에 반영했으며, 사이트 내 이용 문의(CSR) 및 학습 Q&A를 운영했다.

평가결과 및 제언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EBS는 'EBS 시청자위원회'를 운영해 시청자의 의견을 프로그램 제작에 적절하게 반영했으며, 'EBS 교사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도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화했다. 그리고 청소년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 학교교육 프로그램의 직접 시청층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사업별로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과 수업에 활용이 가능한 콘텐츠를 제작했으며, 수학교육사업은 '2009년 개정 수학교육과정'에 따라 실질적인 학교교육 보완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모두 적절한 방법으로 학교교육 보완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학교교육 보완 프로그램 개발 시 전문 교수설계자의 부재로 교과 기반의 콘텐츠 제작 및 반영이 쉽지 않아 전문 교수설계자 및 EBS 담당 교사(장학사)로부터 콘텐츠 관련 자문 및 협력을 구해 교과기반의 콘텐츠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보완 성과는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에서 모든 항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초·중학교교육사업의 경우도 강좌의 다양성 등 모든 항목에서 85%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으나, 교과과정 개정에 따른 교재출판이 늦어지는 바람에 강의 제공이 지연돼 수요자 불만이 발생했으며, 검인정 교과서를 채택하는 중학의 경우 출판사별 교과서 내용이 달라 각 학교가 채택한 교과서에 맞는 맞춤형 강좌를 제공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교재 개발을 위해 교육부와의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예산확보를 통해 다양한 교과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풀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교육 보완 채널 및 프로그램 제작 시 전문가 자문이나 감수 과정 및 절차 이행의 적절성 평가에서 수능강의사업은 'EBS 수능강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검수교사 92명으로 구성된 '수능강의 검수시스템'을 운영했으나, 검수교사 풀(pool)이 부족한 교과와 영역에 대한 검수교사 확충이 필요하며, 검수교사에 대한 평가제도(계량적)를 통해 우수한 검수교사가 지속적으로 EBS 검수교사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라. 방송교육 성과

평가내용

1) 타깃 시청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이용 정도

가) 평가기준

인터넷을 통한 EBS 프로그램의 수강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방송시청률 뿐 아니라 인터넷수강 비율을 비교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학교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의 인터넷 이용자 확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강의 이용 실적을 평가한다. 평가요소로는 1. 인터넷 강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수준의 적정성과 2. 문항별 해설 강의 및 인덱스 이용 건수 수준의 적정성이다.

나) 평가내역

① 인터넷 강의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수준의 적정성

인터넷 강의의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수준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는가를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다. 스트리밍 수준은 수능강의 114%, 초등사이트 177.2%, 중학사이트 132.2%, 영어교육 103.5%, 수학교육 184%로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이벤트와 온/오프라인 홍보, 그리고 모바일 웹 서비스 확대와 HTML5³⁰⁾ 적용 등 지속적으로 사용자 편의성 및 접근성을 강화한 결과이다. 특히 수능강의의 경우 고등학생 수와 수능지원자수의 감소 및 수시 위주의 대입환경 변화로 인해 수능강의에 대한 사용자의 필요성 감소로 전체 순방문자가 감소했으나 이벤트를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도한 결과이며, 수학 사이트의 경우는 2016년에 초등 5·6년까지 대상이 확대된 결과이다.

스트리밍 이용 건수에 비해 다운로드 건수는 수능강의 54%, 초등사이트

30) HTML5(HyperText Markup Language 5) : 웹 표준 기관인 월드와이드웹 컨소시엄(W3C)이 만들고 있는 차세대 웹 언어 규격이다. HTML5는 문서 작성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표준에 그림, 동영상, 음악 등을 실행하는 기능까지 포함시켰다.

88.2%, 중학사이트 62.4%, 영어교육 91.4%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고, 모바일 웹 서비스가 강화됨에 따라 사용자 이용 행태 및 사용자 환경 변화로 다운로드 대신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결과로 짐작된다.

② 문항별 해설 강의 및 인덱스 이용 건수 수준의 적정성

문항별 해설강의 이용 건수는 2015년에 비해 93.4%로 조금 떨어졌으며, 인덱스 이용 건수는 2016년 5월부터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어 전년도와 비교가 불가능하다. 5월 이용 건수는 238만 건 정도였으나, 6월에는 900만 건 정도로 늘었으며, 7월 이후 600~700만 건을 유지하다가 12월에는 468만 건 정도로 떨어졌다.

2) 방송교육 프로그램의 공교육 기여 정도와 학교 현장의 평가 정도

가) 평가기준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보완의 목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 만족도와 성취도는 어떠한지 등을 평가한다. 평가요소로는 1.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영향 정도, 성취도 정도, 2. 교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 정도, 3. 학부모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 정도이다.

나) 평가내역

① 학생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영향 정도, 성취도 정도

학생들의 EBS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수능강의의 경우 목표 94.4%에 94.8%, 초등사이트는 목표 86.74%에 88.9%, 중학사이트는 목표 84.08%에 87.6%, 영어교육사업은 목표 만족도 4.29점에 4.3점을 받아 모두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수학교육사업은 EBS Math를 사용하는 전국의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EBS Math 사용자의 정의적·인지적 영역 효과성 분석 조사' 결과 조사 학생의 70%가 EBS Math의 수학 교육 콘텐츠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BS Math로 인해 수학이 좋아졌다'고 응답한 학생이 초등학생 72%, 중학생 62%, 'EBS Math로 인해 앞으로 수학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고 응

답한 학생이 초등학생 77%, 중학생 67%로 나타나 EBS Math가 수학에 대한 흥미와 성공경험 증대에 효과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는 EBS 수능강의 91.3%(동영상 94.8%, 교재 87.7%)이며, 강의내용 92.9%, 강사진 91.1%, 교재의 질 74.4%, 교재가격 89.2%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교재의 질 외에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방송연구소의 수능강의 서비스에 대한 학생 만족도는 강의내용 73.5%, 출연강사 69.5%, 교재내용 61.5%, 교재가격 66.9%, 부가서비스 63.2%를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수능강의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내신 성적 향상 95.9%, 수능 모의고사 성적 향상 106.3%, 종합적 사고력 향상 99.4%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EBS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 결과 EBS 수능강의 및 교재 활용률은 학생 96.7%에 이르고 있어 학생들은 EBS 인터넷 강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지역별 활용도는 대도시 97.3%, 중소도시 96.3%, 읍·면지역 96.4%로 나타나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② 교사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 정도

교사들의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수능강의사업 목표 93.6%에 90.4%, 영어교육사업 목표 4.4점에 4.88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수학교육사업의 경우 교사들의 89%가 'EBS Math가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 수업 참여도 증대에 기여한다'고 응답했으며, 'EBS Math를 활용한 수업은 학생들이 수학의 중요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도 86%에 이르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수능강의 및 교재 만족도 조사에서 교사들의 EBS 수능강의 만족도는 89.1%(동영상 90.4%, 교재 87.7%)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교사들의 EBS 수능강의 및 교재 활용률은 99.2%이며, 교사의 92.6%가 학생들에게 EBS시청 및 활용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사들의 EBS 인터넷 강의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학부모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활용도 정도

학부모들의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수능강의사업 목표 82.9%에 88.24%, 영어교육사업 목표 4.13점에 4.14점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학부모들은 EBS 수능강의의 공교육 보완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39.3%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교육격차 해소에는 34.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해 비교적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사교육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70.2%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사교육 절감 비용은 월 평균 42만원으로 나타났다.

3) 프로그램 및 출판물의 사교육비 절감 기여 정도

가) 평가기준

EBS가 제공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과 교재 및 각종 출판물들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절감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평가요소로는 1. EBS 학습 프로그램 및 출판물 내용의 충실성, 2. EBS 학습 프로그램 및 출판물 가격 수준의 적정성, 3. EBS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정도이다.

나) 평가내역

① EBS 학습 프로그램 및 출판물 내용의 충실성

EBS의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부모의 88.2%가 EBS 수능강의가 수능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고 있어 학습 프로그램과 교재의 내용이 비교적 충실함을 알 수 있다.

초·중학교교육사업도 '2016년 EBS 초등, 중학 콘텐츠 이용 현황 및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초등 1,988명, 중학 2,516명)의 약 50% 이상이 'EBS에서 제공하는 초·중학 강좌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했으며, EBS 초등·중학강의가 학교 내신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초등 88.19%, 중학 86.52%로 높게 나타났다.

영어교육사업과 수학교육사업은 이에 관한 자료가 없어 평가가 어려우나, 영어교육사업의 사교육비 절감액이 3,40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으

며, 수학교육사업은 우리나라 수학교육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공식암기와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방법을 탈피해 이해와 탐구중심의 수학교육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을 주고, 수학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도 및 수학의 가치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출판사업은 초등 및 중학 교재의 경우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성취 기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내용 충실도 높은 초·중학 교재를 개발함으로써 공교육 보완에 기여했으며, 수능교재는 87.7%의 만족도를 보였다.

② EBS 학습 프로그램 및 출판물 가격 수준의 적정성

EBS의 수능강의와 초·중학, 영어채널, 수학교육프로그램은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 사교육업체인 M사와 E사의 인터넷강의(RT 60분, 30강 기준) 가격이 약 10만 원이고, 대표적인 사교육업체 M사와 V사의 중학 인터넷강의(종합반 패키지) 가격이 연 120만 원대 등을 감안하면 사교육비 절감 혜택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출판물의 경우 수능연계교재의 평균 정가는 시중 유사교재 정가 대비 43.3% 수준(전년대비 4.3%p 인하)이며, EBS 직영출판교재의 경우에도 시중 유사교재 정가 대비 62.6%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어, 수요자의 교재구입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

③ EBS가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는 정도

‘2016 EBS 수능강의 성과분석’에 따르면 ‘수능강의 서비스 이용으로 사교육비가 감소했다’는 응답(12.6%)이 증가했다는 응답(1.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325,100원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EBS 수능강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70.2%가 EBS 수능강의가 사교육 감소 효과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29.8%로써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월 평균 42만원의 사교육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영어교육사업의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학부모 평가는 2015년 4.10점에 비해 다소 떨어진 4.05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학교육사업은 EBS Math 서비스 이후 사교육비 절감 기여도에 대한 학부모 대상 평가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평가결과 및 제언

학생 수 감소와 수시 위주의 대학입시 변화로 인한 수능 필요성 감소, 그리고 웹 서비스 위주의 사용자 이용 행태 및 사용자 환경 변화는 움직일 수 없는 추세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다운로드 서비스의 감소로 인한 스트리밍 서비스 개선 및 모바일 서비스 강화 등 사용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 선호도가 높은 강사를 발굴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강좌를 확대하고, 학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자기주도학습을 유도하고 독려할 수 있는 동기유발 요소들에 대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수시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대학별 수시에 대비할 수 있는 강좌 확대, 초등 저학년 대상 EBS Math 콘텐츠 확대 등 인터넷 강의를 개선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SNS 및 포털 서비스 등 외부 콘텐츠 노출을 통한 인지도 강화와 오프라인 콘텐츠 활용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해 콘텐츠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EBS의 인터넷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교사, 학부모의 만족도는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 인터넷 프로그램이 공교육 보완에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학생과 교사들은 수능강의와 교재 및 내신성적 향상, 수능 모의고사 성적 향상, 종합적 사고력 향상 등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했으며, 교사들의 EBS 수능강의 및 교재 활용률과 학생들에 대한 EBS시청 및 활용 권유율도 높게 나타나 교사들의 EBS 인터넷 강의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다. 학부모들은 EBS 수능강의의 사교육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 공교육 보완 효과와 교육격차 해소에는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어 인터넷 강의가 공교육을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학교 수업에서 EBS 콘텐츠의 용이한 활용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모든 학습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수능 프로그램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수능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EBS 출판물 또한 다른 사교육업체의 유사교재 대비 43.3~62.6%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어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사교육업체들도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EBS 수능강의 점유율이 하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강사 및 콘텐츠 자체 경쟁력 확보, 수준별 강의 및 과목별 심화 과정 확대, 교과서별로 편차가 크지 않은 과목(수학·과학·역사) 중심의 콘텐츠 강화 등 대비가 필요하다. 수능강의사업의 경우 수능보다 수시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내신 및 학생부종합전형에 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출판사업의 경우도 수능연계교재 축소에 따른 매출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 자유학기제 확대 등 변화에 대응이 다소 미흡해 교재의 판매량 및 매출이 감소세에 있으므로 사회변화 등에 따른 수요자 니즈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기적이고 세밀한 시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교재 내용과 마케팅 정책이 필요하다.

마.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평가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가) 평가기준

경영평가의 목적은 평가과정에서 밝혀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데 있다. 전년도 교육부문 경영평가에서 지적 및 개선 제안 사안에 대한 처리 및 반영 정도를 평가한다. 평가요소는 1. 전년도 교육부문 경영평가결과 지적사안에 대한 개선 노력 정도이다.

나) 평가내역

1. 전년도 교육부문 경영평가 결과 지적사안에 대한 개선 노력 정도

2015년 교육부문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은 1. 매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2. 예산의 안정적 확보 두 가지다.

1. 매체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은 ‘학습 패턴이 PC에서 모바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지만,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학습 콘텐츠 제작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EBS에서는 EBS 수능강의의 경우 모바일과 PC 사용 비율을 5 : 5 정도로 파악하고, 2016년도 EBS 수능강의에서 수능특강, 수능완성 모바일용으로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등 4개 과목에서 PC 대비 작은 화면에서 판서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바일 강좌를 시범 제작해 서비스 했다. EBS 입시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의 입시 정보 앱 ‘입시맘’을 개발해 배포 완료했고, EBS Math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해 ‘m.ebsmath.co.kr - 모바일에서 펼쳐지는 즐거운 수학 세상!’을 2016년 8월 29일에 오픈했다.

2. 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2014년도의 예산은 총 53,459,619천원이었으나,

2015년도에는 49,804,664천원으로 감소해 예산의 안정적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예산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교재기획 강화, 모바일 분야 사업 확대 등의 자체 수익창출 기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EBS 수능강의를 위한 '특별교부금'은 상황에 따라 변동적이므로 상황에 따라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 지원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EBS 출판사업을 강화해 출판교재 연계계획을 수정해 연계교재의 Voca 1800, 수능의 감, 닥터링 등 신규 혁신교재 발간을 통해 매출을 창출했다.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서비스 강화를 통한 학습자 이외의 구매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지원센터 내 EBS교재 한글파일 제공 서비스를 통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간접적인 교재 홍보(2017. 1. 한글파일 서비스 제공 오픈)를 하고, 학부모 대상 입시 정보 앱 '입시맘' 개발(2016. 12.)을 통해 EBS 인지도 상승 및 교재 구매를 유도했다.

평가결과 및 제언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시범 제작해 ‘입시맘’ 앱을 오픈했으나,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콘텐츠가 부족한 면이 있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에 적합한 콘텐츠 개발과 제공이 시급하다.

수능강의용 예산 감소는 수능강의의 콘텐츠 및 주요 서비스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학생 수 감소와 수능 비중 축소로 특별교부금이 계속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육부문 대표 집필위원 : 박경재 위원

3. 기술부문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영방송이다. 기술부문 평가의 목적은 EBS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은 시스템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도 EBS 기술부문 경영평가에 적용하는 항목과 지표는 아래와 같다.

<표 30> 기술부문 경영평가 항목 및 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 기술정책	1.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
	2. 미디어 환경 대응의 적정성
나. IT 환경 대응	1. I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2. IT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성과
	3. IT 인프라 운용의 효율성
	4.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다. 방송 시스템 개선	1.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2. 방송망 관리의 효율성
	3. 방송기술 개발 노력의 적정성
	4. 디지털 방송 제작 및 송출 시스템 투자의 효율성
	5. 방송 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정도
	6. 인력 역량 강화 노력의 정도
	7. 제작시설 활용의 효율성
	8. 프로그램 품질 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
라.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첫째, ‘기술정책 항목’은 EBS 경영목표와 기술목표 등의 상호 부합 여부와 기술목표로 설정한 항목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노력의 적정성 및 IT 서비스와 방송 시스템 개선 정도를 짚어본다.

둘째, 'IT 환경 대응 항목'은 방송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력한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용자 중심의 IT 서비스 개선 정도, 서비스 개선 요청의 적기 처리율, IT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실적, 연간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 비율, IT 인프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 및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등을 살펴본다.

셋째, '방송 시스템 개선 항목'은 고품질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기술 정보의 취득 및 활용의 정도,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정도, 방송망의 안정성 확보 노력 및 방송사고 대처능력 정도,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정도, 방송기술 연구 개발 노력 정도, 방송기술 연구 개발의 성과,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대한 투자 효율성,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활용 정도, 방송 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 정도, 기술 인력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제작 시설 운용의 효율성,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노력 정도 및 프로그램의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 평가 시스템의 운영정도 등의 측면에서 짚어본다.

넷째,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항목'은 2015년도 기술부문 평가결과 지적 사안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가. 기술 정책

평가내용

1) 방송기술목표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방송기술목표는 EBS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회사의 정책방향에 맞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016사업연도 경영 방침은 ‘인성·창의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정책의 역할과 성과를 되짚어 보며, 기술 정책 목표와 EBS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의 부합성 정도 및 추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평가내역

2016년도 기술목표는 ‘차세대 방송 인프라 기반 마련’, ‘콘텐츠 경쟁력 강화’, ‘IT 서비스 활성화’ 로 EBS 설립목적인 ‘학교교육 보완’, ‘평생교육 구현’, ‘민주적 교육발전’ 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설정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특히,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이행하고 시청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사옥인프라 성공적 구축, UHD 방송기반 마련, 고품질 제작 여건 마련,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IT 인프라 안정화,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안정적 정착, 라디오 송출 파일 시스템 자체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차세대 방송 인프라 기반 마련’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영목표인 ‘명품 콘텐츠 확대’에 기여했으며, ‘IT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경영목표인 ‘스마트 서비스 구현’을 실현했고,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성·창의 교육 강화’라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다음 표는 EBS 설립목적 및 2016년도 경영목표와 기술정책 목표와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표 31> EBS 설립목적 및 2016 경영목표와 방송기술정책목표 비교

EBS 설립목적	EBS 경영목표	2016년도 기술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 보완 ○ 평생교육 구현 ○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 	<p style="text-align: center;"><3대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성·창의 교육 강화 ○ 명품 콘텐츠 확대 ○ 스마트 서비스 구현 <p style="text-align: center;"><6대 추진과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인재 교육 선도 - 크로스 플랫폼 서비스 구현 - 고품격 콘텐츠 제작 - 글로벌 교육한류 선도 - 차세대 방송기반 마련 - 시청자 서비스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방송 인프라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옥인프라 성공적 구축 - UHD 방송기반 마련 - 라디오 송출 파일시스템 자체 개발 ○ 콘텐츠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워크플로우의 안정적 정착 - 고품질 제작 여건 마련 ○ IT 서비스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 IT 인프라 안정화

2016년도 EBS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한 업무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차세대 방송 기반 마련을 위해 사옥 인프라 성공적 구축, UHD 방송 기반 마련 및 라디오 송출 파일 시스템 자체 개발 업무를 추진했다. 콘텐츠 통합 분배, 통합사옥 전체의 제작 공간화, 방송 인프라 통합운영 등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 통합사옥 이전 및 구축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고,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해 통합사옥의 조명 시설을 구축했다. 보다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통합사옥 방송 인프라 이전·구축 TF를 구성해 추진했고 조달청을 통해 투명한 절차로 통합사옥 방송 인프라 이전 및 구축 사업자를 선정(MBC C&I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했다. UHD 방송 기반 마련을 위해 UHD 방송 인프라 투자 계획을 수립했고, UHD 주조정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의 성능 검증 및 정합을 실시했다. 또한 고품질의 콘텐츠 제작을 위해 UHD 야외 촬영 및 후반편집 장비를 보강했고, UHD 방송표준 선정 협의회에 참여해 표준 제정에 기여했으며 UHD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라디오 송출 파일 시스템 자체 개발을 위해 FM 제작·송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고도화를 추진했고 새로운 DB를 설계했으며, 관리 운영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또한, 통합사옥 설치를 위해 신규 라디오 제작·송출 시스템을 설계했다.

둘째,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안정적 정착과 고품질 제작 기반 구축을 추진했다. 디지털 워크플로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미디어 통합 관리시스템 솔루션을 통해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도록 했고, 사전 인코딩시스템의 입수기능을 보완해 프로그램과 예고 SPOT의 웹서비스 공급 과정을 일원화 시켰다.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시스템의 장애요인을 사전에 제거했고 분기별로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사용자(AD/PD)에게 실시함으로써 콘텐츠를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셋째, IT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서비스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IT 인프라의 안정화를 추진했다. 모바일 서비스를 위해 모바일 UI/UX 통합 가이드 개발을 완료 했고, EBS 사이트의 반응형 웹 서비스를 적용해 사용자에게 모바일에 최적화된 UI/UX를 제공했다. 또한, <클립뱅크>, <EBS 중학> 모바일 앱을 신규 출시해 사용자가 편리하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IT 인프라의 안정화를 위해 수능 백업 시스템을 개선하고 영어 웹 방화벽을 도입함으로써 웹서비스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하고 보안을 강화했으며, 수능 교사지원 서비스와 클립콘텐츠 보관 스토리지 증설 및 수능 백업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2) 미디어 환경 대응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최근 미디어 환경은 차세대 방송인 UHD TV 수요의 증가로 인해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시청 요구 증가, TV 중심의 실시간 시청에서 모바일 및 VOD 중심의 시청형태의 변화, 그리고 넷플릭스 등 비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이 미디어 영역으로 진출해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 약화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항목 평가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해 IT 및 방송 서비스 향

상을 위한 기술적 차원의 대응 계획, 전략 및 실적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나) 평가내역

EBS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차세대 방송 인프라 기반 마련, 콘텐츠 경쟁력 강화, IT 서비스 활성화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운영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기술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2> 미디어 환경 변화와 방송기술정책 목표 비교

미디어 환경 변화	방송기술정책 목표
• 고품질 영상에 대한 시청 욕구 증가	• 차세대 방송 인프라 기반 마련 (UHD 방송 기반 마련, 고품질 제작 여건 마련)
• TV에서 모바일, 방송에서 VOD중심으로 미디어 시청형태의 변화	• IT 서비스 활성화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IT 인프라 안정화)
• IT 기업들의 미디어 영역으로의 진출로 인한 지상파 영향력 약화	•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옥인프라 성공적 구축, 디지털워크플로우의 안정적 정착, 라디오 송출 파일 시스템 자체 개발)

첫째, 고품질 영상에 대한 시청 욕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UHD 본방송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서 제작 송출 투자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주조정실 설계, 장비 성능 검증 및 정합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리고 고품질 제작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UHD 후반 편집 장비를 보강해 고품질 제작 기반을 마련했고 UHD 제작 및 송출을 위한 파일 코덱 선정을 검토했다.

둘째, TV에서 모바일, 방송에서 VOD 중심으로 미디어 시청 형태의 변화에 대응해 모바일 서비스를 활성화시켰다. 이를 위해 SNS 계정(페이스북, 카카오계정)을 통한 회원인증을 해 로그인 절차를 단순화 시켜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반응형 웹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기의 특성에 맞는 UI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만족도를 향상시켰고 모바일 UI/UX 통합 가이드를 마련해 시청자가 보다 손쉽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IT 인프라 안정화를 위해서 웹서비스 네트워크 구조개선 및 보안을 강화했고 수능 관련 시스템의 구조를 개선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셋째, IT 기업들의 미디어 영역으로의 진출로 인한 지상파 영향력 약화에 대응해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옥의 방송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그리고 디지털워크플로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사전 인코딩시스템의 입수기능을 보완해 프로그램과 예고 SPOT³¹⁾에 대한 웹서비스 공급 과정을 일원화 시키고 미디어 통합 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콘텐츠의 유통 구조를 다양화 시켰다.

또한, 라디오 송출 파일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기 위해서 FM 제작 송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했고 통합사옥 내 신규 제작 송출 시스템을 설계했다.

31) SPOT : (방송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에 삽입하는) 스폿 광고. 또는 생활 정보나 캠페인, 공지사항, 프로그램 안내 등을 통틀어 말함

평가결과 및 제언

2016사업연도 기술 정책은 2016년도 EBS 경영목표인 ‘인성·창의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에 적합하게 설정돼 있다.

방송기술 목표인 차세대 방송 인프라 기반 마련 측면에선 통합사옥 방송 인프라 구축 준비 및 UHD 방송기반 마련을 통해 성과를 도출했고, 파일기반 워크플로우 정착 및 후반작업 제작 역량 강화를 통해 콘텐츠 경쟁력 강화 시켰으며, IT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선 모바일 반응형 웹 서비스를 도입해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최적의 UI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 등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UHD 송신지원과 관련해 KBS의 지원 거부로 EBS의 UHD 허가 취득에 차질이 발생된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EBS의 미래와 연관이 되는 문제이므로 KBS의 EBS에 대한 UHD 송신 지원 및 UHD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UHD 차세대 방송 기반 구축, UHD 후반 편집 보강, 제작 및 송출 코덱 선정 검토 및 파일기반 제작시스템 본격 운영을 통해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한 것은 고품질 영상에 대한 시청자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TV에서 모바일, 방송에서 VOD 중심으로 미디어 시청형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바일 UI/UX 가이드 개발 및 적용, 반응형 웹 서비스 도입 및 SNS 계정을 통한 회원 인증적용을 통해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 적절하게 대응했다.

EBS PLAY 앱, 초·중학 모바일 서비스 및 클립뱅크 개인화 서비스의 고도화를 통해 시청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수능 및 영어사이트 웹서비스 인프라 구조 개선과 보안강화를 통해 IT 인프라의 안정성을 제고한 것은 효율적인 미디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EBS는 IT 기업들의 미디어 영역으로의 진출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 약화에 대응해 파일기반 시스템 및 미디어 통합 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함으

로써 제작 및 유통의 효율성을 제고해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했다.

FM 제작 송출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해 라디오 송출 파일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고 통합사옥 내 신규 제작 송출 시스템을 설계한 것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는 추세인 바, 관련 인력 부족으로 신기술 적용 및 검토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부문 차원을 넘어 전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차세대 방송을 위해서는 제반 인프라 구축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접목 활동에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 IT 환경 대응

평가내용

1) I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가) 평가기준

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스마트화이다. 기술의 혁신에 의해 각종 뉴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은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IT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IT 서비스 개선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나) 평가내역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 편의성과 활성화를 위해 EBS PLAY 앱 고도화, 초·중학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클립뱅크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 SNS 계정을 통한 회원 인증 적용 및 반응형 웹 서비스 개편을 추진했다.

EBS PLAY 앱을 고도화해 EBS 자체 OTT 서비스 플랫폼 기반을 마련했고 UI/UX 및 기능 개선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콘텐츠 시청에 최적화된 UI를 적용하고 플레이어 등 앱 기본 기능을 강화했으며 사용자 성향에 따른 초기화면과 화면 모드(일반/키즈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해 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시켰고 방송 알림, 앱 내 결제 기능(In-App Purchase) 등의 편의 기능을 제공했다.

초·중학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태블릿/모바일 기기를 통한 이용자의 학습 편의성 강화와 만족도 제고, 디바이스 구분 없이 동일한 사용자 경험 제공 및 최신 웹 기반 기술을 사용한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시켰다. 추진 내용은 교사 및 학부모가 제자 또는 자녀의 학습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버 학급 기능 개발(초등), 모바일 단말 특성을 고려해 짧은 영상 제공을 위해 클립뱅크 내 클립 콘텐츠를 대상에 맞게 선별해 연계 적용(초·중학)하고 직업정보에 대

한 호기심 해결을 위한 '주니어 직업정보' 서비스를 추가(초등)해 제공했다.

클립뱅크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성 강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 사이트 내 클립 콘텐츠의 교수학습 현장 활용도 증진 및 교사 특화 서비스 구축, 그리고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위한 이용자 참여형 서비스를 신규 도입했다. 추진 내용은 메인 페이지에 클립 조회 이력에 따른 개인 맞춤 콘텐츠 추천 서비스를 적용하기 위해 최근 본 클립의 교과 분류와 동일한 분류체계에 포함된 클립 리스트 제공, 최근 본 클립과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분절된 클립 리스트 제공 및 클립 조회 이력을 기준으로 교과 분류 및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는 기타 클립 콘텐츠 맞춤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직접 클립을 편집해 교사 간 공유할 수 있는 '교사 클립' 서비스를 신규 구축하기 위해 동영상 편집 솔루션을 적용해 클립 영상 및 타이틀 자막 편집기를 개발했고 교사 클립 제작 승인 관리 시스템 및 통계 시스템을 구축해 클립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SNS 계정을 통한 회원 인증 적용은 신규 회원가입 및 재접속 시 서비스 진입 장벽의 최소화, 서비스 접근성 강화 및 재방문을 증대를 통한 사이트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추후 SNS와 웹 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EBS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고자 추진했다. 세부 내용은 페이스북, 카카오 SNS 계정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적용, SNS 계정 인증으로 최초 로그인 시 SSO³²⁾ 통합회원으로 가입, 최초 인증 이후 원클릭으로 로그인 가능 및 기존 EBS 회원의 경우 SNS 계정을 연결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반응형 웹 서비스는 기기 특성에 맞춘 UI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만족도 제고, PC-모바일 간 끊김 없는(seamless) 사용자 경험 제공, UHD 홈포털 등 N-스크린 기반 서비스를 위한 사전 준비 개념과 글로벌 트렌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했다. 추진 내용은 클립뱅크 사이트 개편 완료(7월), 메인 사이트 단계별 1차 개편 완료(10~12월) 및 초등 사이트 1차 개편을 완료(12월)해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한다.

32) SSO(Single Sign On) :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사이트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2) IT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및 성과

가) 평가기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의해 IT 기반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서비스 환경 변화에 대응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IT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실적과 서비스 개선 요청 관련 적기 처리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 평가내역

IT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실적으로 결제 페이지 UI 개선, 초·중학 모바일 강의 시스템 구축, 초·중학 학습플레이어(PLeasure) 기능 및 UI 개선이 있다.

결제 페이지 UI를 개선해 VOD 구매 시 결제 및 모바일 결제 화면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구매 번심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신뢰도를 향상시켰다. 세부 추진 내용은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VOD/AOD 구매 시 노출되는 결제 페이지의 UI와 태블릿 및 모바일에서 방송 콘텐츠 및 직업 강좌 구매 시 노출되는 결제 페이지의 UI를 개선했다.

초·중학 모바일 강의 검수 시스템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강의 검수가 가능하도록 해 강의 검수자의 편의성을 증대했고, 편의성 증대를 통해 충분한 시간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검수 품질의 제고에 기여했다. 그리고 빠른 강의 검수 처리로 강의를 원활하게 제공함으로써 학습자 만족도를 향상시켰다. 이를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PC에서만 제공되던 강의 검수 기능을 모바일에서도 검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검수자의 편의성을 증가시켰고 검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검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강의 검수 관련 필수 기능만으로 단순하게 구성했다.

초·중학 학습플레이어(PLeasure) 기능과 UI 개선을 통해 이러닝 핵심 기능인 학습 편의성과 이용 만족도를 제고했다. 세부 추진 내용은 기존 플래시+ActiveX 기반에서 HTML5 기반의 동영상 학습 플레이어로 개선했고 심플 모드 제공으로 학습 몰입도를 강화시켰으며 학습 부가기능을 학습창 내에서 바로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했다.

서비스 개선 요청에 대한 적기 처리 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산정지수는 메인, 초등, 중등, 클럽뱅크 4개 사이트의 서비스 개선요청(CSR) 건수 및 적기 처리 건수, 산출식(%)은 (적기 처리 건수/ 서비스 개선 요청 건수)×100, 산출결과는 6236/6296 ×100 = 99.0%의 높은 성과를 얻었다.

<표 33> 서비스 개선 요청 관련 적기 처리 비율 결과

사이트	요청건	적기처리건	지연처리건	반려건	취소건	적기처리율
메인 사이트	3,520	3,492	18	9	1	99.2%
초중학 사이트	1,874	1,854	7	10	3	98.9%
클럽뱅크 사이트	321	316	3	2	0	98.4%
공통플랫폼	581	574	7	0	0	98.8%
합계	6,296	6,236	35	21	4	99.0%

3) IT 인프라 운용의 효율성

가) 평가기준

새로운 방송미디어 환경에서 IT 인프라는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로써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고 유지해 최적의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IT 인프라 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다운로드 서버, 스트리밍 서버, 스토리지 트래픽 개선 등 IT 인프라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실적과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 비율을 이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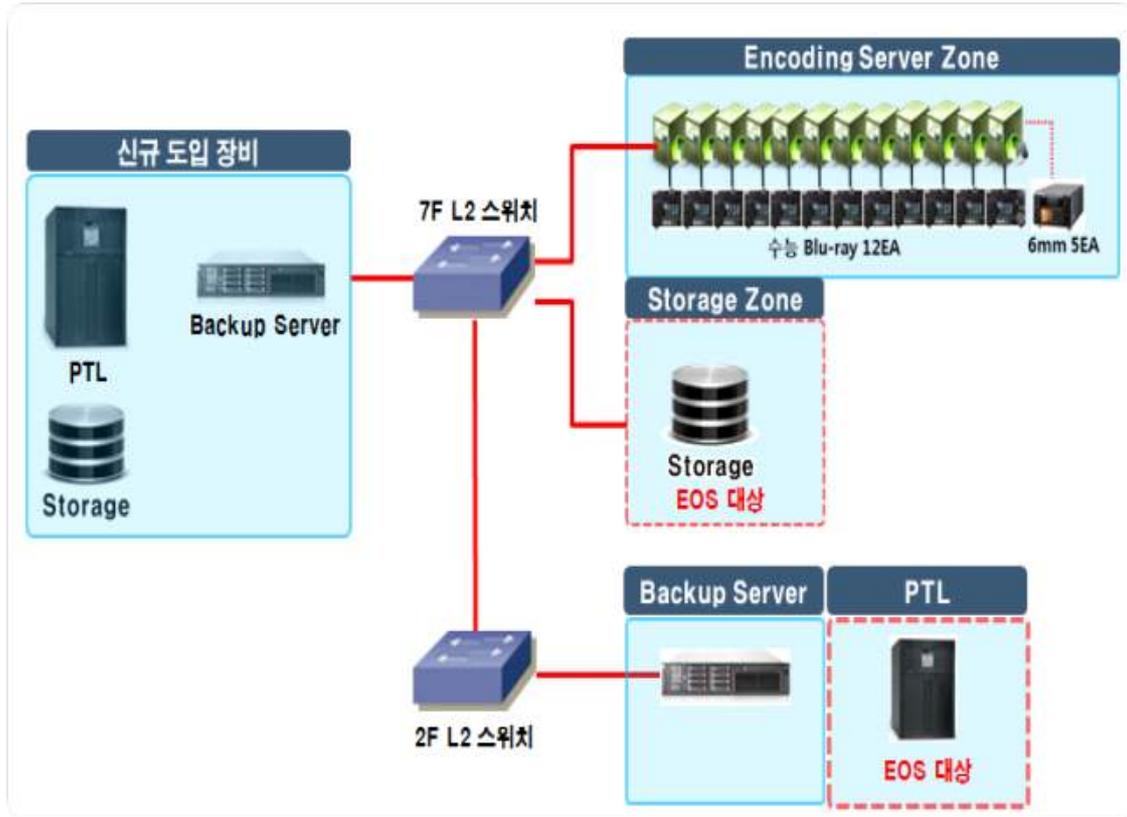
나) 평가내역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IT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EBSi 수능사이트 콘텐츠 백업 시스템 개선, EBSe 영어사이트 웹 방화벽 구축 및 EBS 웹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 갱신 심사를 수행했고 장애 예방 활동 및 대응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가동률을 달성했다.

EBSi 수능사이트의 콘텐츠 백업 시스템을 개선해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고, 웹과 모바일 등의 스트리밍, 다운로드 서비스 가용성을 확보해 웹 서비스

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그림 2> EBSi 콘텐츠 백업 시스템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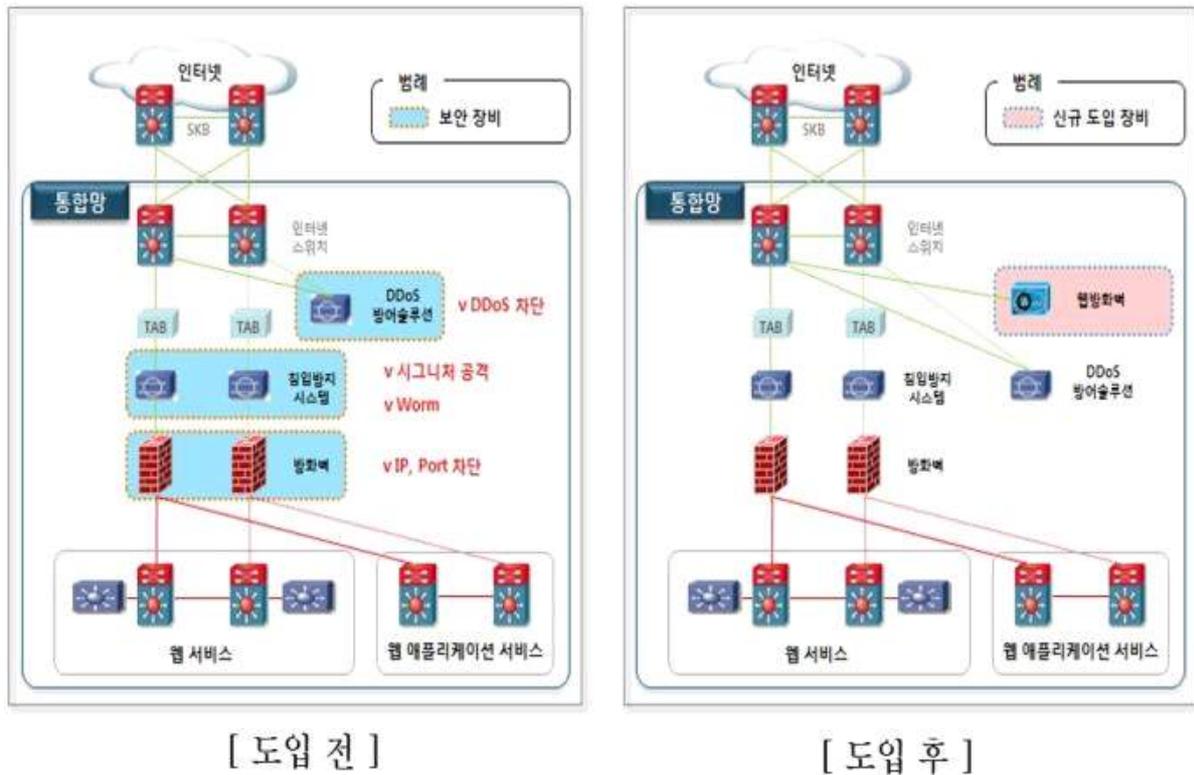


웹 사용자 증가로 침해사고 및 악성코드 신고 건이 증가함에 따라 웹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EBSe 영어사이트 웹 방화벽을 구축했다. 기존 운영 중인 보안 장비로는 웹 공격에 따른 HTTP³³⁾ 및 HTTP S³⁴⁾ 통신에 대한 방어 능력이 미흡했으나 웹 방화벽 구축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다.

33) HTTP(HyperText Transfer Protocol, 하이퍼본문전송규약) : WWW(월드 와이드 웹) 상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로써 주로 HTML 문서를 주고받는 데에 쓰인다. TCP와 UDP를 사용하며, 80번 포트를 사용한다. 1996년 버전 1.0, 그리고 1999년 1.1이 각각 발표되었다.

34) HTTPS(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 Layer, HTTP over TLS,[1][2] HTTP over SSL,[3] HTTP Secure[4][5])는 월드 와이드 웹 통신 프로토콜인 HTTP의 보안이 강화된 버전으로, HTTPS는 통신의 인증과 암호화를 위해 넷스케이프 커뮤니케이션즈 코퍼레이션이 개발했으며, 전자 상거래에서 널리 쓰이며, HTTPS는 소켓 통신에서 일반 텍스트를 이용하는 대신에, SSL이나 TLS 프로토콜을 통해 세션 데이터를 암호화한다. 따라서 데이터의 적절한 보호를 보장한다. HTTPS의 기본 TCP/IP 포트는 443이다. HTTPS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URI은 'http://'대신 'https://'로 시작한다.

<그림 3> EBSe 영어사이트 웹 방화벽 구축도



EBS 웹서비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³⁵⁾ 갱신 심사를 수행했다. 2013년 정보 보호관리체계인증을 취득한 이후 정보보호 관련 인증 유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보안 강화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갱신 심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인증을 유지함으로써 EBS 웹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했다.

IT 인프라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 비율 평가는 다음과 같다. 산정지수는 수능, 영어, 수학, 외국어, 통합웹, 초·중학 6개 사이트의 연간 인프라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 비율, 산출식(%)은 (당해 연도 정상 가동률 / 당해 연도 직전 3년 치 평균 정상 가동률)×100한 결과 100%의 무장애 서비스 유지 시간 비율을 달성했다.

35)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립·운영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등 종합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표 34> 2016년 인프라 가용시간(실적)

2016년 인프라 가동률	EBS (6개사이트)			
	월가동 예정 시간	장애시간	가동 시간	가동율
1월	4464	-	4464	100%
2월	4176	-	4176	100%
3월	4464	-	4464	100%
4월	4320	-	4320	100%
5월	4464	-	4464	100%
6월	4320	-	4320	100%
7월	4464	-	4464	100%
8월	4464	-	4464	100%
9월	4320	-	4320	100%
10월	4464	-	4464	100%
11월	4320	-	4320	100%
12월	4464	-	4464	100%
계	52704		52704	100%

4)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가) 평가기준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대응해 최고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IT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평가한다.

나) 평가내역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평가를 위해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사이트 이용자의 사이트에 대한 활용 방법과 빈도를 분석하고 서비스 개선에 대한 VOC를 접수 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선 과업을 진행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했다. IT 서비스의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평가 방법

- 대상 : 사이트 이용자 중 로그인 회원 기준(중복 참여 불가)
- 형식 : 인터넷 설문조사
- 평가 문항 수

구분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문항 수	35	44	46	46

○ 추진 일정 : 2016. 11. 21.(월) ~ 12. 07.(수)

○ 참여 인원(명)

구분	메인	초등	중학	클립뱅크
참여인원	5,573	2,471	3,006	1,163
응답 완료수	4,981	1,988	2,516	1,163
응답 완료율	89.4%	80.6%	83.8%	100%

○ 고객 만족도 평가 결과

- 산출식 : 4개 사이트의 고객 만족도 지수 합계 / 4

- 산출결과 : 4.21

사이트	2015년	2016년	증감률	5단계 환산점
메인	81.1	78.6	△ 3.1%	3.93
초등	86.5	89.1	3.0%	4.46
중학	85.6	87.5	2.2%	4.38
클립뱅크	82.9	81.9	△ 1.2%	4.10
평균	84.0	84.3	0.3	4.21

평가결과 및 제언

IT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EBS PLAY 앱 고도화, 초·중학 모바일 서비스 고도화, 클립뱅크 개인화 서비스 고도화, SNS 계정을 통한 회원 인증 적용 및 반응형 웹 서비스 개편을 추진했다.

EBS PLAY 앱의 고도화를 실행함으로써 EBS 타 매체 서비스와 비교한 결과 방문자 당 페이지 뷰 및 체류 시간이 증가했다. 이것은 UI/UX 및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기능 개선 작업이 사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해 서비스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표 35> EBS 타 매체 서비스 대비, 방문자 당 페이지 뷰 및 체류시간

구분	방문자 수	페이지뷰(PV)	방문자 당 PV	평균 체류시간
EBS Play	85,355	554,790	6.50	8:08
모바일 웹	950,304	4,499,971	4.74	4:34
사이트	3,062,622	11,192,588	3.65	4:00

그리고 초·중학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함으로써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수, 사이버 학급 이용자 및 출석 인원수가 증가했으며 교과 내용과 연관된 다양한 클립 동영상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만족도를 개선시켰다.

<표 36> 모바일 이용자수 증가 현황

구분	2015년 방문자 수	2016년 방문자 수	증감률
초등	4,718,870	7,196,918	52.5%
중학	5,304,172	6,711,130	26.5%

클립뱅크 개인화 서비스를 고도화해 사용자가 원하는 클립 자료에 도달하는 동선을 축소함으로써 페이지 뷰 대비 클립 이용률을 증가시켰고, 사용자의 참여를 통한 동영상 편집 서비스로 콘텐츠를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표 37> 페이지 뷰 대비 클립 이용 건수

년도	페이지뷰	클립이용 건수	페이지뷰 대비 클립이용률
2015년	2,361,035	1,038,928	44.0%
2016년	1,596,235	2,229,422	139.7%
전년대비 증감률	△ 32.4%	114.6%	95.7%

EBS는 IT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 이용자 및 서비스 이용률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그러나 더욱더 많은 이용자가 미디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EBS PLAY 앱의 신규 설치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하고 라디오(AOD 등)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EBS 반디 앱에 대해서도 추가 고도화를 진행해야 한다.

IT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결제 페이지의 UI 개선, 초·중학 모바일 강의 검수 시스템 구축, 초·중학 학습플레이어 기능 및 UI개선 등의 과제를 수행했다. 품질 개선 노력의 결과 2016년 초등 사이트 PC 강의 이용 건수가 약 4,156만 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고(2015년 약 3,496만 건) 2016년도 중학 사이트 PC 강의 이용 건수가 약 3,353만 건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2015년 약 2,567만 건)를 이루었다.

또한, 서비스 개선 요청에 대한 적기 처리율은 약 99%를 달성해 목표(96%) 이상의 성과를 냈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온라인 결제 수단(카드, 계좌이체, 모바일결제)외 최근 트렌드인 '간편결제' 방식을 추가로 확대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확대해야 한다.(현재 'Paynow' 1개만 연동 중)

안정적인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선 노력으로 기존의 EBSi 수능사이

트의 콘텐츠 백업 시스템을 개선해 안정성을 향상시켰고, 기술적 정보보호 향상을 위해 EBSe 영어사이트의 웹 방화벽을 구축했으며 EBS 웹서비스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갱신 심사를 수행했다. 그리고 장애 예방 활동 및 적극적인 장애 대응을 통해 IT 인프라 가동률 100%를 달성했다.

IT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초·중학 사이트의 고객 만족도는 소폭 상승 (초등 3%↑, 중학 2.2.%↑)했으나 메인과 클럽뱅크 사이트의 고객 만족도는 소폭 하락(메인 3.1%↓, 클럽뱅크 1.2%↓)했다. VOC³⁶⁾를 반영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서비스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비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36) VOC(Voice of Customer) : 관리 시스템 콜센터에 접수되는 고객불만사항을 접수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처리결과를 관서별로 지표화해 관리·평가함으로써 고객의 체감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고객관리시스템.

다. 방송 시스템 개선

평가내용

1)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가) 평가기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방송기술의 성격상 방송 장비의 도입은 어려운 과제다. 특히, 방송과 IT의 융합과 UHD 방송의 시작으로 새로운 기술의 등장이가속화되고 있어 어떤 장비를 어떤 시기에 어떻게 구입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방송장비는 고가이므로 이러한 결정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 장비 도입의 적합성은 신기술 정보의 취득 방법 및 공유, 방송장비 도입 체제 운영의 적합성 등의 측면에서 짚어본다.

나) 평가내역

EBS는 각종 전시회, 컨퍼런스, 세미나 등에 참석해 신기술 동향을 습득함으로써 적합한 방송 장비 도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술 정보 취득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2016 NAB 참관

- 일시 : 2016년 4월 18일~22일
- 장소 : 미국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 내용 : 2016 NAB 박람회 참가 및 컨퍼런스 동향 파악, UHD 관련 송출, 표준화, 제작, 후반편집 등 기술조사

2) 2016 KOBA 참관

- 일시 : 2016년 5월 24일~27일
- 장소 : 삼성동 코엑스 전시관

- 내용 : EBS부스 운영, 지상파 및 방송장비 부스 참관 자료조사, 컨퍼런스 참석

3) KOC 2016 참가

- 일시 : 2016년 10월 27일
- 장소 : 상암동 누리꿈 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
- 내용 : 4차 산업혁명, AI, 미디어전략, MCN 트렌드 등

4) 기술세미나 및 장비시연회

- 오디오 음량규제(Loudness) 솔루션 세미나 참석
- Wireless Camera 시연
- UHD카메라(AMIRA)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 “미디어 빅뱅시대, K콘텐츠 중국시장 진출전략” 세미나 참석
- 2016 스마트앱 트렌드 컨퍼런스 참석
- KBS 본관 TV 스튜디오 조명시설 견학
- 소니 UHD 제작솔루션 세미나 참석
- 4K 시스템 및 카메라 설명회
- 조명장비 Horizont Light 데모 실시
- Korea VR Experts Forum&Conference 참가
- 무선마이크시스템(Digital 9000) 시연
- ATSC 3.0 헤드엔드 시스템 파악 및 관련 업체 미팅
- 콘덴서마이크(M1030) 시연
- 더빙실 오디오 파일시스템 세팅 및 교육
- 오디오 Loudness Monitor 운용교육
- 2016년 NAB Preview: NAB 전시예정 UHD 장비 동향 파악
- RIEDEL Intercom System 시연회
- 트랙리스 버추얼 시스템 운용 테스트
- UHD Workflow 구현을 위한 4K 카메라 NLE호환성 점검
- MBC 본사 방문 UHD/4K 색보정 장비 시장 조사
- UHD 방송 부가서비스 개발 관련 회의
- D.I 편집 컬렉션 워크플로우 세미나
- 방송공학회 춘계 디지털 방송기술 워크숍 참석

- UHD 방송영상 품질 가이드 관련 회의
- 월드 IT 쇼 참관
- 2016 매경 스마트테크쇼 참관
- 지상파 UHD 정합 테스트 실무반 회의 참석
- 파일기반 워크플로우 실무 교육 연수 참석
- 4K 방송시네마 조명셋업 과정 교육 참석
- 지상파 UHD 표준 기술 워크숍 참석
- 파나소닉 EFP 및 Standard 4K 카메라 시연 및 기술동향 발표
- Grass Valley UHD IP 제작 솔루션 세미나 참석
- 버추얼 시스템 장비 Brainstorm infinity set 교육
- 웹월드 트렌드 컨퍼런스 참석
- 소셜 마케팅 케이스 스터디 2016 참석
- ESG 시스템 구축 협의회 회의 참석
- UHD Production Studio 구성 관련 기술 협의
- HD 및 UHD Lens 세미나 개최
- Sony XDS-PD Series Server 운용기술 세미나 참석
- UHD 편집용 코덱 및 S/W 성능 비교 검토 및 테스트
- MA2 Moving Console 교육 실시
- VR 합성과 Keyer 합성 비교 테스트
- HD → UHD 컨버터 Quark UP/Down Scaler 장비 테스트
- UHD 방송기술 전문교육 참가
- UHD 헤드엔드 장비 인코더 성능 검증 실시
- ATSC 3.0(LDM) 기술 국제 워크숍 참석
- UHD 리마스터링 기술동향 조사
- UHD 측정장비 기술세미나 참석
- Tektronix“Force of Change”2016 세미나 참석
- LG 사이니지 비디오월 시스템 시연회
- SAM Upscaler 시연회
- Sony UHD ENG 세미나 참석
- Imagine Upscaler 시연회
- Ross Video 12G 장비 시연회

방송장비를 도입하기 전에 신중한 의사 결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부 방송 장비 도입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 장비 도입 절차

- 현업 사용부서에서 필요 장비에 대해 장비관리부서로 구매 요청
- 장비관리부서에서는 장비의 스펙 및 수량 등을 예산부서와 협의해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한 후 방송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장비구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심의
- 심의를 통과한 장비에 대해 장비구매 품의 후 구매계약부서에 구입의뢰
- 구매 계약부서에서는 내용 검토 후 공개입찰 및 구매계약 진행

또한, 방송장비 도입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구매를 진행한다.

■ EBS 방송장비 구매 시 고려 사항

- EBS는 입찰 시에는 구매할 장비의 기술규격을 만족하는 모든 업체의 장비를 경쟁시키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채택
- 방송장비 구매 시 평균 2개 이상 업체의 제품을 경쟁제품으로 검토
- 방송장비 검토 시 고려하는 우선순위로 1순위 성능 및 호환성, 2순위 안정성
- 반면에 국산/외산 여부는 8순위로 두어 국산장비의 차별을 두고 있지 않음
- 제품 간 성능 차이가 있을 때에는 성능 테스트를 통해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입찰 시 배제할 수도 있음
- 제품 성능 차이가 없을 때는 최저가 제품을 구매

<표 38> 방송장비 구매 시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성능 및 호환성	안정성	가격	A/S	업체인지도 및 신뢰도	납품실적	사용부서 의견	국산 및 외산 여부

2) 방송망 관리의 효율성

가) 평가기준

방송망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단 없이 방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방송망에 관련한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방송망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요소로 방송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와 운영 실적, 방송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과 방송사고 대처 실적을 위주로 살펴본다.

나) 평가내역

EBS 방송망은 주조정실에서 송신소까지 신호전송은 EBS가 담당하고, 그 이후 경로는 방송법에 따라 KBS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KBS 송·중계소로 방송을 송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송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선에서 방송망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KBS 송·중계소를 통해 방송 송신이 이뤄지는 제한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EBS는 원활한 방송을 위해 KBS 송·중계소 방문 및 송신시설 조사를 통해 방송현황을 파악하고 다채널 방송과 관련해 안정적인 송신을 위한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고 KBS 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를 방송망 운영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시·청취자에 대한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KBS을 방문해 송·중계소의 근무자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안정적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EBS TV와 FM 방송 전송망(KT 방송전용회선)의 점검 및 시설 보완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했으며, 모니터링을 강화시키고 비상연락체계를 정립했다.

방송센터(우면동) 주조정실의 시스템 불능 시를 대비해 본사(도곡동) TV 5부 조정실을 임시 지상파 TV 주조정실 및 EBS 플러스 1,2, English의 임시 위성멀티 주조정실, 본사 더빙실은 FM 임시 주조정실로 운용한다. 또한, 방송재난 시 방송 중단이 없게 송출이 가능하도록 비상주조 승계 모의 훈련을 통해 비상송출시스템과 방송망 회선을 점검하고 있다. 방송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주조정실에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비치하고 전 근무자가 숙지 후 공람에 서명하도록 했으며 분

기별로 근무자들에 대해 시스템 교육 및 비상조치에 대한 재교육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또한, 비상조치용 회로도면을 근무자 옆에 비치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주기적으로 예방 점검과 송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3) 방송기술 개발 노력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UHD 방송의 활성화에 따라 차세대 송출 및 제작 기반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방송사에서는 새로운 방송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EBS도 적극적으로 방송기술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EBS의 방송기술 연구 개발 제도 및 시스템과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나) 평가내역

EBS는 현업과 연계된 실용적 연구 활동 수행을 목적으로 조직을 개편해 2016년 6월 1일자로 방송기술 연구에 대한 업무 분장은 교육방송연구소에서 융합기술 본부의 기술기획부로 변경되었으며 3명의 인력이 배정되었다. 차세대 방송표준포럼에서는 UHD TV분과위원회 및 UHD TV분과위 코덱&시스템즈 WG에 참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는 지상파방송 프로젝트 그룹, 시스템 및 코덱 정합테스트 실무반, RF 송수신 정합 테스트 실무반 참여 등을 통해 UHD 표준 동향을 파악했고 연구기관, 가전사, 타방송사 및 장비 제조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지상파 R&D 협의체 참여, 산업전략부 '차세대 방송 기술기획추진단' 기획팀 주관 선도전략 기술분과 참여 및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기술규정(방송표준방식분과) 제정반 참여 등 차세대 방송 기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방송기술 개발 실적은 다음과 같다. 2017년 9월에 예정된 지상파 UHD 방송 서비스를 대비해 UHD 시스템 정합테스트 및 H/E 장비 테스트를 진행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16년 5월 29일부터 적용된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 음량기준에 관한 업무지침'을 준수하고 법적 규제 준수를 통한 방송 프로그램 품질

향상을 위해 방송 프로그램 음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해 5개 방송채널(EBS 1TV, EBS 2TV, EBS 플러스1, EBS 플러스2, EBS English)에 적용함으로써 모니터링을 위해 수동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자동화시켜 법규 준수 확인을 용이하게 하고 제출 자료 생성을 용이하게 해 운용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DTV 폐쇄자막 색상을 도입해 다수의 출연자 대화를 구분해 표현함으로써, 청각장애인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이해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UX/UI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서비스가 확산됨에 따라, 2011년 당시 정보기술연구소에서 라디오 방송 애플리케이션 ‘반디’를 직접 개발해 EBS의 본격적인 모바일 방송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각 실행 부서를 중심으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들을 다각도로 진행했다. 이에 따라 EBS의 모바일 서비스를 위한 UX/UI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사용자들의 빠른 직관적인 사용법 습득을 유도해 편의성을 제고하고, 일관성 있는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4) 디지털 방송 제작 및 송출 시스템 투자의 효율성

가) 평가기준

EBS의 제한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제작과 송출 시스템에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성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이러한 투자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매출액 대비 디지털 방송 시스템 투자액 비율과 디지털 방송 시스템의 활용률 등을 살펴본다.

나) 평가내역

디지털 방송 제작 및 송출 시스템의 추진 실적으로 디지털통합사옥의 TV스튜디오 조명 기반을 마련했고, 2017년 방송 인프라 이전 및 구축 사업에 대비해 제작환경을 조성했고 콘텐츠 통합 분배, 통합사옥 전체의 제작공간화, 방송 인프라 통합운영을 통한 효율화를 모색했으며 TV/라디오 스튜디오 증설은 억제하고, 종합편집실 1실, 특수편집실 3실, 더빙실 2실, 오디오 마스터링룸 1실, 1:1 편집실 7실 등 편집시설을 증설해 야외촬영과 다큐프로그램의 제작 경쟁력을 향상시켰다.

디지털 방송 시스템 투자비율은 2015년 5,242,973천원에서 5,354,160천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며, 전체 매출액 261,335,940천원의 2.04%에 이르는 수준이다. 이는 2015년 1.94%에 비해 0.1% 증가한 비율로 적절한 수준의 투자비율로 보인다. 디지털 방송 시스템에 관련된 투자 비율은 아래와 같다.

<표 39> 2016년 매출액 대비 디지털 설비 투자비 비율 (단위 : 천원)

구분		2015년	2016년
매출액		269,958,218	261,335,940
디지털 제작 및 송출 투자	디지털 방송 제작 시스템	3,315,769	5,129,777
	송출 시스템	174,693	
	NPS 및 아카이브	1,752,511	224,383
	소계	5,242,973	5,354,160
	비율 / 매출액	1.94%	2.04%

※ 통합사옥 방송 인프라 이전 및 구축 SI사업 비용은 2016년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직접 도입한 방송장비 투자금액만 반영

5) 방송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정도

가) 평가기준

파일기반 제작시스템은 콘텐츠 제작에서 불필요한 시간 및 노동을 감소시켜 업무 생산성에 도움을 주고 고품격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방송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파일제작 시스템 구축 및 워크플로우 개선운영 실적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나) 평가내역

EBS는 효율적인 콘텐츠 제작, 관리 및 안정적인 방송 송출을 위해 다음과 같이 디지털 워크플로우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

<표 40> 디지털워크플로우 추진 실적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제작시설 시스템 전환율	72%	90%	96%	97%
주요 실적	디지털 워크플로우 기획·구축	파일기반 시스템 연계 확대	디지털 워크플로우 본격 운영	디지털 워크플로우 안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PS→송출→아카이브 단계의 파일기반의 방송 워크플로우 구축 ▶ 파일기반 종합편집 및 심의시스템 시범 구축 ▶ 위성채널 재활용 파일기반 전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더빙실/부조·중계차 연계 확대 ▶ 지상파 디지털워크플로우 시범 운영 (2개 프로그램) ▶ 사전 인코딩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상파 프로그램 99% 파일 전환 ▶ SB 제작·운영 파일전환 완료 ▶ 파일기반 심의 시스템 전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디어 통합 관리 시스템 고도화 ▶ 주기적인 시스템 예방점검 ▶ NLE Help Desk 운영 및 사용자 교육 진행
			미디어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통합사옥 파일기반 시스템 기획
			▶ 대/내외 플랫폼 유통 기반 마련	▶ 통합사옥 NPS, 아카이브시스템 설계

디지털 워크플로우 개선을 추진한 결과 파일기반 제작시스템 전환율은 97%이고 기존의 테이프 기반 제작시스템에 비해 콘텐츠를 저장·편집·송출함에 있어 효율성을 크게 높였고 병렬적, 협업적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네트워크를 통한 고속의 파일 전송이 가능해졌다.

EBS는 파일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정립하고 콘텐츠 운영에 필수적인 콘텐츠 관리 솔루션을 고도화해 콘텐츠 제작·송출·서비스 전 과정에 대해 파일기반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워크플로우 운영으로 현존하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사전에 제거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심의 시스템을 고도화해 자체 제작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 및 송출 입고 워크플로우를 구축했으나, 제작 여건상 일부 프로그램은 테이프로 운영 중이지만 테이프 형태로 송출 입고되는 프로그램은 주소정실에서 미리 인코딩해 파일기반으로 광고를 편집하고 송출하도록 했다. 이렇게 디지털 워크플로우

정립 및 콘텐츠 관리 솔루션 고도화를 통해 자체 제작(종합편집) 프로그램의 98.5%가 파일기반으로 제작되고 있다.

<그림 4> 파일기반시스템 운영 현황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기존의 사전인코딩시스템을 보완해 예고 SPOT과 프로그램 사후 수정 파일도 웹서비스에 자동으로 생성·탑재했다. 또한 파일기반 시스템 운영 시 현존하는 장애 요인을 사전 제거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NPS(제작), E-DAS(아카이브) DMC(송출)의 서버 및 DBMS에 대해 보안을 강화했다.

6) 인력 역량 강화 노력의 정도

가) 평가기준

방송의 트렌드와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미디어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은 점차 다양하고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인력의 전문화가 매우 중요하고 기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변화 된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 방통융합시대에 적합한 능력을 겸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따라서 인력 역량 강화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 요소로 기술 인력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건수를 이용하고자 한다.

나) 평가내역

방송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시에 VR³⁷⁾, AR³⁸⁾을 비롯한 수많은

은 기술이 등장해 다양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기존 방송 시스템 및 환경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응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방송 시스템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각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통해 EBS만의 자체 콘텐츠 생산과 방송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 인력을 상대로 사내·외 교육을 통해 한 차원 높은 관련 기술들을 습득하고 인문학적 지식도 함양할 수 있도록 해 방통융합 시대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BS에서 추진한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실적으로는 국내 직무연수는 11건에 총 61명이 참여했고, 국외 직무연수는 10건에 총 23명이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표 41> 국내 연수 실적

건수	연수 과정	일시	참여인원	참여부서
1	웹월드 모바일 컨퍼런스	4.19-22	8명	IT운영부
2	춘계 디지털 방송기술 워크숍	5.11-5.12	1명	기술기획부
3	편집 컬렉션 워크플로우	5.2-4	2명	편집부
4	KOBA 컨퍼런스	5.25-27	17명	융합기술본부 정책기획부 콘텐츠사업부
5	4K 방송 시네마 조명 셋업	6.8-9	1명	제작기술부
6	ADOBE 크리에이티브	7.6	2명	편집부
7	지상파 UHD 표준 기술 워크숍	6.20-21	1명	기술기획부
8	웹월드 트렌드 컨퍼런스	7.5-6	4명	IT운영부
9	NLE 편집 소프트웨어 직무 교육	8.26-9.2	23명	편집부, 융합기술본부
10	HDR 제작워크플로우	8.31-9.2	2명	편집부
11	추계 홀로그래피 심층기술 워크숍	10.31	1명	네트워크기술부

37) VR(Virtual Reality) : 컴퓨터 등을 사용한 인공적인 기술로 만들어낸 실제와 유사하지만 실제가 아닌 어떤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 혹은 그 기술 자체를 의미한다.

38) AR(Augmented Reality) : 실세계에 3차원의 가상물체를 겹쳐서 보여주는 기술을 활용해 현실과 가상환경을 융합하는 복합형 가상 현실.

<표 42> 해외 연수 실적

건수	연수 과정	일시	참여인원	참여부서
1	CCBN(중국)	3.24-27	2명	제작기술부, IT운영부
2	NAB(미국)	4.16-23	1명	디지털영상부
		4.17-23	5명	기술기획부 디지털편집부 교육방송연구소 플랫폼운영부 융합기술본부
3	화웨이 UHD 연수(중국)	6.15-20	1명	기술기획부
4	MWC 상하이 2016	6.28-7.1	1명	IT운영부
5	Virtual studio system 연수(스페인)	6.25-7.3	2	영상기술부
6	IBC(네덜란드)	9.6-12	2	IT운영부 영상기술부
7	디머 콘솔 장비 연수 (일본)	10.12-15	3명	제작기술부
8	오디오 믹서 장비 연수 (일본)	11.12-18	2명	제작기술부 편집부
9	Interbee (일본)	11.15-18	1명	제작기술부
		11.16-19	1명	영상기술부
10	LAWO 라디오 스위처 연수(독일)	11.28-12.4	2명	네트워크기술부 제작기술부

7) 제작시설 활용의 효율성

가) 평가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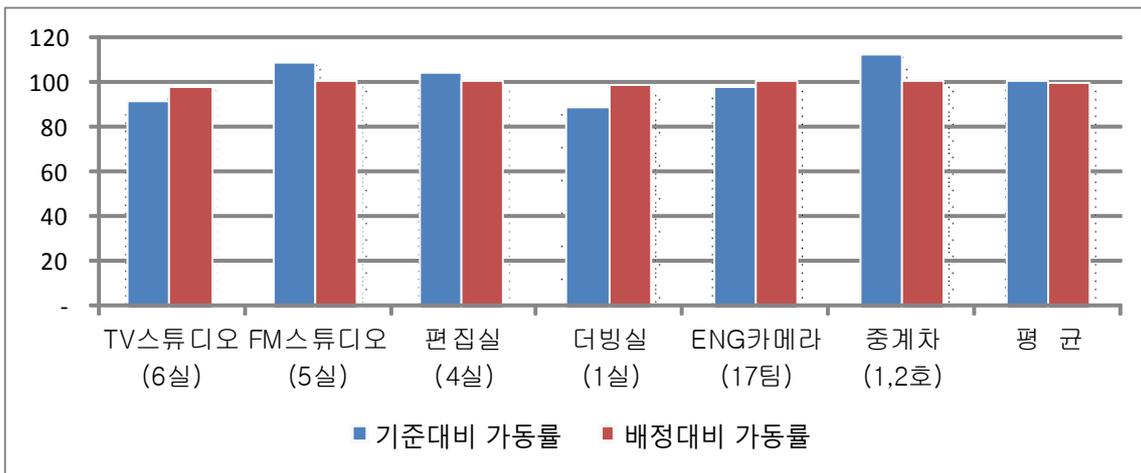
제작시설은 제작자들이 공유하는 공간과 시설인 만큼 적절한 배정 기준과 운용시스템이 구비돼야 하며, 고가의 장비이므로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따라서 제작시설 활용의 효율성은 제작시설 운용의 효율성에 대해 평가한다.

나) 평가내역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설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상반기 (2016.2.29. ~ 8.28, 124일/992시간, 공휴일 및 휴무일 제외) 동안 제작시설 및 장비의 <정상 근

로 시간 내 운용 가능 시간 및 횟수) 대비 <실제 운용 시간·횟수>를 계산해 가동률을 산출했으며, 스튜디오, 편집실, 더빙실은 운용시간, ENG 카메라 및 중계차는 운용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를 사용했다. 분석 대상 제작시설은 TV스튜디오(6실), FM스튜디오(5실), 종합편집실(4실), 더빙실(1실), 제작 장비 중계차(1,2호), ENG(17팀)을 대상으로 했다. 다음은 제작시설의 가동률 총괄표이다.

<그림 5> 제작시설 및 장비 가동률



2016년도 전반기 제작시설 및 장비 평균가동률은 100.5%로 2015년도 후반기 가동률(93.6%) 보다 평균 6.9% 증가했으며 중계차 가동률은 2015 하반기 대비 <장학퀴즈> 프로그램에 중계차 배정 및 '파일전송 및 오디오다운믹싱'의 중계차 내 제작으로 가동률이 42% 상승했고 ENG는 다큐프라임 프로그램 수시편성에 따른 변동성과 협찬 프로그램 증가로 2015 하반기 대비 가동률이 11% 증가했다.

8) 프로그램 품질 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EBS는 공영방송으로서 시청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 품질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파일기반 제작시스템, 스튜디오, 중계 제작 등에 대한 다양한 기

술적 지원 및 품질 평가 시스템의 운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실적 및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 평가 시스템 운영 정도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나) 평가내역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교육연수를 통해 제작 기술의 역량을 강화했으며, 프로그램 시사회 및 스텝간담회를 거쳐 제작 시 미비한 부분을 발견하고 조치를 취해 향후 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다음은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연수 실적이다.

<표 43>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한 지원 및 연수 실적

구분	운영 실적
TV 영상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관련 스튜디오 기술 지원 ○ 파일기반 제작시스템 지원 ○ NEWS 시스템 지원 ○ 버추얼 프로그램 제작 지원 ○ 중계 기술 지원
TV 음향/조명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스튜디오 기술 지원 ○ 파일기반 음향 인프라 보강 ○ 방송법 개정에 따른 디지털 TV방송 음량 기준(LKFS) 준수 ○ 방송기술 연수를 통한 제작역량 배양 ○ 프로그램 사전협의회 활동
TV 편집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의 사운드 믹싱 제작을 위해 주 1회 오디오 마스터링 시사회 실시 ○ 편집부의 4개 전문영역 관점에서 바라 본 프로그램 평가 12회 실시 ○ 자체 직무 연수 강화와 외부 전문기관 교육을 실시하고 방송기술발전 동향 파악에도 적극적으로 대응
중계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시사회 및 간담회 매월 1회 실시 ○ 모여라 덩동댕의 후반 믹싱으로 오디오 품질 향상에 기여 ○ 중계기술 직무역량 강화 ○ LTE, 유선 인터넷망을 이용한 현장 촬영 영상을 원격지로 실시간 중계
라디오 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디오 스튜디오 기술 지원 ○ 신규 FM 송출 시스템 고도화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5부조정실 비상 송출 시스템운영 지원 ○ 프로그램 시사회를 통한 품질 개선 활동 연 12회 개최

프로그램 품질 개선을 위한 품질 평가 시스템의 운영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산정 지수는 프로그램 시사회를 통한 품질 평가 횟수, 산출식은 (당해 연도 실적 / 당해 연도 목표)×100으로 했다. TV부문은 총 12회, 특수편집, 음향믹싱 밸런스, 색보정, 완성편집 부문은 총 12회, 라디오 부문은 총 12회의 프로그램 시사회를 통한 품질 개선 실적이 있어 산출결과 100%를 달성했다.

평가결과 및 제언

방송 시스템 개선을 위한 세부 항목으로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 방송망 관리의 효율성, 방송기술 개발 노력의 적정성, 디지털 방송 제작 및 송출 시스템 투자의 효율성, 방송 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의 정도, 인력 역량 강화 노력의 정도, 제작시설 활용의 효율성 및 프로그램 품질 개선 기술 지원 및 실적을 평가했다.

방송장비 도입의 적합성을 평가한 결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제품과 방송기술의 동향을 파악하고 방송 장비의 구매는 구매 요청부터 도입까지 전체적으로 정해진 프로세스에 의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장비 도입의 필요성 등을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구매 과정에서도 형평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국내 방송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국산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도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EBS 방송망 운영은 주로 사고 예방을 위해 수행되며, 이를 위한 제도 및 운영 실적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고 대비 교육 및 모의 훈련 실시로 비상 방송 송출 능력도 확보한 것은 안정적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송신 업무를 KBS가 담당함에 따라 방송사간 협력 및 정보 공유는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KT와 협력해 방송 전송망의 안정성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시청자의 콘텐츠 소비 형태가 IPTV, 케이블TV, 위성TV 등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방송기술 개발 노력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주어진 환경에서 시기적절하게 현업과 연계된 실용적 기술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기술 개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 개발 실적이 너무 현업과 연계된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2017년 9월에 예정된 UHD 방송에 대비하고 신규 플랫폼과 방송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최소한 타 지상파 방송사의 기술 연구 인력 비율에 해당하는 연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디지털 방송 제작 및 송출 시스템 투자의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디지털통합사옥의 TV 스튜디오 조명 기반을 마련하고 2017년 방송 인프라 이전 및 구축 사업에 대비해 제작환경을 적절하게 조성했다. 또한, UHD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야외촬영용 UHD ENG 카메라와 렌즈를 도입했고 UHD 3D CG 제작역량확보를 위해 그래픽 랜더팜 시스템을 증설해 UHD 콘텐츠 제작의 기반을 마련한 것은 적합한 투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7년 9월로 예정돼 있는 UHD 방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UHD 콘텐츠 제작 장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방송 제작 워크플로우 개선 노력에 대해 평가한 결과 전체 파일기반 제작시스템의 전환율은 97%이고 지상파 자체 제작 프로그램은 전환율이 98.5%로 콘텐츠 제작의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사전인코딩시스템 예고편 관리 기능 추가로 예고편, 프로그램 사후 수정본의 웹서비스 영상 생성 및 배포를 자동화했으며 파일기반시스템 운영 시 현존하는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사전에 제거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UHD 방송 및 안정적이고 원활한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스토리지 용량을 증가시키는 등 추가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EBS는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모바일 융합 분야의 교육을 통해 차세대 방송 엔지니어를 양성한다는 기본 운영 방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을 통해 통합형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노력한 부분, 차세대 방송인 UHD를 대비한 제작·송출 교육을 실시한 부분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직무 이동 인원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고 자기 분야의 심화 과정 연수를 통한 전문성 증진에 신경을 쓴 부분 역시 목표에 부합하다. 또 급격한 미디어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외부 세미나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부분도 긍정적이다. 다만 교육 수강에 그치지 않고 본인 스스로 학습해야 최종적인 지식 습득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 조성에 대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소통을 통해 스터디 그룹을 조성하고 지원해줌으로써 직원들 스스로 전문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고 새로운 미디어

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 연수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 수 있는 다양한 연수도 제공해야 한다.

제작시설 활용의 효율성을 평가한 결과 스튜디오 등 제작시설의 활용도는 최 대치에 근접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시설의 사용으로 조기에 노후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구성원의 업무강도에 대한 세심한 조절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은 콘텐츠 제작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준비 시간 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는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 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품질 개선 기술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프로그램별 시사회를 개최해 품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스태프 간담회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고 다양한 직무교육연수를 통한 제작 기술 능력을 함양해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했다. 그러나 프로그램 시사회 결과에 대한 내용이 타 제작부서와 공 유가 원활하지 않다. 따라서 타 부서와 유기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협의를 철저히 준비해 품질이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라.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평가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가) 평가기준

기술부문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조직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위주로 개선 노력 정도를 평가했다.

나) 평가내역

2015사업연도 경영평가 기술부문 지적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 확대 필요, 둘째, 미래 방송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확충과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 필요하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한 조치 및 개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했다. 우선 EBS Play 앱 고도화를 통해 사용자 성향에 따른 초기화면(일반/키즈 모드) 선택 및 맞춤형 콘텐츠를 적용해 이용자의 콘텐츠 접근성을 개선했고 클립뱅크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클립 조회 이력에 따른 개인 맞춤형 콘텐츠 추천 서비스 적용 등 수요자 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향후에는 Collaborative Filtering(협업 필터링)³⁹⁾ 기반 개인화 서비스 도입을 위한 관련 사항을 검토할 예정으로 맞춤형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둘째, 미래 방송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확충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 측면에서는 기술연구인력 및 관련 업무를 교육방송연구소에서 융합기술본부 내로 편입해 3명의 인력으로 시급한 현안 업무인 UHD 송출시스템 구축 준비, 표준화

39) Collaborative Filtering(협업 필터링) : 같은 콘텐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콘텐츠 취향이 비슷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한 콘텐츠 추천 서비스

활동, 스마트 서비스, 지상파4사 공동 연구 등 다양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다. 타 방송사 기술 인력 대비 낮은 비율로 다양한 활동과 기술 개발 실적은 높지 않다. 평가하나, 업무가 협업 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미래 방송서비스 개발·적용 업무로 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전사 차원의 투자 및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평가결과 및 제언

2015사업연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중 상당 부분은 개선의 노력을 보인 점을 높이 평가한다. 다만 일부 지적사항은 기술조직 내의 노력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미래 방송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확충과 연구 개발에 대한 지속적 투자' 지적사항의 경우 전사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부문 대표 집필위원 : 이상운 위원

4. 경영부문

EBS 경영평가 중 경영부분 평가의 목적은 EBS 경영전반에 대한 계획, 관리 방식과 운영성과를 점검하는 것이며, 2016년도 12월에 개선된 2016사업연도 EBS 경영평가편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경영전략, 조직·인사, 재무·경영정보, 홍보 및 사회공헌도,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의 5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각 분야별 평가는 각 부서에서 작성한 2016년도 EBS경영평가 경영부분 자체 평가를 중심으로 사전 서면평가를 거친 후, 필요시에는 추가적인 자료를 각 부서에 요청해 자체 평가서를 작성한 담당 부서의 부서장들과 면담을 하는 순으로 진행했다. 면담 과정에서 불확실한 사안이나 의문이 있는 부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통해 현장평가를 완료했으며, 이후에도 추가 자료를 수취하고 분석해 최종결과에 반영했다.

<표 44> 경영부문 경영평가 분야의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가. 경영목표 및 전략	1. 경영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2.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의 정도
나. 조직 및 인사관리	1. 조직운영의 효율성 2. 인사관리의 적정성 3.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1.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2.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3.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1.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2.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마.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가. 경영목표 및 전략

평가내용

1) 경영목표 및 전략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경영목표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경영목표에 따라 경영전략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부와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의 적절성에 대해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1. 경영목표의 적정성, 2. 경영전략의 적정성 및 프로세스 개선 노력 정도, 3.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적정성으로 구성했다.

나) 평가내역

① 경영목표의 적정성

2016년도 경영목표는 방송, 교육, IT 기술의 환경 변화 추세에 맞춰 인성·창의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을 경영목표로 설정했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정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EBS의 사명과 역할, 매체와 이용자 환경 및 이용자 콘텐츠 이용 행태 변화 등에 대한 선도적 대응을 중요한 경영지표로 삼았다.

경영목표 중 '인성·창의 교육 강화'를 위해 미래 인재 교육 콘텐츠, 교육 의제 프로그램, 인성·창의·안전 교육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강화했고, 명품 콘텐츠 확대를 위해 명품 콘텐츠 대기획을 실시했으며, UHD 시대를 대비해 고품질 콘텐츠 제공을 위한 UHD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청자들에게 방영했다

대국민 스마트 서비스 구현을 위한 디지털통합사옥 건립 추진 및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최근의 방송과 IT 기술의 발전에 대비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디지털통합사옥 건립을 추진했다. 디지털통합사옥의 건립 취지는 모바일과 스마트시대를 대비하는 것으로 방송·IT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고, 미래 환

경 변화에 대응한 대국민서비스 방향 설정 및 EBS 미션과 목표를 정립하고자 조직개편을 통해 정책기획센터를 정책기획본부로 확대하고 정책기획본부 내 미래전략팀을 신설했다.

② 경영전략 수립의 적절성 및 프로세스 개선 노력 정도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되었다. 최근, 모바일시대의 도래로 미디어 환경과 이용자·이용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콘텐츠와 서비스 역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따라 EBS는 2016년 경영목표를 ‘인성·창의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으로 설정하고, 전 국민의 교육복지 개선과 이용 편의 증진에 노력했다.

경영전략의 수립 절차와 방법에 있어 현재 EBS 내부 규정인 ‘직제시행세칙’ 등에 따라, 경영전략은 정책기획본부 정책기획부에서 수립하는데, 경영전략은 크게 단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으로 구분된다. 단기 전략은 매년 말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방송기본계획’이 대표적이며, 당해 연도 경영목표 및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고, 중장기 전략은 ‘2020 비전’과 같이 중장기 목표와 지향을 명시한 것으로써, 현재 새로운 비전 수립을 준비 중이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노력으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방송법 규제 완화를 통한 프로세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MMS 시범서비스를 위한 방송 허가 변경 신청 및 EBS 2TV 사업계획서를 제출(1월)하고, 유료방송 플랫폼에 MMS 방송을 송출하기 시작했다.(케이블TV : 4월, IPTV 3사 : 11월, 위성방송은 미송출) 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비한 사업다각화 및 효율화를 위해 사내기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수립해 시행했다.(최초의 사내기업 ‘모바일판사업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종합정보시스템의 노후화와 기능적 한계상황에 도달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계획과 관련해 새로운 정보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의 도입을 결정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일 중심의 조직문화 확산과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

추진 경과로는 2016년 8월 ERP 도입을 위한 부서별 인터뷰 조사와 2015년 EBS 경영평가 보고서에 따라 ERP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2016년 10월 경영진 보고를 통해 ERP시스템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사업범위와 사업추진 방향 설정을 위한 ISP 컨설팅을 수행했으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 중이다.

유료방송 플랫폼 채널번호 정책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대처했다. 지상파의 유료 플랫폼 의존도(95% 이상) 심화 및 유료 가입자 수 증대 불구, 채널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유료방송 플랫폼에 상관없이 1TV, 2TV 채널별 고유 특정번호를 확보했고, EBS TV의 최우선 채널번호는 EBS DTV 허가장 상의 번호인 1TV [10-1]번, 2TV [10-2]번으로 배당받았다.

③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의 적절성

EBS 중장기 경영전략(재무계획)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책기획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예산 전반의 기획과 편성, 조정과 관리를 담당하는 정책기획본부 기획예산부를 중심으로 경영지원센터 재무회계부 등 관련 부서가 협업하는 형태로 효과적인 재무계획을 수립했다.

EBS의 연간 재무계획(예산편성)은 당해 연도 3분기까지의 예산 대비 집행실적 산출을 기점으로 시작해 정책기획센터 기획예산부에서 4분기 초, 모든 부서에 예산편성 지침을 통보하면, 각 부서에서는 동 지침에 따른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후 기획예산부와 각 부서간 설명회 등 협의를 거쳐 간부진이 참여하는 종합 검토 회의에서 다음 해 재무계획[예산(안)]으로 정리되고, 이사회 의결로 확정되는 절차로 진행했다.

2) 경영투명성 제고 노력의 정도

가) 평가기준

지배구조 확립과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및 감사 제도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1. 이사회 운영의 활성화 정도, 2. 감사활동의 활성화 정도, 3. 직원의 청렴도 제고 노력으로 구성했다.

나) 평가내역

① 이사회 운영 활성화 정도

2016년도 이사회, 간담회 및 워크숍은 총 21회를 개최해 의결안건 21건, 보고안건 18건 등을 심의 및 의결했다. 특히, 이사회는 EBS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중장기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집행부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해 EBS의 주요 현황 및 현안을 점검하는 등 공사의 투명한 경영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EBS 이사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비상임 이사 9인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전원 임명하며, 이사회 의장과 집행부의(대표) 분리운영으로 이사회 독립성이 확보되었다.

현재 이사진의 구성은 비상임 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교육부장관 추천 1인, 대통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등 총 9인의 이사가 2015년 9월 15일에 구성되었다.

또한 이사회는 방송, 언론, 교육 및 법률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교육전문 공영방송에 걸맞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어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최고 의결기구로서 EBS의 주요사업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성실히 수행했다.

<표 45> 2015년 이사회 개최 현황

구 분	개최횟수	심의의결 안건수			
		총건수	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
정기이사회	11	17	5	12	-
임시이사회	3	7	7	-	-
간담회/워크숍	11	11	-	-	11
계	25	35	12	12	11

<표 46> 2016년 이사회 개최 현황

구 분	개최횟수	심의의결 안건수			
		총건수	의결안건	보고안건	기타안건
정기이사회	10	29	13	16	-
임시이사회	4	10	8	2	-
간담회/워크숍	7	14	-	-	14
계	21	53	21	18	14

2011년 이후 평가편람이 개정되지 않아 최근 수년간 경영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평가 지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사회는 전문 연구기관인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의뢰를 통해, 집행부와 지난해 경영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5년간 경영평가 시 제기된 지표 권고사항 등을 종합 정리해, 정량평가 지표를 최초로 도입하고 용어를 명확화하고, 각 부문 간 중복된 평가 지표 등을 조정하는 등 평가편람을 개정해 현시점의 경영 상태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표 47> 평가 지표 개수 및 배점 현황

부문		현행 평가편람	개정(안)	증감
방송부문	지표	16	13	▽3
	배점	300	300	-
교육부문	지표	15	13	▽2
	배점	300	300	-
기술부문	지표	18	15	▽3
	배점	200	300	△100
경영부문	지표	17	11	▽6
	배점	200	300	△100
계	지표	66	52	▽14
	배점	1,000	1,200	△200

② 감사활동의 활성화 정도

내부 감사로 일상감사 2,294건, 정기감사 4건, 특별감사 1건 등을 실시해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제반 규정 준수 여부 등 위험관리 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했고,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법령·규정 등 객관적인 기준 준수 여부 검토 및 개선점 도출을 통해 EBS의 경영 합리화 달성에 기여했다.

외부감사로 감사원의 EBS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2016.10.31.~11.16.)가 실시되었으며 2017.2.6.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의 3(EBS 관련 3건, 나머지 2건은 교육청 대상), 통보 7을 포함해 전체 10건을 전달 받았으며, 처분 사항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

<표 48>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 현황 (10건)

순번	감사원			EBS	조치 상황
	처분 사항	조치할 사항	유형	조치내용	
1	학습용 교재 과다제작 및 재고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자 반응, 판매추이 등을 고려해, 제작, 판매 ○ 반품, 폐기교재 최소화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발간교재 대상으로 판매추이를 고려한 분할제작 적용 (2017년 1월 이후) ○ △총판 평가지표 보완 및 수준별 재고 등록 관리방안을 수립 중 (2017년 내 완료예정) △ERP시스템 도입(2018년 7월 예정)을 계기로 도매서점 보유 재고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 	부분 조치
2	물류대행사 선정계약 입찰참가 제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대행사 선정 입찰 참가 자격 개선 ○ 물류대행사 선정 시 공평한 제안서 평가기준 운용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물류대행사 선정('17년 3분기 중 선정예정)부터 입찰참가자격 요건 확대 예정 ○ 2018년 물류대행사 선정('17년 3분기 중 선정 예정)부터 제안서 평가기준 일부 개선, 적용 예정 	조치 중
3	상위직급 과다 등 인력운용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직급 인력규모 적정 수준 운용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별 정원 설정 및 상위직급 인력운용 개선과 관련해 노사협의를 통해 추진예정(2017년 6~12월 예정) 	조치 중
4	성과급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성과평가 없는 성과급 지급 불가 ○ 자기계발연수제도 및 직원 단체상해보험료 등 후생복지 운용 부적정 	주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성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 지급 원칙 반드시 준수 ○ 자기계발연수 및 직원 단체상해보험 지원 등은 연내 노사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안 마련(2017년 6~12월 예정) 	조치 중
5	교원강사 선발 및 겸직허가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강의 출연 교원 사전에 소속기관 겸직허가 필수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활동 전체 교원에 대한 겸직 여부를 확인해 누락된 허가증을 수합 및 겸직허가 미취득 교원 해촉 완료(2017년 2월) 	조치 완료
6	온라인서점 (EBS북몰) 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몰 운영중단 방안 강구 및 홈페이지 교재 판매 메뉴기능 보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위탁운영계약(2016.12월 체결) 시 운영중단 가능 조항 삽입 후 운영중단 관련사항 검토 중 (2017년 6월 내 최종결정 예정) 	조치 중
7	방송제작 외부 용역 업체등록 제도 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용역 수의계약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및 공개입찰방식 변경 요청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용역의 총 추정가격이 3천만 원 (26주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쟁계약 및 긴급한 방송일정 등의 경우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을 통한 계약을 2017년 봄 편성부터 내부 결재 후 시행하고 있음(2017년 2월부터 시행) 	조치 완료
8	공동제작 애니메이션 선정 및 후속작 제작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제작 신규 애니메이션 선정기준이 미비하며, 기준 마련 제시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BS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운영기준안 수립(2016.12.12.) 및 애니메이션 공모를 실시했음 (2017년 1월부터 시행) 	조치 완료

순번	감사원			EBS	조치 상황
	처분 사항	조치할 사항	유형	조치내용	
9	한국교육방송공사 미주지사 운영 부적정	○ 미주지사 실적 및 향후 전망 등을 고려해 운영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	통보	○ 미주지사의 축소, 지속 여부는 2017년의 사업성과와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중에 있음 (2018년 6월 내 최종결정)	조치 중

③ 직원의 청렴도 제고 노력정도

신원보호가 강화된 ‘익명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내·외부 민원사항 제보를 활성화했다. 신분노출 우려로 인한 기존 신고 시스템 이용률 저조 문제를 개선하고자 3월부터 외부기관(레드휘슬)에 신고시스템을 위탁 운영해 3월 시행 이후로 총 24건이 접수되었으며 23건 처리 완료했다. (1건은 2017년 처리됨)

청렴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CLEAN EBS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을 대비해 규정 개정 및 청렴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2016년 국가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EBS 종합청렴도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되었다.

<표 49> 이사회 ‘윤리경영실천 종합대책(안)’ 보고(2016년 4월)

구분	2015년	2016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03 청렴선포식 개최 ○ 2015.03 협력업체 대상 1차 서신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리한 계약관계 등 제도개선 목표 ○ 2015.11 법인카드 집행 투명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카드 상시모니터링 운영 - 집행내역 소명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02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 2016.02 인사규정시행세척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에 의한 징계 재심 시 초 임양정 상회 가능 ○ 2016.02 협력업체 대상 2차 서신 발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 경영의지 전달 및 협조 요청 ○ 2016.03~08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컨설팅 실시 ○ 2016.03 부장 보직자 징계위원회 특별징계위원회로 상향 조정 ○ 2016.04 부패행위 신고접수시스템 클린신고센터」 운영 ○ 2016.04. 징계위원회 외부인(2인) 참여 구성 ○ 2016.07 징계 대상자의 직상관리직위자 징계심의 제척 ○ 2016.07 징계시효 2년 → 3년으로 확대 ○ 2016.08~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총8회 진행 ○ 2016.08~ 임원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사장 → 사장, 부사장, 감사)

평가결과 및 제언

2016년도 경영목표는 전년도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계승해 발전시키되 세부 시행과제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각 목표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교재의 재고수량관리 측면에 있어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국정조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다 근원적인 해결책이 요구되었다. 이에 수량관리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출했다. 즉, 수요예측 시스템 설계인력을 충원하고 판매추이에 따른 분할제작의 시행을 통해 원가절감안을 제시했다.

<표 50> 2016 vs 2017 분할제작수량 비교

구분	2016년		2017년	
	차수	제작부수	차수	제작부수
[수능특강] 영어	1차(1/1)	749천부	1차(1/9)	620천부
	2차(2/28)	100천부	2차(2/14)	99천부
	소계	849천부	3차(3/7)	30천부
			소계	749천부
[만점왕] 5학년 수학	차수	제작부수	차수	제작부수
	1차(12/1)	19천부	1차(12/1)	18천부
	2차(1/11)	10천부	2차(1/9)	6천부
	소계	29천부	3차(1/17)	5천부
			4차(3/3)	5천부
		소계	34천부	

그리고 온라인 판매추이를 분석해 반품 비중이 매우 낮은 온라인 부문의 전년도 판매실적을 제작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예측의 정확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2016년에도 이사회는 2015년에 비해 증가된 안건을 적은 개최 회수를 통해 효과적으로 심의했다. 내부와 외부 감사활동을 통해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특히, 이사회는 중장기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집행부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경영평가편람 개정을 통해 합리적 경영평가 모형을 개발했다. 그리고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 통합사옥 이전과 더불어

새로운 정보시스템으로 경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익명신고시스템'과 'CLEAN EBS' 운동을 통해 청렴한 조직으로의 변화를 꾀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조직 및 인사관리

평가내용

1) 조직운영의 효율성

가) 평가기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변화관리 노력 정도, 인력운영의 적정성, 직원만족도 정도 및 개선 노력 등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1. 조직운영 관련 문제해결 노력 정도, 2. 인력운영의 적정성, 3. 조직운영에 대한 직원만족도 정도로 구성했다.

나) 평가내역

① 조직운영 관련 문제해결 노력 정도

조직운영 현안인 장년적합직무·적정 정원·직급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장년 적합 직무개발 지원 사업 및 적정 인원 산정 컨설팅을 각각 실시하고, 일반직(나)(다) 임금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일반직(다)에도 직급제 운영 도입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장년적합 직무 개발 지원 사업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장년친화직장 만들기 지원사업’을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추진 성과 및 실시 결과로는 1. 장년 직원에 대한 체계적 인력운영 방안 확보, 2. 장년 직원의 노하우 및 경험의 효율적 활용 방안 구체화, 3.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의 애사심 향상을 도모했다.

표 51 장년친화직장 만들기 지원사업 성과

추진 전	추진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적합직무 개발 및 배치 실시 필요 • 장년 적합직무 발굴을 위해서는 전체 직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나,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예산 및 시간 부족 문제 • 장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도출 필요 	<div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em; margin-bottom: 10px;">→</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운영의 효율성 및 장년직원의 직무만족도 확대 • 장년직원의 노하우 및 경험의 효율적 활용 방안 구체화 • 장년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활용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장년 직원의 공감대 확대

② 인력운영의 적정성

2016년 EBS의 경영목표인 인성·창의 교육 강화, 명품 콘텐츠 확대, 스마트 서비스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한시 전문조직 ‘미래전략팀’ 및 ‘모바일판사업팀’을 설치해 미래전략 수립 및 외부 회사와의 합작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한시조직 신설로 발생한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원외 인력을 적절히 활용하고 퇴직자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비정형 인력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표 52> 미래전략팀의 기간별 업무추진 실적

6월~7월 [업무추진계획 수립]	8월~9월 [전사전략체계 검토]	10월~12월 [세부이슈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 세팅(6/10) ◦ 간부워크숍 의견 수렴 (6/21) ◦ 이사회·경영진 합동 워크숍 의견수렴 및 이슈정리(7/1) ◦ 변화세부과제 정교화 및 실행계획 수립 * 성과저해요소 도출 및 23개 과제 선정 * CM제도도입, ERP도입 등 추진 검토(안)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과제 포지셔닝 맵」 작성·보고(8/17) ◦ 「미래전략팀 업무추진현황」 이사장 보고(8/18) ◦ 관련부서(10개부) 인터뷰 (8/24~8/29) ◦ 경영전략체계 수립·보고(9/9) ◦ 경영전략체계하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보고 (9/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선 과제 분석/보고 * 주당 평균 2건 * ‘과제별 분석/보고 현황’ 참조 ◦ 분석자료 통합 및 시사점 발굴 ◦ 전사 조직개편(안) 검토 및 협의 * (11월)초안 작성 및 정책기획본부 논의 * (12월~)이사회, 경영진 및 부서장 공유 및 부서장/부장 의견수렴 * (12/20)경영진/부서장 회의

또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내1위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주)와 「EBS-NAVER 모바일 판(가칭, 스쿨잼)」이라는 모바일판사업팀을 신설해 운영했다. 추후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조인트벤처 법인을 설립·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동 사업을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문조직을 한시 운영하고자 설립했다.

③ 조직운영에 대한 직원만족도 정도

- 산정지수 : 직원만족도 수치
- 산출식(%) : [직원만족도(당해 연도) / 직원만족도(전년도)]×100

구성원의 만족 및 불만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내부 고객인 직원의 만족 수준을 제고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외부고객 만족경영을 실현하고자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만족도를 실시했다.

2016년도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는 56.3점으로, 직원만족도 수치 산정지수에 의하면 98.6%이다.

2) 인사관리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인사고과에 따른 역량성과 평가제도, 보상제도, 승진제도 등 인사제도의 합리성, 업적평가 및 보상제도(신분, 급여)를 연계한 인사관리와 구성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훈련 노력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1. 채용,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제도의 적정성, 2. 임금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3.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노력정도로 구성했다.

나) 평가내역

① 채용, 인사고과, 승진 등 인사제도의 적정성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해 다면평가(하향평가, 상향평가, 동료평가)를 도입해 시행 중에 있으며, 하향평가 및 상향평가는 연 2회, 동료평가는 연 1회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승진 및 각종 포상, 연수 대상자 선발을 위한 심의자료

로 사용했다.

하향평가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를 평가하며, 그 배점 비율은 60:20:20으로 하고 있으며 근무실적 평가는 핵심성과지표(KPI⁴⁰)에 의해 평가하며, 부별 KPI는 해당 부장과 소속 직원과의 협의를 거쳐 추출·수정·관리하며, 부서별 KPI는 소속 부의 KPI 중에서 핵심적인 지표를 추출해 사용했다.

동료평가는 차장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자는 동일 부에 피평가자와 2개월 이상 근무한 일반직 직원으로 하고, 부원 상호 평가를 원칙으로 했다. 상향평가는 부장, 부서장 보직자를 대상으로 계약직원을 포함한 전체 소속 직원이 평가했다.

<표 53> 하향평가는 5단계 등급으로 등급별 비율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비율	10%	20%	50%	15%	5%

<표 54> 인사평가 결과 반영비율(단위 : 점수)

구분	부장	부서장	부사장	근평조정 위원회	사장	동료평가	합계
일 반 직	차장 이하 직원	54	36	10			100
	부장		48	32	20		100
	부서장			60	40		100
계약직원	50	30		10		10	100

※ 상향평가 결과는 부장 이상 승진 시 참고 자료로 활용

업적평가의 공정·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해 부별 KPI는 해당 부장과 소속 직원과의 협의를 거쳐 추출·수정·관리하며, 직종별, 직렬별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100점 만점 중 10점 범위 내에서 조정 점수를 부여했다. 평가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평가결과를 분석해 평균점을 기준으로 조정했고, 특히 소수인원 근무부서 직원과 공통직무 수행직원을 별도 그룹으로 평가해 평가결과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사장은 차장급 이하 직원에 대

40)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 핵심성과지표.

한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가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에 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인사평가시스템이 구축되었다.

② 임금 및 보상제도의 적정성

승진·보직에 있어서 먼저 차장 승진은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가 78점 미만인 경우 차장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며, 근무성적평정 순위에 따라 차장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부장, 부서장 승진에 있어서는 승진 후보자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 및 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부장 이상 보직 임용에 활용했다.

교육연수 및 포상에 있어 대상자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 시 후보자의 최근 1년 및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 평균점수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선발하고 있다. 자비연수 휴직의 경우 업적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최근 3년 이내의 하향평가점수가 76점 미만인 자는 자격을 제한했다.

금전적 보상으로는 2012년부터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4단계로 차등해 성과상여금을 지급해 왔으며 2015, 2016년도에는 5단계로 차등해 지급했다.

③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정도

- 산정지수 : 1인당 교육연수시간
- 산출식(%) : [1인당 교육연수시간(당해 연도) / 1인당 교육연수시간(전년도)]×100

EBS 구성원의 1인당 교육연수시간이 2015년(77.1)에 비해 줄어들었다(73.4). 비록 교육연수 대상 인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총 교육연수기간도 축소되었다. 교육의 질도 중요하겠지만 양적인 면에 있어서도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직원교육훈련정도 산정지수에 의하면 95.2%이다.

<표 55> 2015, 2016년 1인당 교육연수시간

구분	2015년	2016년	비고
교육연수 대상 인원	643명	673명	계약직원 포함
총 교육연수시간	49,614시간	49,378시간	
1인당 교육연수시간	77.1시간	73.4시간	

3) 노사관리의 안정화 정도

가) 평가기준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 노사 간의 충분한 의견교류 및 공유를 이룰 수 있도록 노사 간 의사소통 채널의 공식화 수준과 노사 의사소통 채널의 합리성 및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사협력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 평가항목은 1. 노사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정도, 2.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사협력 정도로 구성했다.

나) 평가내역

① 노사 간 의사소통을 위한 제도적 노력 정도

상시적 노사 파트너십 체계 유지를 위해 경영 관련 정보공유를 위한 회의자료 공지로 1. 월요간부회의, 열림포럼 실시간 사내공청 및 주간업무 회의자료 공지, 2. 직원(정규직, 계약직) 채용 관련 내용 협의 및 공유, 3. 각종 위원회(인사, 징계, 규정심의 등) 내용 공유, 4. 이사회 상정 안건 공유, 5. 수시로 요청되는 경영자료 제공을 실시했다.

노사 커뮤니케이션 증진을 위한 상시적 업무협의 유지를 위해서는 1. 사내근로복지기금 노사 간 협의회 및 이사회 개최, 2. 노사 실무자 간담회 수시 개최, 3. 근로조건 개선 및 직원고충처리에 관한 업무 수시 협의 체제를 갖추었다. 성과 공유를 통한 노사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 1. 월별 목표대비 추진실적 공유, 2. 분기별 예산대비 집행 실적 공유를 실시했다.

노사협의회를 통한 정기적 소통 정보 교환을 위해서 1. 2016년도 국내·외 연수계획, 2. 2015년 결산 내역, 3. 분기별 수익(지출) 실적 공유, 4. 분기별 노사협의회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도 1. '16년도 직원 건강검진 시행 계획, 2. 사업장 안전관리(시설 및 작업장) 시행 계획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노사 화합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위해 1. 노사 교섭위원 전체회의 : 2016. 9.27.(1회), 2. 노사 실무소위원회 회의 : 2016. 10.20. ~ 12.14.(6회), 3. 2016년도 단체협약 무분규 체결(2016.12.30.)을 실시했다.

② 경영합리화를 위한 노사협력 정도

장년근로자 인력운영 합리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사 컨설팅을 시행해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장년근로자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했고, 임금피크제로 인한 근로의욕 감퇴, 생산성 저하 방지를 위한 직무조정을 실시해 장년근로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 직무 발굴 및 직무재설계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정부지원사업으로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 2016년도 ‘장년친화직장 만들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 노사 합의에 따른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노사 경영합리화 개선에 합의했다.

평가결과 및 제언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업무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인력채용과 근무 방식이 시행될 수 있는 근간 마련, 그리고 차장급 인력을 실무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실무 담당 인력의 비중을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15년도(57.1) 보다 낮은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56.3)가 나왔다.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직(가), 일반직(나), 일반직(다)의 복잡한 인사제도로 임금이나 승진에서 불리한 일부 직원들의 불만 때문에 전체 직원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중장기적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다면평가를 통한 인사제도의 공정성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차등적 금전 보상을 통한 부분적 성과급제의 도입을 평가하고자 하나,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찾기 어렵다. 특히 1인당 교육연수 시간의 축소는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어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상시적 노사 파트너십 체계 유지를 위해 경영 관련 정보 공유, 수시 업무 협의 체제 유지, 합리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 그리고 경영합리화 개선 합의 등을 이루어 내었다. 앞으로도 임금피크제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재무 및 경영정보 관리

평가내용

1) 경영실적의 개선 정도

가) 평가기준

이익 구조 및 재무 구조의 개선 노력과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1. 이익 구조의 개선 성과, 2. 재무 구조의 개선 성과로 구성했다.

나) 평가내역

① 이익 구조의 개선 성과- 산정지수 : EBITDA⁴¹⁾

- 산출식(%) : (당해 연도 실적 / 당해 연도 3년 치 평균)×100
- 이익구조의 개선 성과(EBITDA 결과) = 27%

<표 56> 연도별 EBITDA 현황(단위 : 백만 원)

구분	2013결산	2014결산	2015결산	2016결산
영업이익[A]	1,768	-1,243	2,347	-1,950
감가상각비[B]	7,882	6,845	4,403	3,910
EBITDA[C=A+B]	9,651	5,602	6,751	1,960

② 재무 구조의 개선 성과

- 산정지수 : 자산증가율 및 부채증가율

$$\text{산출식(%)= } \frac{\frac{\text{자산증가율 (당해년도)}}{\text{부채증가율 (당해년도)}}}{\frac{\text{자산증가율 (전년도)}}{\text{부채증가율 (전년도)}}} \times 100$$

※ 산출 결과: 83.5%

41)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표 57> 연도별 자산증가율 및 부채증가율

구분	2013결산	2014결산	2015결산	2016결산
자산증가율(A)	15.71%	-6.9%	16.56%	14.44%
부채증가율(B)	12.4%	-25.0%	27.2%	28.4%
A/B(당해년도)/ A/B(전년도)	379.2%	21.8%	220.6%	83.5%

2) 재무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관리회계와 위험관리 시스템 연계 현황의 분석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관리체계 정비에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의 비율로써 판매관리비의 적정성과 판매관리비 구성 항목 내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수익 구조 창출을 위해 공적 자원 확대 노력과 성과 및 신규 수익 항목 개발을 통한 자체 사업 수익 확대 노력의 정도와 성과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1.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적정성, 2. 재무관리 회계와 위험관리 시스템의 연계정도, 3.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양성 노력의 적정성, 4.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의 정도, 5. 판매관리비 구성 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6. 공적 자원 확대 성과, 7. 공적 자원 확대 노력 정도, 8. 자체 사업 수익 확대 성과, 9. 자체 사업 수익 확대 노력 정도로 구성했다.

나) 평가내역

① 재무제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의 적정성

EBS는 통합사옥 건립에 따른 2016년도 정부출자금 122억 원을 확보했고, EBS 2TV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금 20억 원을 신규로 확보하는 등 안정적 자금운영 및 위험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2016회계연도 결산업무 완료를 통해 경영진 및 이해관계자에게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영정보를 제공(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했다. 주요 지표로는 당기순이익 751백만 원, 유동비율 116.7%, 부채비율

53.6%, 차입금의존도 0%로 현재까지는 건실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 제출→감사원 검사→국회승인→재무제표 공표’ 절차를 통해 경영투명성을 확보했다. 통합사옥건립에 따른 유동성 감소(보고기간말 전년대비 △578억 원)에도 불구하고 11억 원 이자수익을 달성했다.

<표 58> 안정성과 성장성 비율분석

구분	당기	전기
유동비율	116.71%	298.99%
부채비율	53.67%	45.21%
차입의존금	-	-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비율	-	3,181.3배
매출액증가율	-3.19%	-2.47%
영업이익증가율	적자전환	(주1)
총자산증가율	14.44%	16.56%
자산회전율	1.13회	1.35회

(주1) 영업이익 부의 금액으로 산정하지 않음

② 재무관리 회계와 위험관리 시스템의 연계정도

안정적인 자금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분·반기 자금계획 수립 및 집행(자금운용의 예측성 확보)하고 이자비용 최소화를 위한 금융기관 차입약정을 마련했다.

<표 59> 금융기관과의 차입약정

금융기관	약정종류	한도	기간	이자율	원금 및 이자상환방법	비고
KB국민	기업일반 (자동대출)	400억 원	1년	2.43% (11월 21일 기준, 고정금리)	원금 : 수시상환 이자 : 매월납입	한도약정 수수료 면제
KEB하나	공공운전 (회전한도)	300억 원	1년	2.57% (11월 21일 기준 3개월CD+1.172% 변동금리)	원금 : 수시상환 이자 : 매월납입	한도약정 수수료 면제

특히, 기업은행과 연계된 통합자금관리시스템(IHB)의 운용을 통해 3단계 출금 확인을 수행하는 자금출납시스템으로 출납 무사고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신속 정확한 출납업무 처리로 보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가능케 했다.

③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양성 노력의 적정성

재무관리 전문가 현황을 살펴보면 공인회계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통합사옥과 관련해 차입경영이 예상되었으나 기존 사옥의 공개입찰을 통한 적기 매각(720억 원)으로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하지만 매각대금의 관리와 추가적인 감가상각비의 관리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회계, 세무 및 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요망된다.

<표 60> 재무·위험관리 전문가 현황

담당 업무	인원	주요 경력	특기 사항
자금	1명	1991. 1. EBS 입사	- EBS 자금관리시스템 구축 - 자금운영 경력 10년 이상
회계와 세무	1명	2006. 1. EBS 입사	- 한국공인회계사(KICPA)

<표 61> 직무교육 관련 예산집행 현황

담당 업무	인원	집행 내역	예산집행액
회계, 세무 및 관리업무	8명	재무, 회계, 세무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1,398,500원

④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의 정도

- 산정지수 : 매출액 중 판매관리비 비율
- 산출식(%) : (당해 연도 실적 / 당해 연도 직전 3년 치 평균) × 100
- ※ 산출결과 : 102.48%

<표 62> 매출액 대비 판매관리비 비율의 정도(단위 : 백만 원)

구분	2013결산	2014결산	2015결산	2016결산	과거3년 평균	산출결과 (%)
매출액(A)	271,425	276,806	269,958	261,336	272,730	
판매비	8,241	8,486	8,692	8,187	8,473	
일반관리비	22,938	21,842	21,981	21,986	22,254	
판관비 합계(B)	31,179	30,328	30,673	30,174	30,727	
판관비율(B/A)	11.2%	11.0%	11.4%	11.6%	11.3%	102.48

⑤ 판매관리비 구성 항목별 내용의 적정성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판매관리비율은 소폭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 대비 판관비 비율은 2014년 11.0%, 2015년 11.4%, 2016년 11.6%로 증가했다. 그리고 자체 수익사업의 구조가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고, 통합사옥 이전에 따른 운영비, 감가상각비 및 인력운영비 증가 등 고정비성 경비의 증가로 일반관리비율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판매관리비율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표 63> 연도별 판매관리비 현황(단위 : 백만 원)

구분	2012결산	2013결산	2014결산	2015결산	2016결산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판매비	6,888	8,241	8,486	8,692	8,187	-5.81%	4.41%
일반관리비	22,938	22,938	21,842	21,981	21,986	0.02%	-1.05%
판관비 합계	29,826	31,179	30,328	30,673	30,174	-1.63%	0.29%

⑥ 공적 자원 확대 성과

- 산정지수 : 공적 자원 금액
- 산출식(%) : (당해 연도 실적 / 당해 연도 직전 3년 치 평균)×100
- ※ 산출결과 : 100.6%

<표 64> 연도별 공적 자원 현황(단위 : 백만 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직전 3년 평균	산출결과
수신료수익	16,671	17,004	17,501	17,712	17,059	
방발기금수익	22,500	23,669	25,475	27,322	23,881	
국고보조금수익	31,172	25,147	23,610	22,931	26,643	
합계	70,342	65,821	66,586	67,965	67,583	100.6

⑦ 공적 자원 확대 노력 정도

EBS 공적 자원 확대 노력의 성과로 2016년 예산에 있어 프로그램 제작지원 252억 원, 방송 인프라 개선 37억 원, 글로벌 교육 18억 원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았다. 2017년 예산 요구(3월~5월)로 프로그램 제작지원 321억 원, 방송 인프라

개선 85억 원, 글로벌 교육 47억 원을 신청했다. 자체 사업 수익원의 축소로 공적 자원 확보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⑧ 자체 사업 수익 확대 성과

- 산정지수 : 자체 사업 수익 금액
- 산출식(%) : (당해 연도 실적 / 당해 연도 직전 3년 치 평균)×100
- ※ 산출결과 : 94.0%

<표 65> 연도별 자체 수입 현황(단위 : 백만 원)

구분	2013결산	2014결산	2015결산	2016결산	과거 3년 평균	산출결과
자체 수입	204,851	214,753	207,287	196,329	208,964	94.0
방송광고	40,008	39,929	40,862	37,010	40,266	
제작협찬	4,911	4,666	5,383	5,593	4,987	
프로그램공급	5,154	5,130	4,801	4,712	5,028	
출판사업	102,697	101,196	93,610	88,163	99,168	
- 연계교재	54,620	51,976	48,405	46,546	51,667	
- 연계교재 외	48,077	49,400	45,205	41,617	47,561	
문화콘텐츠부대사업	6,054	5,595	8,353	8,932	6,667	
콘텐츠사업	33,190	40,836	38,481	34,940	37,502	
기타부대수입	9,068	13,633	11,883	14,020	11,528	
사업외수입	3,769	3,768	3,915	2,959	3,817	

⑨ 자체 사업 수익 확대 노력 정도

EBS는 자체 사업 수익의 확대를 위해 신규 사업 및 서비스 추진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 대상 EBS 교육방송 모델 해외 수출을 추진했다. 모델 구축 컨설팅 및 업무협의를 위한 협찬용역사업비, 해외출장여비 등 예산 127백만 원을 편성했고, EBS TOPIK 한국어 교재 개발 및 홍보를 위해 교재 제작비, 판매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예산 283백만 원을 편성했다. 특히, 모바일 신규 사업 추진, 육아학교 Pin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경영을 펼쳐나감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수익모델을 찾고 있지 못하다. 이에 EBS만이 가진 역량을 통해 신규 자체 사업 수익 모델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가) 평가기준

전체 예산 구조의 건전성과 함께 예산 편성 과정의 절차적 합리성·정당성 및 예산 관리의 효율성·합리성을 평가하고, 관련된 노력의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1. 예산 구조의 건전성 유지 노력 정도, 2. 예산편성 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 정도, 3. 예산절감 노력 정도, 4. EBS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개선 정도로 구성했다.

나) 평가내역

① 예산 구조의 건전성 유지 노력 정도

EBS는 예산 구조의 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도 예산 추경 1회 및 예산 조정을 11회 시행했고 2017년도 예산 편성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ERP시스템 구축 예산을 반영한 점을 평가하고자 한다. 자체 사업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 억제를 통해 당기 순익 실현을 실현한 점은 평가되어야 한다. 하지만 자체 수익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

② 예산편성 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 정도

EBS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일정 수립, 부서별 요구 및 조정으로 예산편성 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자 했다. 그 일환으로 재정여건, 예산편성방향, 예산 요구 일반 및 세부지침 확정 통보(2015.10),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실무진 대상 간담회 개최를 통한 현업요구 수렴(2016. 10~11)등을 실시했다. 그리고 부서별·사업별 목표에 따른 예산 요구 및 검토를 위해, 기관운영목표 및 부서별 운영목표, 중점 추진사업, 지난해 집행실적 등을 고려해 요구예산 검토, 구체적인 단위/세부사업별 목표 및 예산집행계획서 취합, 이를 기초로 예산 편성, 부서별·사업별 예산 수립 시 추진실적, 추진방식, 단가 및 수량 등 상세 매출 산정근거 제출, 비용예산 수립 시 매출 관련 비용의 정확한 연동 여부 검토, 사업별 추진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실시했다.

③ 예산절감 노력 정도

EBS는 자체 사업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용 증가 억제를 통한 당기 순이익 실현을 위해, 정기적인 예산집행실적 점검 및 수시전망으로 비용집행 관리 강화 및 절감 노력을 실시했다.

또한 수입목표 달성률과 비용예산 집행률이 전년 대비 동반 상승한 점을 평가 하나 여전히 낮은 수치임으로 수입목표 달성률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 66> 연도별 비용예산 집행률(단위 : 억 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결산	예산 대비									
수입	2,901	2,752	94.9%	2,999	2,806	93.6%	3,001	2,739	91.3%	2,871	2,643	92.1%
비용	2,901	2,713	93.5%	2,999	2,790	93.0%	3,001	2,693	89.7%	2,871	2,635	91.8%
이익	-	39		-	16		-	46		-	8	

④ EBS 정보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개선정도

- 산정지수 : EBS 정보시스템의 이용자(경영자 및 관리자 포함) 만족도 수치
-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정도
- 관리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정도
- 회계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 정도
- 기업의 투명성제고 및 경쟁력향상에 대한 기여 정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
- 산출식(%) : [이용자 만족도(당해 연도) / 이용자 만족도(전년도)]×100
- ※ 산출결과 : 93%

EBS 정보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를 의사결정자와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EBS 정보시스템에 대한 '일반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총 응답 221명)로 '매우 만족' 5명, '만족' 39명, '보통' 92명, '불만족' 58명, '매우 불만족'은 27명으로 각각 조사 되었으며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2.71점으로 보통(3점) 보다 조금 미흡한 결과를 보였다. 전년도 조사결과인 2.9점보다도 다소 낮아진 점수를 보인 점은 시스템 개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보다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평가결과 및 제언

2014년에 이어 2016년에도 영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공익기관으로서 과다한 흑자는 어렵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기관으로서 적자폭을 줄이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어린이 영상사업 및 신사업 조인트벤처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투자 확대 노력이 필요하고, 출판사업, 온라인사업 등 기존 부대사업의 시장악화 및 경쟁심화에 따른 매출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자체 비용절감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무 및 위험관리 적정성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재무회계 업무절차 개선을 위한 전사적 차원의 재무·회계 기초 교육이 필요하다.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의 도입으로 직무프로세스 개선(자구노력 및 외부컨설팅)에 따른 EBS 전반에 걸친 프로세스 개선으로 효율성 증대가 필요하다.

고정비성 경비의 절감 노력이 절실하다. 향후 통합사옥 건립으로 인해 건물유지비, 부가세 부담 등 일반관리비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정비성 경비 절감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에서 일반관리비 주요 증가 항목은 지급수수료, 임차료 등의 고정비성 경비이므로, 외부 위탁운영비 절감 노력 및 외부 임차시설의 통합사옥 조기 이전을 통한 임차료 절감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교부금 국고 일반회계 전환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 관계기관(교육부, 기획재정부, 국회 교문위·예결위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의 국고 일반회계 지원으로 전환을 계속 추진하고, 일반회계 예산 미반영 시, 기존 특별교부금 지원액 확대 추진을 통해 정부 재원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한 신성장사업 매출 신장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시장여건 악화에 따른 방송광고 수익과 출판사업 수익의 감소가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2016년 기준 자체 사업 수익 중 방송광고 수입 비중은 18.7%, 출판사

업 수익은 43.9%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 다각화를 통해 두 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EBS는 통합사옥으로의 이주비용 및 감가상각비 증가로 인한 예산 상 사업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기존 사옥 매각대금의 관리와 더불어 추가적인 감가상각에 대한 체계적인 전망을 바탕으로 한 예산 기획이 필요하다. 특히, 전년 대비 수입목표 달성률(91.3% → 92.1%)의 증가보다 비용예산 집행률(89.7% → 91.8%)의 증가가 더 커 당기순이익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어 수입목표 달성률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라. 홍보 및 사회공헌도

평가내용

1) 브랜드가치 제고 노력의 정도

가) 평가기준

공영방송으로서의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1.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시스템 운영전략의 적정성, 2.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활동의 적정성으로 구성했다.

나) 평가내역

①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시스템 운영전략의 적정성

EBS는 콘텐츠 홍보 강화, 부정적인 보도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아래와 같이 실시해 왔으나 일반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돼 왔으며, 소셜미디어 채널을 활용해 일반 시청자의 홍보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했으나 파급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EBS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그 가치를 더욱 증대시킬 효과적인 운영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가. EBS 콘텐츠 홍보 강화

- 출연자를 활용한 프로그램 홍보 강화
- 미디어 서비스 강화 및 프로그램 사전 기획 홍보 강화
- 기자 간담회 및 설명회 수시 개최, 기자 관계 관리 강화 → 긍정기사 확산 효과

나. 부정적인 보도 발생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근거 없는 부정 게시물의 삭제 조치 및 블로그 등 SNS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
- 부정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배포 및 적극적인 수정요청 조치

②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한 대외 홍보 활동의 적정성

EBS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의 채널로는 주로 언론, 소셜미디어, 대중교통의 광고를 통해 홍보가 이루어졌다. EBS가 가지고 있는 우수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홍보가 미비한 것으로 지적된다. EBS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나 캐릭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브랜드 가치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보업무의 예산 집행실적 (프로그램·기관홍보: 524,818천원 중 397,524천원 집행, 집행율 75.7%, 홍보자료 발간: 125,016천원 중 83,800천원 집행, 집행률 67.0%)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보 업무의 특성상 연간 주요 이슈 발생 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예산내역 등이 포함돼 있고, 부정청탁방지법 시행으로 인한 기자 동행 취재 미실시 등의 사유로 확인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은 지난해 EBS의 홍보 자료이다.

가. 언론 홍보

- 전체 보도량 : 14,708건
- 프로그램 제작발표회 및 기자 초청 설명회 : 10건
(편성 설명회, 영화 번개맨, EIDF,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다크프라임 등)
- 주요 프로그램 기자 동행 취재 및 인터뷰 : 20건
(New 하니를 찾아라, 보니하니, 대도서관 잡쇼, 스페이스 공감 등)
- 긍정적 기사 비율 : 97.91%

나. 소셜미디어 홍보

- 페이스북 : 구독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이탈률 감소 추세 (채널 안정화)
 - 도달률 100만 이상 2회 달성, 연간 평균 도달률 증가
- 카카오토티 : 이용자 참여도 증가 및 공감지수 상승
 - 부모 대상 큐레이션 콘텐츠 강화 및 참여 유도
- 블로그
 - 일평균 페이지뷰 24,399회(전년 대비 36% 증가)
 - 월간 100만 뷰 3회 달성(최초), 누적방문자 2천만 돌파(2016. 5.)
 - 스토리기자단 7, 8기 운영 : 기획성 콘텐츠 및 리뷰 포스팅 987건
- 유튜브 : EBS스토리 유튜브 채널 조회수 전년 대비 2.2배 상승
 - 콘텐츠 발행 회수 600건(전년 512건)

- 동영상 시청시간 8,432,994분(전년 3,577,650분) : 전년 대비 2.4배 상승
- 인스타그램 : 활용 콘텐츠의 소재 추가 확대
 - 기존 여행 관련 이미지 자료에 요리 및 동물 관련 이미지 활용
- 카페
 -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똑맘프렌즈’ 운영
 - EBS 초등 및 유아 부모 대상 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카페 게시판 개설 운영
 - 회원들에게 소구력 있는 EBS 관련 프로그램들의 카페 내 별도 게시판 운영

<표 67> 미디어 홍보 실적

채널명	이용자 현황(전년 대비 증감)	운영 현황(전년 대비 증감)
블로그	총 방문자수 : 23,911,278명 (↑7,105,828명)	포스팅 수 : 1,275건 (↑164명)
페이스북	팬수 : 134,618명 (↑12,179명)	콘텐츠 수 : 630건 (↓154건)
카카오스토리	총 친구수 : 252,556명 (↑9,270명)	게시물 : 912건 (↑210건)
카페	구독자수 : 5,383명 (↑2,188명)	누적 방문수 : 227,450 (↑98,460)
유튜브	구독자수 : 18,371 (↑8,766명)	발행횟수 : 600회 (↑88건)
인스타그램	팔로워수 : 6,165 (↑1,439명)	발행횟수 : 461회 (↑329건)
오픈캐스트	총 방문자수 : 885,200명 (↑6,256명)	발행횟수 : 20회 (↓44회)

※ 네이버 오픈캐스트 서비스 축소에 따른 운영 중단

다. 대내외 홍보

- 대중교통을 활용한 콘텐츠 및 기관 홍보
 - 지하철3호선 : 1일 70회, 30초 동영상 홍보(매월 1일, 16일 편성)
 - 총 3,920대(행선안내기)
 - 경기G버스 : 1일 60회, 60초 동영상 홍보(매주 월, 목요일 편성)
 - 버스 13,300대에 설치(버스 당 TV 2대 설치)
 - * 활용프로그램 : 세계테마기행, 한국기행, 문화유산코리아, EBS토목달 등
 - 지하철3호선 음성광고
 - “EBS 교육방송으로 가실 분은 매봉역 3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 EBS FM 주파수 안내 표지판 총 67개소 운영 및 관리
- 대외용 EBS 홍보 인쇄물 뉴스레터 제작 및 배포
 - 격주 발행(총 24회), 매회 탄력적 인쇄
 - 매회 약 19만 여명 회원에게 발송 (메일 수신 동의한 회원)

- EBS다이어리(8,500부) 제작 배포
- 대표 캐릭터를 이용한 탁상용 달력(8,500부) 제작 배포
- 2016년 연지 제작 홈페이지 탑재
- 지면용 광고제작 4건: 채널광고 2건, 캐릭터 광고 2건
- 차량 랩핑을 통한 기관 홍보 : 사내차량(15대) 대상 연3회
- EBS 본사 건물 외벽을 통한 프로그램 홍보 : 88건
- 수상 실적 등 현수막 제작 홍보 : 10건
- 사진 제작(촬영) : 290건, 사진 이미지 제공(보도자료, 사보 등) : 560건
- 프로그램 액자제작 28개(상반기 12개, 하반기 16개)
- 창원 세계교육문화체험박람회(6.17.~6.19.) EBS 홍보관 운영
 - 구성 : IT관(VR체험, 코딩), 영어관, 체험관, 홍보관 등 운영
 - 세미나 : VR 진로직업교육 프로젝트, 초중등 EBS 소프트웨어 교수법 소개
 - 방문자수 : 22,268명(전년 대비 38% 상승)

2) 사회공헌활동의 성과

가) 평가기준

사회공헌활동 테마 선정 시 EBS의 사회적 책임경영목표에 잘 부합했는지, 마케팅 및 홍보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를 선정했는지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1.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및 사회적 책무 이행 정도, 2. 사회공헌활동 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 정도이다.

나) 평가내역

① 사회공헌활동 내용과 구성의 적정성 및 사회적 책무 이행 정도

2016년도 EBS 사회공헌 사업은 크게 세 가지 목표로 나눠 진행되었다. 첫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 둘째, 나눔인식 개선, 셋째, 교육기부·나눔 서비스 다변화가 그것이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EBS 교재나 수신기술 지원, 무료수강권 등 무상제공을 통해 빈부의 차가 학력의 차이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꿈 장학생 지원, 멘토링 사업 등 EBS를 활용한 다양한 분

야의 사회공헌을 전개했으며, 이를 통해 EBS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무이자 EBS의 핵심가치인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주력했다.

나눔인식 개선은 우리사회에 주어진 과제를 교육주체와 시민이 함께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월드비전과 공동으로 수행한 ‘학교폭력예방캠페인’과 국가보훈처의 ‘호국영웅 선양 캠페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사이트 운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외에 재외교민에게 EBS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문화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연 ‘꿈나래 봉사단’ 등은 EBS만의 차별화된 사회공헌 영역이다.

가.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 교재지원 및 교재 점역

- 초중고 생활보호대상자 및 보훈·탈북자 대상 자녀 21.5만명에게 63.6억 원 상당의 교재(75.7만부)를 지원
- 시각장애인 희망 교재 및 수능연계과목 교재 160권(누적 1,721권) 점역사업

○ 사회통합교육 멘토링 사업

- 경상남도교육청(49개교) 403명, 정선교육지원청(3개교) 36명 멘토링 제공
- EBS 학습 콘텐츠를 활용한 맞춤형 사회공헌 모델 제시

나. 나눔인식 개선사업 확대

○ 다문화 사이트(두리안) 운영

- 2013년 사이트 오픈 이후 총 6,190편 다문화가정 지원 콘텐츠 탑재

○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월드비전 협찬) : 2014년부터 월드비전과 공동주최

- 909개 학교의 1,752개 학급 등 총 43,538명 참여(전년대비 45% 증가)

○ 호국영웅 선양 캠페인(국가보훈처 협찬) : 2편 제작 및 방송

- 6월 현충일 및 6월25일 전후 방송

다. 교육기부·나눔 서비스 다변화

○ 재외국민 대상 교육 콘텐츠 지원

- 베트남 등 4개국에 VOD콘텐츠 총 32,000편 제공
- 꿈나래 봉사단 : EBS출연자 및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 소외계층 지원
- 번개맨 출연진, 세브란스 어린이병동 공연 등 6회 봉사활동 실시
-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발레시어터 등 외부기관 참여,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직업 및 무대체험 실시

② 사회공헌활동 성과에 대한 내부 평가 정도

EBS의 사회공헌활동은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사업, 나눔인식 개선사업 확대, 그리고 교육기부·나눔 서비스 다변화로 사회통합을 위해 충실히 시행되었다.

가. EBS교재 지원사업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EBS 방송교재를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 제고 및 공교육 정상화,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일익을 담당했다.
 - 고교생 : 교육부에서 전국 고교 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을 통한 일부 차상위층 고교생 포함
 - 초·중학생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을 통해 대상자 선정
-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1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해 정가 기준 63억여 원의 교재비를 지원했다.

<표 68> EBS 교재 무상 지원 현황

지원 대상	지원학생 수	지원 부수(권)	지원 금액 (정가기준 :천 원)	소요예산 (인쇄·물류비 등)
고1~3	170,000	597,000	4,632,340	1,159,960천원 (집행)/ 1,375,747천원 (자체 예산)
초등1~6	30,000	100,000	1,162,500	
중학1~3	15,000	60,000	567,500	
계	215,000	757,000	6,362,340	

나. EBS 교재 점역 사업

- 교육부 수능예산과 EBS 자체 예산을 이용, 국립특수교육원에 점역사업 추진
- 전국 맹학교 대상 설문조사 후, 희망 점역과목 및 수능연계과목 점역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점자파일로 점역 후 시각장애학생 전용 사이트 (E-yab.http://blind.knise.kr) 에 탑재, 전국 맹학교별로(12개처) 파일을 다운받아 점자프린터로 교재 제작(연간 160책, 소요예산 121,000천 원)

다. 사회통합교육 멘토링 사업

- 목적
 - EBS 브랜드 및 콘텐츠를 활용한 공교육 내실화 모델 제시
 - 교육적 배려 대상에 대한 자기주도 학습능력 배양

○ 운영방식

- 멘티 1명당 : 주 1~2회(50분), 월 4~8회 멘토링
- 1회 멘토링 : 멘토링(20분), 학습시간표 점검(10분), EBS동영상 확인(10분), 첨삭 지도(10분), 강사 휴식(10분)
- 세션운영 : 3개 세션, 세션 당 2~4개월
- 멘토링 내용
 - 학습성향 및 멘토링 유형 진단 후 개별 커리큘럼 구성
 -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계획수립, 학습지도, 과제확인, Q&A
 - 학교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우, 진로, 심리 등 정서적 코칭

○ 2016년 운영실적

- 경상남도교육청
 - 대상 및 인원 : 경남교육청 18개 지역교육지원청 49개교 403명
- 정선교육지원청
 - 대상 및 인원 : 정선교육지원청 3개교 중학생 36명

라. 일선학교 수신 기술지원

○ 지원목적

- 전국 일선학교 방송시설에 대한 방송수신 상태 점검 및 기술지원을 통해 EBS 방송수신환경 개선 및 지상파방송사의 무료보편적 서비스 제공 확대

○ 지원내용

- (기술지원) 지상파 TV, EBS 플러스1·2·영어교육채널 및 EBS FM 방송 수신 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 (기술자문) 학교 구내 방송시설 점검·활용을 위한 기술자문 제공 및 방송 담당 교사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 활용교육

○ 수신기술 지원 실적

- 경기지역과 전북지역에 각각 15교를 지원했으며 집행예산액은 17,115천 원임

마. VOD 서비스를 통한 사회공헌·소외계층 지원

○ 대상 :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취약 계층

○ 지원내역

- EBS 방송 VOD/AOD 유료 프로그램 이용
- EBS 중학 프리미엄 무료 이용
- EBS 명품 공인중개사, 공무원 온라인 강좌 50% 할인 혜택

- EBSlang(어학) 온라인 강좌 유료

※ 실물상품, 패키지, 환급 과정, 제휴 프로그램 등은 제외

<표 69> VOD 서비스 지원 실적

영역별	인원(명)	실적(원)
방송	2,703	583,848,000
중학프리미엄	1,722	1,146,348,500
명품직업	434	27,417,437
ebslang.co.kr	10,159	426,383,500
계	15,018	2,183,997,437

바. 장애인 모니터 요원 운영

- 방송 홈페이지 게시판, 초·중 수강 후기 : 모니터링
- EBS 메인사이트, 초·중, 클립사이트 오작동 : 주기적 모니터링
- 장애인 7명 계약직 선발 후 재택 근무

사. EBS 꿈 장학생 지원

- 공모대상 : 매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생
- 콘텐츠 제작 : 2016 꿈 스토리 클립형 콘텐츠 및 SB, EBSi 프로모션 제작

<표 70> EBS 꿈 장학생 추진 성과

구분	장학금(원)	인원(명)	총액(원)
대상	5,000,000	1	5,000,000
우수상	2,000,000	18	36,000,000
합계		19	41,000,000

※ 당초 총 21명 선발자 중 2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수상을 사양해 최종 19명만 선발

아.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두리안사이트> 운영

- 운영목적
 - EBS 콘텐츠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지원
- 운영실적
 - <몽몽인형극장>, <TOPIK 알아보기>, <한국 알아가기> 등 총 1,250편 탑재
 - 한국어능력시험 연계 웹 콘텐츠 <TOPIK 알아보기>의 높은 호응으로 사이트 이용자 증가(전년대비 총 방문자수 약 20% 증가)

<표 71> 다문화 가정지원 콘텐츠 내역(누적 통계)

분류	콘텐츠 내용	편수(편)
한국어 학습	한국어, 한국문화 관련 학습 콘텐츠	2,064
	중도입국자,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등	244
한국문화	요리, 건강정보, 여행 등 문화콘텐츠	1,852
영어학습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영어콘텐츠	1,588
정착생활 지원	한국 정착생활 정보	147
EBS 프로그램 정보 안내	EBS 다문화프로그램 주간 안내 및 이벤트 진행	295
계		6,190

자.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 개요

- 월드비전과 함께 2014년부터 공동 주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행복한 교실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진행
- 기간 : 2016. 4월~10월
- 대상 : 전국 초·중·고 학급단위 및 동아리 등 15명 이상 참여

○ 실적

- 909개 학교, 1,752개 학급 등 총 43,538명 참여(전년대비 45% 증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원(나경원 의원)과 공동으로 <교실에서 찾은 희망> 포럼 개최(10.12.)를 통한 학교 폭력예방 교육정책과 다양한 정책 제안

차. EBS 호국영웅 선양 캠페인

○ 목적

-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찾아 그들의 삶과 업적을 되돌아보고 추모하는 '호국영웅 선양캠페인'을 전개함.

○ 캠페인 내용

- 1부 : 여기자 마거릿히긴스 그리고 무적의 해병대
- 2부 : 기적의 군대, 현봉학과 레너드 라루 선장
- 방송 : EBS 1TV 2016. 6. 2.~6. 6./6.22.~6.25.

카. 재외교민 교육 콘텐츠 지원

○ 운영목적

- 재외교민의 정체성 교육을 통한 자긍심 함양

- EBS 교육 콘텐츠의 해외 소개를 통한 수혜 범위 확대

○ 운영실적

- 베트남, 우간다, 케냐, 몽골 4개국 지원

<표 72> 재외교민 교육 콘텐츠 세부 지원내역

월	지역	전달처	제공 내역
1월	베트남	하노이 국제한국학교	초,중,고 교과 콘텐츠 총 6,400편
2월	우간다, 케냐	교민단체	초,중,고 교과 콘텐츠 총 6,400편 2Set
6월	베트남	교민단체	초,중,고 교과 콘텐츠 총 6,400편
9월	몽골	교민단체	초,중,고 교과 콘텐츠 총 6,400편
계	4개국		VOD 콘텐츠 32,000편

타. 꿈나래 봉사단 운영

○ 개요

- EBS 출연자 및 캐릭터를 활용해 문화소외계층에게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사회 공헌
- 외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상호간의 홍보효과 확대 및 사회공헌의 효율성 증대

○ 운영실적

-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EBS 출연진 및 캐릭터 공연
- 교육적 메시지, 공연관람 등 다양한 현장체험 실시
-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산업현장방문 및 직업체험 실시

<표 73> 꿈나래 봉사단 운영

회	일 시	장 소	출연 및 지원기관	대상 및 활동 내용
1	2.18	안면도 고남삼육어린이집	번개맨 캐릭터	산간벽지 어린이 50명 대상 번개맨 공연
2	3.26	보라매안전체험관	서울소방재난본부, 동작소방서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일일 소방관 체험 및 안전교육 체험
3	5.18	마포아트홀	SBT발레단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일일 발 레체험 및 발레공연 관람
4	9. 9	파주시민회관	뚜앙과 친구들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공연관람 및 출연자와의 만남
5	12.12	고양시 육아종합정보지원센터	번개맨 캐릭터	소외계층 어린이 대상 100여명 번개맨 공연
6	12.13	세브란스 어린이 병원	번개맨 캐릭터	소아병동 어린이 환자 150명

평가결과 및 제언

EBS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의 주요 등장인물 및 캐릭터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확대가 요구된다.

교육 콘텐츠 연계 발행을 통한 기획 콘텐츠 확대, 기획 기사 발굴, 보도자료 배포 및 홍보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획단계에서부터 채널별 기획 콘텐츠 발행 횟수를 조정하고 이슈 콘텐츠를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EBS는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 실행, 교육기부·나눔 서비스의 다변화,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 실시 등 의미 있는 사업을 실행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연계나 지원을 통해 지속 사업으로 유지가 필요하고, 사회공헌 업무의 실적분석 및 성과공유를 통한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마. 전년도 평가 지적사항 개선

평가내용

1)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 개선 노력 및 성과

가) 평가기준

경영평가의 목적은 평가과정에서 밝혀진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의 발전에 도움을 주려는데 있다. 전년도 경영부문 경영평가에서 지적 및 개선 제안 사안에 대한 처리 및 반영 정도를 평가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1. 전년도 경영부문 평가결과 지적사항 개선 정도로 구성했다.

나) 평가내역

경영정보시스템의 근본적 보완을 위해 다음 해 예산편성을 통해 ERP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재설계(BPR)를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산해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ERP시스템 도입을 통해 1998년에 도입된 종합정보시스템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에 대한 경영분석정보 제공과 신규 플랫폼 투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수익 극대화과 효율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즉 EBS의 경영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직원만족도 제고를 위해 일반직(다) 직원에게 직급 부여, 사내기업 조직 신설, 급여 제도 변경 등 다양한 노력을 했으며, 부서성과관리 부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직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16년도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는 56.3점으로 만족도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전년도 설문조사 : 57.1점)

평가결과 및 제언

전사적 자원관리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CEO의 관심을 통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새로운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성공적인 ERP도입으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해 내기를 기대한다.

경영부문 대표 집필위원 : 이상근 위원

2016사업연도 EBS 경영평가보고서

발행 : 2017년 5월

발행인 : 서 남 수

발행처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회

주소 : 135-854,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 (02) 526-2000

인쇄 : 유진문화사, (02) 576-2358

비매품

행복한
교육 세상 EBS

